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KEI

사업보고서
2020-10-07

KEI 북한환경동향 2020년

KEI Environmental Issues in North Korea 2020

강택구 외

■ 저 자 강택구

■ 연구진

연구책임자 강택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조원 김현아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과정)
 정동희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 석사과정)
 장수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 석사과정)
 김다운 (청주대학교 환경조경학 학사)

© 202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인 윤 제 용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 쇄 2020년 12월 26일
발 행 2020년 12월 31일
등 록 제 2015-000009호(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497-7 94530
 979-11-5980-485-4 (전8권)
인쇄처 (주)승림디앤씨 02-2271-2581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강택구(2020), 「KEI 북한환경동향 2020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값 7,000원

이 보고서는 2020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일반사업과제로 수행한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전8권 세트)의 제7권입니다.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	목차
(제1권) 사업보고서 2020-10-01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 사업 개발 연구: 총괄보고서 (강택구)	1. 서론 2. 2020년 연구사업 추진 실적 3. 향후 계획
(제2권) 사업보고서 2020-10-02	북한지역 환경오염원 현황 분석 및 남북환경협력 방안: 대기오염을 중심 으로 (명수정)	1. 서론 2. 북한의 대기환경 현황 고찰 3. 북한지역의 대기오염원 추정 4. 대기질 개선을 위한 남북협력 5. 결론 및 제언
(제3권) 사업보고서 2020-10-03	한강하구 상태평가 및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연구 (김충기)	1. 서론 2. 한강하구의 현황 및 상태평가 체계 사례 분석 3. 한강하구 상태평가 4.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방안 5. 결론 및 제언
(제4권) 사업보고서 2020-10-04	DMZ 일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 강원권 DMZ 및 접경지역을 중심 으로 (전동준)	1. 서론 2. 강원권 DMZ 접경지역 현황 3. 강원권 DMZ 접경지역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현황 4. 강원권 DMZ 접경지역 개발계획 유형별 환경영향평가 중점 검토 사항 5. 결론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계속)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	목차
(제5권) 사업보고서 2020-10-05	북한 개발 투자사업의 환경사회 세이프 가드 구축 방안 (조공장)	1. 서론 2. 남북한 환경영향평가제도 3. 국제협력기구의 세이프가드 4. 시사점
(제6권) 사업보고서 2020-10-06	북한 환경법제 입법동향 및 DB 구축(I) (한상운)	1. 서론 2. 북한 환경법제 체계와 김정은 정권 이전의 환경법제 변화 3.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 환경법제의 변화 4. 북한의 국제 환경협력 현황 및 변화 5. 결론 및 제언
(제7권) 사업보고서 2020-10-07	KEI 북한환경동향 2020년 (강택구)	1. 북한 매체 보도 동향 2. 국내 매체 보도 동향
(별책부록) 사업보고서 2020-10-08	위성영상기반 북한 주요 지역 토지피복 현황 및 토지피복도 구축 (추장민)	1. 서론 2. 남북 토지피복도 분류체계 통일화 및 북한 토지피복도 분류항목 선정 3. 중분류 토지피복도 시범 구축 4. 중분류 토지피복도 기반 개발 압력 높은 지역 분석 5. 결론

KEI 북한환경동향 2020년 구성

「KEI 북한환경동향」은 북한환경 현황에 관심 있는 연구자, 공무원, 학생, 일반국민 등에 북한환경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매년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부득이하게 발간하지 못한 해도 있었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매년 1차례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하는 「KEI 북한환경동향 2020년」은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북한과 국내의 언론매체에 보도된 북한의 환경 관련 자료를 환경 분야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KEI 북한환경동향 2020년」의 발간 과정은 예년과 다르게 진행되었다. 2020년 코로나19가 발발하여 전 세계를 휩쓸고 이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예년과 달리 국내에서 북한 자료를 보관하고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관련 자료 수집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에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북한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월간 북한동향」에 기초한 관련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통일부에서 선별하고 가공한 2차 자료인 「월간북한동향」에 기초하였다는 점에서 예년에 발간한 「KEI 북한환경동향」과 비교하여 환경 관련 보도가 양적으로는 적다는 아쉬움이 있다.

통일부가 제공하는 「월간북한동향」에서 다루는 북한 매체는 중앙통신, 중앙방송, 『노동신문』, 『민주조선』이다. 한편 국내 매체의 기사 수집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에서 진행하였다. 대상 매체는 중앙지 11곳(『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제지 8곳(『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방송사 5곳(KBS, MBC, OBS, SBS, YTN)이다.

북한과 국내 매체 보도 내용에 관한 수집과 정리는 예년 자료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 발간한 「KEI 북한환경동향」에서 제시한 분야에 근거하여 진행하였다. 이번 「KEI 북한환경동향 2020년」의 북한 매체 보도 동향은 한반도 및 국토환경, 기상, 대기 및 예년

지, 지질 및 지형, 수자원, 산림, 농업·축산, 토양, 해양, 생태계(동식물),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보건, 환경정보화 및 과학기술, 정치·경제 총 14개의 분야로 구분하였다. 토양 관련 내용은 보도가 없어 공란으로 두었다. 북한 매체 내용의 경우 통일부 「월간북한동향」에서 인용하고 있는 북한측 원문을 가급적 그대로 두면서 요약 정리하였다. 그리고 국내 매체의 보도 동향은 한반도 및 국토환경, 기상, 대기 및 에너지, 수자원, 산림, 식량, 생태계(동식물),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보건 및 환경오염, 접경지역, 정치·경제 총 11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다만 2019년에 경제·정치 분야를 이번에는 정치·경제 분야로 명칭을 바꾸어 표기하였다.

| 차례 |

제1장 북한 매체 보도 동향	1
1. 한반도 및 국토환경	1
2. 기상	8
3. 대기 및 에너지	10
4. 지질 및 지형	14
5. 수자원	14
6. 산림	17
7. 농업·축산	20
8. 토양	28
9. 해양	28
10. 생태계(동식물)	29
11.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30
12. 보건	38
13. 환경정보화 및 과학기술	55
14. 정치·경제	56
제2장 국내 매체 보도 동향	66
1. 한반도 및 국토환경	66
2. 기상	71
3. 대기 및 에너지	74
4. 수자원	77
5. 산림	79
6. 식량	82
7. 생태계(동식물)	93

8.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95
9. 보건 및 환경오염	112
10. 접경지역	131
11. 정치·경제	134

제1장

북한 매체 보도 동향

1. 한반도 및 국토환경

■ 조선중앙통신사, '삼지연군 읍지구 건설투쟁에 관한 상보' 발표(중앙통신·중앙방송 『노동신문』, 2019.12.3)

- 조선중앙통신사는 삼지연군 읍지구 건설투쟁에 관한 상보를 발표함
 - 수백 정보의 부지에 4,000여 세대의 소층, 다층 살림집들과 380여 동의 공공 및 산업 건물을 일떠세우고 개건해야 하는 삼지연군 읍지구 건설은 한 개 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도 같은 창조대전이었음

■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준공식 참석 및 준공 테이프 커팅, 건설 참가 지휘관들과 기념촬영(중앙통신·중앙방송 『노동신문』, 2019.12.8)

-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준공식이 12월 7일 성대히 진행되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준공식에 참석함
- 실내온천장, 야외온천장, 스키장, 승마공원, 려관을 비롯하여 치료 및 료양구역들과 체육문화기지들, 편의봉사시설들, 소층·다층 살림집들 등 실용성, 호상결합성, 조형에 슬화를 실현한 양덕온천문화휴양지가 건설되었음

■ 행정구역 개편(삼지연군(郡)→삼지연시(市))(중앙통신·중앙방송 『노동신문』, 2019.12.11)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량강도 삼지연군을 삼지연시로 함에 대한 정령을 발표

(12.10)합

- 량강도 삼지연군을 삼지연시로 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임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194호(1.3), '양강도 삼지연시 거리 이름을 정함에 대하여' 발표(중앙통신·중앙방송, 2020.1.4)

- 량강도 삼지연시의 거리 이름을 정하였음
- 3일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 삼지연시 김정일의 동상 앞으로부터 삼지연시 입구까지 뻗어 있는 중심축 도로구간을 봇나무거리로 하는 등 그 외 5개의 거리를 새로 정하였음

■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운영 시작(중앙방송, 2020.1.9)

-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주체109(2020)년 1월 10부터 운영을 시작하는데 손님들은 다기능화된 복합치료봉사기지, 체육문화휴식기지로 전변된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 치료와 휴식을 배합한 다양한 봉사를 받게 됨
- 손님들은 자기의 체질상 특성과 취미와 요구에 따라 실내온천장과 야외온천장, 스키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물고기온천욕, 별장온천욕, 개별치료, 감탕치료, 가족별치료, 파라핀치료, 모래욕치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음

■ 마식령스키장, 스키관광 시작(중앙방송, 2020.1.10)

- 지난 8일부터 마식령스키장에서는 스키관광이 시작되었음
- 지금 마식령스키장에서는 스키와 썰매, 눈스케트, 스케트봉사와 함께 마식령지구에서 나오는 마가목과 머루, 산나물, 산열매를 이용해서 차 봉사와 민족요리 봉사도 다양하게 하고 있음

■ 가물·큰물 대비 등 봄철 국토관리사업 독려(『노동신문』, 2020.3.9)

- 국토관리사업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국토관리사업을 전 당적, 전 국가적, 전 인민적 사업으로 힘 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 특히 봄철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가물과 큰물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하여야 올해 정면 돌파전의 주 타격 전방인 농업전선에서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석탄공업 부문과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선형 부문, 기초공업 부문에서 생산을 중단 없이 내밀어 경제전 선전반이 활력 있게 전진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음
- 도, 시, 군들에서는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를 비롯한 단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주고 조직정치사업과 기술지도를 짜고들면서 산림조성사업으로써 봄철나무심기를 강하게 내밀어야 함
- 심은 나무에 대한 비배관리를 정상적으로 하며 산불과 병충해막이 대책을 예견성 있게 세워 새로 조성하였거나 이미 조성된 산림에 대한 보호관리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함
- 도로건설과 보수관리사업, 원림록화와 도시경영사업, 생태환경보호사업을 개선하여 책임적으로 사업을 해나가야 함
- 장, 기업소, 탄광, 광산들에서는 설비와 생산공정들의 제진장치와 밀폐장치, 배풍장치들에 불비한 요소가 없는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함
- 산업폐수 정화시설들을 표준설계 및 기술적 요구에 맞게 꾸리며 대상 건설을 하면서 자연환경,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각지에서 력사유적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민족유산보호관리 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활발히 벌려야 함
- 봄철 국토관리기간 양어장 건설과 보수, 수산자원보호증식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적극 실현해나가야 함

- 자연에너지를 적극 리용하기 위한 사업, 간석지와 물길건설을 비롯한 자연개 조사업도 통이 크게 벌려야 함

■ 함경남도 홍원군 건설 살림집 입사모임 진행(중앙통신, 2020.10.19)

- 18일 운포로동자구에서 살림집입사 모임이 진행됨
 - 참가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최휘 부위원장 및 당 간부들, 관계 부분 일군들, 제1수도당원사단 지휘관 및 전투원들, 홍원군 일군들과 근로자들, 피해 지역 주민들이 참가함
- 결의토론에서는 당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적 헌신성을 지니고 당이 맡겨준 초소에서 자랑찬 로력적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당 제8차대회를 뜻깊게 맞이할 결의를 피력하였음

■ 사회재산·생명재산 보호 위한 치산치수사업 강조(『노동신문』, 2020.10.24)

- 함경남도 검덕지구피해복구 현장을 현지지도한 김정은 위원장은 검덕지구가 앞으로 그 어떤 큰물이나 태풍에도 끄떡 없게 강하천들의 강바닥 파기와 장식 쌓기를 잘하고 치산치수사업을 중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 치산치수사업은 산과 물을 다스려 가물과 큰물피해를 방지하며 자연환경을 사람들의 생활과 경제발전에 유익하게 조성하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임
- 최근년간 우리 나라에서는 반복되는 재해성 기상현상에 의해 산사태와 큰물이 발생하여 살림집과 공공건물, 도로와 철길들이 침수 파괴되고 농경지들이 매몰, 류실되었음. 현실은 치산치수사업이 사회주의강국 건설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차대하고 사활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음

■ 강원도 피해지역 주민 새집 입사모임 진행 (중앙통신, 2020.10.25)

- 철원군, 평강군, 창도군, 이천군, 회양군, 판교군, 금강군 등 자연의 대재앙이 휩쓴 피해 지역들에 810여 동에 1,670여 세대의 소층, 단층 살림집들이에 대한 새살림집입사모임들이 23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

- 강원도당위원회 박정남 위원장, 도인민위원회 채일룡 위원장을 비롯한 도안의 일군들과 피해 지역 주민들, 건설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음
- 모임들에서는 살림집 리용 허가증이 수여되었음

■ 백두산천지 지상궤도식 케이블카 개발 생산 및 시운전 진행(중앙통신, 2020.10.30)

-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백두산천지 지상궤도식 삭도권양인차를 새로 개발 생산하였음
- 지상궤도식 삭도권양인차가 우리 식으로 새롭게 완성됨으로써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로의 답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음
- 련합기업소에서는 짧은 기간에 지상궤도식 삭도권양인차 생산을 결속한 데 이어 백두산천지지구에서 설치를 끝내고 첫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음

■ 국토관리사업에 대한 당 조직들의 역할 강조(『노동신문』, 2020.11.3)

-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피해 복구 지역들을 현지지도하면서 창군의 울창한 산림을 보시면서 산림 조성과 관리에 이바지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높이 평가하고 산과 강을 잘 다스리고 있는 운산군과 성천군의 모범을 전국이 따라 배우도록 내세워주었음
- 도, 시, 군들에서는 자기 지방의 기후 특성과 강하천 상태를 면밀히 파악한 기초 위에서 산림조성계획과 강하천정리계획을 년차별로 잘 세우고 철저히 집행해나가야 함
-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하여 국토관리사업을 힘 있게 밀고나가야 함.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산과 강을 보물산, 보배강으로 전변시켜나가야 함
- 사태 감시 기술에 의거하여 위험개소를 제때에 찾아 바로잡으며 사방야계공사에 토양생물공학기술과 같은 앞선 공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 산림과학자들과 수리공학자들을 전망성 있게 키워내고 과학연구 성과들을 치산치수 사업에 받아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함

■ 함북 김책시·함남 리원군 피해 지역, 살림집 입사모임 진행(중앙통신, 2020.11.7)

- 함경북도 김책시 춘동리, 은호리, 석호리, 함경남도 리원군 학사대리의 피해 지역들에서 살림집입사모임들이 현지에서 진행되었음
-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이 고향집, 고향 마을을 꾸리는 심정으로 짧은 기간에 살림집 건설을 완공하였음
- 모임들에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살림집 리용허가증이 전달되었음

■ 김화군 피해 지역에 건설된 살림집 입사모임 진행(중앙통신, 2020.11.12)

- 김화군 읍지구와 초서리, 연송리를 비롯한 17개 리, 로동자구의 피해 지역들에 살림집 입사모임들이 11일에 진행되었음
 - 강원도당위원회 박정남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리영래 부장, 강원도인민위원회 채일룡 위원장, 관계 부문 일군들, 군안의 근로자들, 군인 건설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음
- 모임들에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살림집 리용허가증이 전달되었음

■ 삼지연시 10여 개 동. 리, 수천 세대 살림집입사모임 진행(중앙통신, 2020.11.14)

- 11일부터 13일까지 백두산밀영동, 신무성동, 리명수동, 포태동, 5호물동동, 중흥리, 흥계수리, 소백산리, 백삼리, 보서리, 통신리에서 살림집입사모임이 진행되었음
 - 동정호 내각부총리, 박훈 건설건설재공업상, 당중앙위원회 박성철 부부장, 삼지연시 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216사단 지휘관들, 돌격대원들, 군인 건설자들이 모임들에 참가하였음
- 이어지는 결의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위원장의 하늘 같은 은덕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80일 전투에서 자랑찬 로력적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당 제8차 대회를 뜻깊게 맞이할 결의를 표명하였음

■ 함경북도 어랑군.함경남도 허천군, 살림집 입사 모임 진행(『노동신문』, 2020.11.23)

- 함경북도 어랑군 룡평리와 함경남도 허천군 신흥로동자구의 선경마을들에도 새살림집입사모임들이 진행되었음
 - 함경북도 당위원회 김철삼 위원장, 도인민위원회 박만호 위원장, 함경남도당위원회 김두홍 부위원장 비롯한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안의 일군들과 피해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음
- 이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 속에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살림집 리용허가증이 전달되고 결의토론들이 있었음
 - 토론자들은 피해복구전투에서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이 발휘한 투쟁 정신, 투쟁 기풍을 본받아 고마운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음

■ 함경남도 검덕지구 광산마을, 살림집입사모임 진행(중앙통신, 2020.11.27)

- 자연의 대재앙으로 피해 흔적이 력력하던 단천시 사오동, 선광동, 전진2동, 증산리, 대흥2동, 운천리, 백금산동, 포거동, 새복동 등에 2,300여 세대의 단층, 소층, 다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 공원이 번듯하게 꾸려짐
- 지난 9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6차 확대회의를 소집한 김정은 위원장은 태풍 피해를 입은 검덕지구의 복구 건설을 또다시 인민군대에 위임하기로 하고 파견할 부대들의 역량 편성과 건설기재들의 보장 및 기동, 자재 보장 대책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취했음
- 10월의 경축광장의 연단을 내리시는 길로 피해 복구 현장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은 80일 전투 기간 총력을 다하여 복구 건설을 질적으로 완공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고 광산 마을들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사상 초유의 산악협곡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킬 데 대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었음
- 공사 일정 계획 자체가 주어진 조건을 타산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당이 정해진 시간을 목표로 설정되었음

-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살림집 총 공사량의 60%계선을 돌파하는 혁혁한 전과를 이룩하였음
- 검덕지구 피해 지역에 훌륭히 일떠선 광산 마을들에서는 살림집입사모임에 이어 새집들이가 진행되었음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최휘 부위원장, 함경남도인민위원회 김봉영위원장, 함경남도당위원회 김영학부위원장, 관계 부문 일군들과 건설에 참가한 부대 지휘관들이 새 집에 입사하는 가정들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축하해주었음

■ 함경도·나선시 피해 지역, 살림집입사모임 진행(중앙통신, 2020.11.30)

- 함경남도 신포시, 단천시, 리원군, 덕성군, 북청군, 함경북도 청진시, 김책시, 어랑군, 길주군과 라선시 선봉구역 등 재해 지역들에 일떠선 새 마을들에서 살림집입사모임들이 진행되었음
- 모임들에서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수여하는 살림집 리용허가증이 전달되었으며 결의토론들이 있는 다음 새집들이가 진행되었음

2. 기상

■ ‘충실성·책임성·헌신성을 발휘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폭우와 호우, 강풍 피해를 최소화할 것’ 호소(『노동신문』, 2020.8.26)

- 지난해 13호보다 더 세력이 강해진 태풍8호가 몰려오고 있음. 전문기관의 통보에 의하면 황해남도, 평안남북도를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 지역이 태풍의 영향을 직접 크게 받을 것이라고 함
- 인명피해를 철저히 없애는 것을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각급 당 조직들과 인민정권기관, 사회안전기관들에서 긴급조직사업을 하고 장악 지휘를 짜고 들어야 함
- 농업 부문에서 피해를 막기 위한 강한 대책을 세워야 함

- 각급 농업지도기관들과 농업 토지를 리용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은 관개구조물 보수와 강하천바다 파기, 논밭물 도랑치기정형을 전반적으로 료해하고 배수 체계를 철저히 세워 농작물들을 침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긴급전투를 벌려야 함

■ 기상수문국, 25년 동안 두 번째로 많은 강수량 기록(중앙통신, 2020.9.14)

- 올 여름철에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장마전선의 영향과 태풍의 직접적 영향으로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리는 재해성 기상 현상이 나타났음
- 기상수문국에서 종합 분석한 데 의하면 여름철 전국 평균 강수량은 852.3mm로서 평년의 146.1%, 지난해의 217.5%로서 매우 많았음
- 특히 8월에 태풍4호가 약화되어 저기압으로 강화된 장마전선과 태풍8호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무더기비가 내렸는데 그 량은 560.5mm로서 평년의 255.7%나 됨
-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올 여름철 기상 상태의 특징은 장마전선이 어느 때 없이 강화되고 련이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전례 없이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것임

■ 전반적 지역에 '황사경보' 발령(『노동신문』, 2020.10.22)

- 전반적 지역에 22일 황사주의경보가 내려짐
- 기상수문국의 통보에 의하면 20일 고비사막과 내몽골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22일 새벽 평안북도에서부터 시작하여 오후까지 전반적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됨
-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황사 현상이 지속되는 동안 야외활동을 비롯한 인원 래왕을 극력 제한하고 방안 및 사무실들의 공기갈이를 금지하며 사람들이 소독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규정들을 더욱 철저히 지키고 건강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함

3. 대기 및 에너지

■ 다양한 '전기절약사업' 전개(중앙통신, 2019.12.3)

-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단위들과 가정들에서는 자체의 전력 생산 체계를 갖추는 것과 함께 새로운 절약 기술을 도입하는 등 전기절약사업이 규모나 형태에 있어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 북창지구청년탄광광련합기업소에서는 자체 통합 전력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력 관리를 정보화, 과학화함으로써 연간 수백만kWh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게 하였음
- 강원도 원산시 송배전소에서는 전력 계통 관리 운영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연간에 수십만kWh의 전기를 절약하였음
- 평양호텔에서는 태양열물가열기와 지열펌프, 전기절약형물가열기를 결합한 순환식 물가열체계를 받아들여 종전에 비해 70%의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봉사활동을 원만히 보장하고 있음
- 선경철강공장, 봉화화학공장을 비롯한 화학공업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들을 전기절약형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음
- 도, 시, 군의 수많은 가정들에서도 각이한 능력의 태양열물가열기, 태양빛전지판, 풍력발전기를 리용하고 있음

■ 함경북도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댐) 준공식(중앙통신·중앙방송, 2019.12.5)

-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가 훌륭히 완공, 4일 준공식이 진행되어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참가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 중단되다싶이한 어랑천발전소건설 실태를 현지에서 료해하였음
- 팔향언제가 웅장하게 건설됨으로써 대규모 수력발전기지인 어랑천발전소 완공을 앞당길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었으며 나라의 긴장한 전력 문제를 풀고 함경북도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서 큰 전진을 이룩할 수 있게 되었음

■ 「전력법」 수정 보충 발표 보도(『민주조선』, 2019.12.26)

-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력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하여 발표하였음
- 수정 보충된 「전력법」의 해당 조문은 6개임
- 「전력법」의 일부 내용이 수정 보충됨으로써 전력 공급과 전력 리용, 전력 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전력 량비를 없애고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전력 수요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담보가 더욱 튼튼히 마련되었음

■ 단천발전소 1단계공사 진척(중앙통신, 2020.2.15)

- 정면돌파전을 과감히 벌릴 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단천발전소 건설자들이 공사 성과를 확대하고 있음
- 현장 지휘부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총 굴착 계획이 70% 이상 수행되고 기본 물길굴 도갱굴진과 기본물길굴 확장공사 실적이 높은 계선에 이르렀음
- 지금 건설장에서는 겨울철 조건에 맞게 물길굴 공사에 힘을 집중하는 한편 1호, 5호, 6호발전소 발전기실 공사를 다그치고 있음
- 이 밖에 물길굴 콘크리트 타입 등이 일정 계획대로 진척되고 있음

■ 어랑천4호발전소, 여러 대상 건설 결속(중앙통신, 2020.2.18)

- 함경북도에서 계단식으로 일떠세우는 어랑천발전소의 4호발전소 여러 대상 건설이 성과적으로 결속되었음
- 현재까지 공사량이 방대한 창포언제와 발전소 종업원들의 살림집과 공공건물건설이 완료되었음
- 또한 수천m에 달하는 물길굴과 발전기실공사, 압력철관로 설치, 발전기 시운전 준비가 끝났음

■ 경제강국 건설 위한 증산절약운동의 전 군중적 전개 강조(『노동신문』, 2020.2.26)

-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예비와 가능성, 잠재력을 최대한 탐구 동원하며 증산하고 절약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여야 합니다.”
- 우리 당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전당, 전국, 전민이 증산절약운동을 힘 있게 벌릴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오늘의 시대에 내세워야 할 본보기는 절약 정신을 체질화한 애국적인 근로자이며 로력절약형, 에너르기절약형, 원가절약형, 부지절약형 기업체임
- 증산 절약의 방도는 기술 혁신에 있음.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협조 밑에 로력, 에너르기, 원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더욱 늘일 수 있는 방도를 찾는 데 큰 힘을 넣어야 함
- 지금 공장, 기업소, 건설장들은 물론 공공장소들, 가정들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나 파철, 파지, 파우리, 파고무, 파수지와 같은 재생 가능한 폐기물들이 있으니 제때에 수매하여 재생 리용하기 위한 사업만 짜고들어도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절약하고 경제건설에 적지 않은 리득을 주게 됨
-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회수하여 재생 리용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회수하는 체계를 세우도록 하여야 함. 국가적 립장에 서서 각종 폐기물을 리용하여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시키며 대책을 세워야 함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채택 「재자원화법」 해설(중앙통신, 2020.5.25)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에서 「재자원화법」이 채택되었음
- 「재자원화법」은 나라의 재자원화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음
- 4개 장(「재자원화법」의 기본, 재자원화계획, 폐기폐설물 및 생활오물의 관리,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 46개 조문으로 되어 있음

■ 증산절약 운동을 통한 더 많은 창조와 건설 강조(『노동신문』, 2020.6.22)

-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자체의 기술 역량과 경제적 잠재력을 총동원하고 증산절약투쟁을 힘 있게 벌려 더 많은 물질적 재부를 창조하여야 합니다”라고 언급함
-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절약이고 증산임
 - 인민경제계획 작성과 수행에서 질 제고 계획을 우선시하고 질적 지표에 대한 상별 적용을 정확히 하며 모든 경쟁에서 량과 속도보다 질을 앞세우고 계획수행정형을 량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평가하는 기풍을 세워야 함
- 증산절약의 가장 큰 예비는 기술 혁신임
 - 과학기술을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생산과 건설에서 최적화, 최량화를 실현하며 로력과 원가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하여 꾸준히 사색하고 노력하여야 함
- 당 조직들의 역할을 높여야 함
 - 각급 당 조직들은 정치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충성심과 애국심을 지니고 증산절약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함

■ 강원도 이천군민발전소 준공식 진행(중앙통신, 2020.10.6)

- 강원 땅에 이천군민발전소가 새로 일떠서 준공하였음
- 완공된 이천군민발전소 준공식이 5일에 진행되었음

■ 금야강2호발전소 준공식 진행 및 ‘당 축하문’ 전달(중앙통신, 2020.10.31)

- 금야강2호발전소가 중소형 수력발전소의 본보기로 훌륭히 일떠서 준공되었음
- 발전소가 완공됨으로써 군의 치산치수사업에서 전진이 이룩되고 군의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음
- 금야강2호발전소 준공식이 30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

4. 지질 및 지형

■ 농촌경리 부문, '새땅찾기운동' 통해 경지 확보(중앙통신, 2020.4.21)

- 알곡 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키자면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 것과 함께 경지 면적을 최대한 늘여야 함
- 농업성 국장 김성민이 밝힌 데 의하면 농촌경리 부문에서는 지난 9개월 동안에 새땅찾기운동을 적극 벌려 3만 7,000여 정보의 부침땅을 새로 확보하였음
- 그중 함경북도와 황해남도에서 각각 4,000여 정보, 황해북도에서는 3,900여 정보, 평안북도에서는 3,500여 정보의 새 땅을 찾아냈음
- 하천 복구 정리, 도로와 물길 곧추펴기, 비경지 개간, 공공건물 이설 등으로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음
- 새로 찾아낸 부침땅에서 올해부터 벼와 강냉이를 재배하게 된다고 함

5. 수자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 주요 강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중앙통신, 2020.2.10)

- 최근 조선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강들의 수질을 검사하였음
- 9일 중앙비상방역지휘부에 종합된 자료를 기사가 취재한 데 의하면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의 pH, 산화도 그리고 용존산소 농도와 부유물질, 암모니아성 질소량이 국가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
- 수질검사는 강들을 끼고 있는 평양시와 해당 도들의 국토환경보호관리국에서 하였음

■ 어랑천저수지 완공, '올해 농사에 필요한 물 충분히 확보' 주장(중앙통신, 2020.4.18)

- 저수지가 건설됨으로써 어랑천발전소의 전력 생산을 보다 늘일 수 있게 되었으며

함경북도 어랑군, 명간군 안의 농경지들에 관개용수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음

- 저수지 건설의 기본 대상인 언제공사에서 건설자들은 능률적인 작업 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짧은 기간에 90여만 m^3 의 성토 작업과 장석 쌓기를 결속하였음
- 취수물길굴공사에서 굴 뚫기와 확장 및 피복 공사를 계획보다 2배로 넘쳐 수행하였으며 취수탑공사를 계획보다 2개월 이상 앞당겨 완공하였음
-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등 여러 단위에 서 철강재와 세멘트, 각종 설비를 제때에 보장해주어 완공을 앞당기는 데 이바지하였음

■ 황해남도물길 2단계 공사 완공은 ‘충성의 노력적 선물, 노동당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 강조(중앙통신·중앙방송, 2020.5.23)

- 건설자들과 황해남도 인민들은 황해남도물길 2단계 공사를 3년 남짓한 기간에 완공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 한 뜻으로 펼쳐 일어나 산도 옹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 전통이며 기질입니다.”
- 개천-태성호물길보다 전반적 공사량이 더 많은 황해남도물길 건설은 암반 굴착과 토량만도 1,180여만 m^3 에 달하고 수십 개의 물길굴과 770여 개의 각종 구조물, 대규모용수잠관들을 가진 190여km의 물길을 형성해야 하는 지금까지의 자연흐름식관개망에서 규모가 제일 큰 대건설 전투였음
- 2012년 1월 황해남도물길 건설이 착공된 황해남도물길 1단계 공사는 5년간의 간고한 격전을 벌려 완공하였음. 2017년 1월부터는 2단계 공사에 진입하여 2019년 4월 우뚝 솟아올랐음
- 2단계 공사의 완공으로 서해 곡창의 드넓은 전야에 관개용수를 원만히 대주어 알곡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 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었음

■ 대규모의 '황주긴등물길공사' 착공(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2020.6.3)

- 대규모의 황주긴등물길공사가 착공되었음
- 황해북도의 알곡 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물길공사는 수백 리 자연흐름식물길을 조성하여 드넓은 황주긴등벌에 관개용수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거창한 대자연 개조사업임
- 건설자들이 공사 착공을 알리는 10만산발파를 2일에 진행하였음

■ 각지 위생방역소, 장마철 수질분석사업 강화(중앙통신, 2020.8.11)

- 국경 연선에 위치한 평안북도에서 압록강과 그 지류들, 호수와 수원지들에 대한 수질 분석사업의 도수를 보다 높여나갔음
- 도 위생방역소의 일군들은 시료 채취와 검사를 규정대로 엄격히 진행하도록 행정적, 기술적 지도를 짜고 드는 한편 채취한 시료에 대한 검사와 자료 분석에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철저히 보장해나가고 있음
- 신의주시, 의주군, 삭주군, 벽동군 위생방역소들에서는 주요 지점들에 검사 역량, 감시 역량을 보강하고 일군들부터가 현지에 내려가 감시원들과 분석공들과의 사업을 짜고 들었으며 물질기술적 보장사업에 힘을 넣었음
- 자강도 만포시, 중강군, 자성군, 위원군의 위생방역 일군들은 강하천들에 대한 검사를 중단 없이 진행하는 것과 함께 음료수와 생활용수, 오수와 산업폐수 등에 대한 분석사업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황해남도, 황해북도, 개성시의 위생방역 일군들도 립진강과 례성강 등 강하천들의 수질분석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제때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따라 세워 악성 전염병의 사소한 류입 공간도 철저히 차단 봉쇄하고 있음

■ 어랑천3호발전소 등 각지 수력발전소 건설 진행 소개(중앙방송, 2020.11.8)

- 각지에서 수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 어랑천3호발전소 건설을 맡은 여러 당의 일꾼들과 건설자들, 인민군 군인들은 군민연합작전으로 언제와 기본물길, 발전기실 공사를 성과적으로 완수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설비 계획을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음
- 단천5호발전소건설에 펼쳐나선 군인 건설자들은 자립갱생의 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면서 신형 온조와 취수탑을 비롯한 모든 공사를 계속하는 데 맞게 설비 정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편 고풍3호발전소와 무선3호발전소건설에 펼쳐나선 일꾼들과 건설자들도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언제와 물길, 방수로 공사와 설비 조립을 끝낸 데 이어 시운전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있음

6. 산림

■ 산림 복구 및 국토환경보호 부문 일꾼회의 진행(중앙통신, 2020.1.22)

- 산림 복구 및 국토환경보호 부문 일꾼회의가 2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음
- 회의에서는 지난해 산림복구전투와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의 성과와 교훈이 분석 총화되고 올해의 사업에서 실제적인 양양을 이룩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되었음
- 지난해 산림복구전투와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나타난 편향들이 언급되었음
- 토론들에서는 각지 모체양묘장들에서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 수준을 더욱 높이고 산림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산림 조성과 보호관리사업에 계속 힘을 넣을 데 대하여 언급되었음
- 자연보호, 환경보호 문제를 우리 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 과학연구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며 해당 단위에서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현상들에 대한 감독 통제를 강화할 데 대하여 강조되었음

■ ‘산림복구전투’ 관련 김정은 저작 발표 5주년 계기 ‘산림 형편 성과 시작에 불과’, 분발 촉구(『노동신문』, 2020.2.26)

-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이 불후의 고전적 로작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 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를 발표 5돐이 되는 날임
- 로작에는 산림조성사업과 산림보호사업을 다 같이 밀고나갈 데 대한 문제와 산림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산림 조성과 보호사업에 대한 감독 통제를 강화할 데 대한 문제, 산림복구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중운동과 선전선동사업을 적극 벌려나갈 데 대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나라의 산림을 복구하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산림복구전투는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임”
- 산림복구전투 1단계 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지금은 2단계 전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결과 산림조성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고 산림기자재공장이 훌륭히 일떠섰으며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과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 강원도양묘장을 비롯하여 각지에 양묘장들이 건설되어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 ‘봄철 나무심기·산림복구 동참’ 독려(『노동신문』, 2020.3.2)

-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만들어 조선은 결심하면 반드시 한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 울창한 산림을 조성하여야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이고 국토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고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음

-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는 데 모를 박아야 함
- 우리는 산림복구전투가 단순히 벌거숭이로 된 산을 푸른 산으로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실지 쓸모 있는 산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함
- 과학기술보급실 운영을 정상화해야 함
- 산림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크고 기후풍토에 맞는 좋은 수종의 나무를 육종해야 함
- 철이면 해로운 벌레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나무에 기여오르는 것과 관련하여 병해충 예찰사업을 강화하며 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을 제때에 발견하고 대책하여야 함
- 국가적으로 산불 감시와 통보, 군중 동원 체계를 세우고 산불이 나면 제때에 끌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기술적 비를 철저히 갖추고 있어야 함
- 모든 단위들에 산림조성계획과 산림 담당 구역을 정확히 지정해주고 담당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하며 산림 조성과 보호관리사업에 대한 총화평가를 실속 있게 진행하여야 함

■ 순천린비료공장건설장, 원림녹화사업 추진(중앙통신·중앙방송, 2020.4.7)

- 순천린비료공장의 풍치가 완공을 앞두고 일신되고 있음
- 건설자들은 현대적으로 일떠서는 공장의 외부 환경에 맞게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정성껏 심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그들의 노력에 의해 소나무, 전나무, 은행나무, 살구나무 등 45종에 3만 5,000여 그루의 나무와 꽃관목들이 공장 구내에 뿌리내리고 13만 3,000여m²의 잔디밭이 조성되었음
- 그들은 천연생물활성제, 뿌리내림촉진제 등을 적극 리용하여 나무들의 초기 생육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음

■ 평안북도양묘장 준공(중앙통신·중앙방송, 2020.9.14)

- 평안북도양묘장이 훌륭히 일떠서 준공되었음
- 나무모 재배에 적합한 조건과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통합 조종 체계가 구축된 양묘장이 건설됨으로써 평북 땅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킬 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음
- 도양묘장 준공식이 13일에 진행되었음
 - 관계 부문 일꾼들, 양묘장 종업원들, 건설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음

■ 8차 당대회를 향한 80일 전투가 개시된 이후 채취공업 부문, 기계공업 부문, 경공업 부문, 립업 부문에서 성과를 기록하고 있음(『노동신문』, 2020.11.3)

- 립업 부문에서는 자강도립업관리국 아래 립산, 갱목생산사업소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증산돌격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렸음
 - 화평립산사업소, 희천, 강계갱목생산사업소를 비롯한 관리국 아래 립산, 갱목생산사업소들에서는 내부 예비를 탐구 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 통나무 생산에서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음

7. 농업축산

■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조업식 참석 및 조업 테이프 커팅·군인 건설자들에게 ‘감사’ 전달(『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2019.12.4)

-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지구에 대규모의 남새온실농장과 현대적 양묘장이 건설, 조업식이 12월 3일 진행되었음. 김정은 위원장이 조업식에 참석하였음
- 200정보의 부지에 320동의 온실과 양묘장, 수백 세대의 살림집을 1년 남짓한 기간에 완공하였음
- 온실들과 양묘장은 우리 식의 대규모 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의 표준이며 농장마을은

사회주의농촌문화주택 건설의 본보기로 됨

- 김정은 위원장은 남새 생산에서 량적 지표도 중요하지만 영양학적 지표와 맛이 더 중요하다며 선진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최적화, 최량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음. 남새온실농장이 함경북도 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하였음

■ ‘중평남새온실농장·도양묘장’ 종업원 살림집 리용허가증 수여 모임(중앙통신, 2019.12.6)

- 중평남새온실농장과 도양묘장 종업원들의 살림집 리용허가증 수여 모임이 5일에 진행되었음
- 모임에서는 함경북도당위원회 위원장 리히용이 발언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이 중평남새온실농장과 도양묘장의 종업원들이 쓰고 살 살림집을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도록 은정 어린 조치를 취해주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살림집 리용허가증이 수여되고 토론들이 있었음

■ 순천린비료공장 건설현장 현지지도(『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2020.1.7)

- 김정은 위원장이 순천시 순천린비료공장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였음
- 당에서 기대하는 고농도 린안비료를 대량 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 건설을 마감 단계에서 다그쳐 진행해나가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고농도 린안비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현대적인 공업을 창설하는 중대한 사업을 자체의 힘과 기술, 로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고 있는 것은 당의 정면돌파사상과 의도에 부합되는 좋은 시도이며 반드시 이 같은 자력갱생투쟁에 의한 결과들을 계속 쟁취해나가야 한다고 말하였음

■ 2019년 농업부문 총화회의 개최(중앙방송·중앙통신, 2020.1.18)

-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의 농업정책을 높이 받들고 지난해 다수확 농장원, 다수확분

조, 다수확작업반, 다수확 농장대렬을 늘여나가는 과정에 창조된 성과와 경험들을 교환하고 나타난 결함과 교훈을 분석 총화한 데 기초하여 정면돌파전의 첫해인 올해에 당이 제시한 새로운 알곡고지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토의하게 됨

- 보고자 김재룡은 이번 농업부문총화회의가 우리 당 농업혁명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 있게 과시하고 농업 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에 기초하여 올해 농업 생산의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 지난해 농업 부문에서는 반드시 극복하여야 할 심각한 결함이 적지 않게 나타났으며 심각한 교훈도 찾았다고 강조하였음

■ 2019년 농업 부문 총화회의의 3일간 진행 후 폐회(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2020.1.20)

- 3일간에 걸친 회의에서는 많은 일군들과 농업 근로자, 과학자들이 토론에 참가하였으며, 농업 전선에서의 다수확 경험들을 적극 교환 공유하며 증산의 좋은 예비들이 많이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자기 사업을 분석 총화하였음
- 육종 연구사업을 재배기술 연구와 결합하여 진행함으로써 각이한 재배 형식과 기후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낼 수 있는 우량 종자들을 육종한 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선진적인 다수확농법을 대담하게 도입하고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알곡 소출을 높임으로써 과학농사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확증한 데 대하여 말하였음
- 농기계작업소를 농업 전선의 병기창으로 꾸리고 농촌기계화 초병의 영예와 본분을 지켜 협동벌에 기계화에 대하여 토로하였음
-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할 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방침과 두벌농사 방침을 결사 관철하고 모든 농사일을 알심 있게 하여 지력이 낮고 랭해가 심한 포전들에서 많은 소출을 낸 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순천인비료공장 건설 준공식 참석 및 준공 테이프 커팅(중앙방송·중앙통신·『노동신문』, 2020.5.2)

- 주체비료 생산기지로 일떠선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이 5월 1일에 진행되었음. 김정

은 위원장이 준공식에 참석하였음

- 순천린비료공장은 현대화의 요구가 철저히 구현되고 생산에서도 건축물에서도 생태 환경보호에서도 완벽한 화학공업 부문의 본보기, 표준 공장임. 또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련관 단위들과 협동하여 순천린비료공장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해놓았음
- 김정은 위원장은 완공된 공장의 생산 공정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원료가공공정, 황린생산공정, 린안생산공정, 제품포장공정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고, 순천린비료공장의 완공은 국가의 화학공업을 한 계단 도약시키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말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린비료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원료 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울 데 대한 문제, 통합 생산 체계를 완비하며 생산 공정을 안정하게 운영할 데 대한 문제, 환경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릴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장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박봉주 당 부위원장,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사(중앙통신·중앙방송, 2020.5.2)

- 박봉주 당 부위원장이 준공사를 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이 농업 생산에서 절실히 필요한 고농도 린안비료를 대량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현대적으로 크게 건설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시고 주체화, 현대화의 요구가 철저히 구현된 화학공업 부문의 본보기 공장, 자동화, 흐름선화를 실현한 로력 절약형 기업체로 일떠세우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음

■ 순천린비료공장 준공, ‘사회주의 강국건설 돌격로 개척’ 강조(『노동신문』, 2020.5.6)

-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는 주체혁명 위업 수행에서 천만 년 드놀지 않을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 삼지연시가 인민의 리상향, 산간의 리상도시로 눈부시게 솟구쳐 오르고 중평남새은실 농장과 양묘장, 양덕은천문화휴양지가 세계에 당당히 내놓고 자랑할 만한 기념비적 창조물로 일떠섰으며 황금해의 기적 창조, 농업전선에서의 다수확 성과가 이룩되고 경공업 부문에서 인민들이 선호하고 애호하는 명제품, 명상품이 쏟아져 나와 우리나라의 무궁무진한 발전 잠재력이 남김 없이 과시되었음

■ 알곡 생산 목표 수행 위한 모내기 독려(『노동신문』 사설, 2020.5.11)

- 김정은 위원장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오늘 농업 부문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 것입니다.”
- 모내기는 한 해 농사의 운명을 좌우하고 시기를 다투는 가장 중요한 영농 공정임
- 올해 알곡생산 목표를 수행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모내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음
- 최근 년간 농업 부문에서는 전례 없는 과학농사열풍 속에 다수확 단위, 다수확자 대렬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지난해에는 최고 수확 년도 수준을 돌파하는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하였음
- 모내기는 시간을 다투는 영농 작업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적기를 철저히 보장하는 것임.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자면 농기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예비 부속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동수리 활동을 활발히 벌리는 것이 중요함
- 모내기의 직접적 담당자, 주인은 농업 근로자들임

■ 장마 관련 농경지 침수 피해 방지 강조(『노동신문』, 2020.8.7)

- 큰물피해를 막는 데서 기본은 농경지가 침수되지 않게 하는 것임. 농경지가 침수되어 농작물이 피해를 받으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됨
-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경지의 침수를 철저히 막는 것임. 8월 중에 위험한 고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됨

- 각 도, 시, 군농업 지도기관 일군들은 자기 지역, 자기 단위의 포전들을 빠짐없이 돌아보면서 물 빼는 시설들의 관리와 만가동 보장 상태를 확인해보고 즉시적인 대책을 세워야 함

■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점령’ 강조(『노동신문』, 2020.9.21.)

-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절박한 과업은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가을걷이는 한 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영농 공정임
- 최근 자연재해로 하여 적지 않은 농작물들이 피해를 받은 조건에서 소출 감소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알곡 수확고를 높이자면 결정적으로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에 총력을 집중하여 짧은 기간에 와닥닥 해제껴야 함
- 농기계 부속품과 용기를 비롯하여 농사 결속에 필요한 물자들을 제때에 생산 보장하도록 조직사업을 면밀히 하여야 함
- 특히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의 생활력이 높이 발양될 수 있도록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능숙하게 해나가야 함

■ 고산과일가공공장 준공식 진행, 김정은 위원장 선물 전달(중앙통신, 2020.10.2)

- 고산과수종합농장에 과일가공공장이 훌륭히 일떠섰음
- 종합적인 대규모 과일생산기지에 과일 가공품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과일가공지가 건설됨으로써 고산과수종합농장이 표준화된 과수종합농장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게 되었으며 인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귀중한 재부가 마련되게 되었음
- 당 창건 75돐을 맞으며 고산과수종합농장에 현대적인 과일가공공장이 건설된 것은 인민 생활 향상을 최대 중대사로 내세우고 있는 당의 령도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 있게 증시해주는 로동당시대 또 하나의 경사임

- 고산과일가공공장 준공식이 9월 30일에 진행되었음
- 련관 단위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은 수백 대의 설비들을 짧은 기간에 제작 완성하여 생산과 경영 활동을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인민군 군인들은 군민 협동작전으로 수많은 료전기재들과 자재들을 보장하여 공장 건설과 시운전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고 그는 말하였음

■ 쌀 생산 등 농업 중요성 강조(『노동신문』, 2020.11.9)

-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농업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세대 제1선참호에 서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 생산에서 전변을 일으켜야 합니다.”
- 80일 전투 승리의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이 모든 전선이 들고일어나는 데 큰 힘이 되어주고 순간의 담보나 침체도 없이 기세 충천하여 전진할 수 있게 고무추동하는 매우 중요한 전선은 다름 아닌 농업전선임
- 농업 부문에서 한 해 농사를 잘못하여 나라의 쌀독이 비게 되면 그 후과는 무엇으로써도 보상할 수 없음. 오늘날 농업전선은 80일 전투의 승리적 전진을 굳건히 담보하는 주 타격 전방임
- 쌀은 우리의 전진과 떼여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귀중한 동력이며 농업전선은 모든 승리와 기적을 굳건히 담보하는 혁명보위의 최전방임
- 쌀은 곧 사회주의임. 농사가 잘되어 먹을 것이 넉넉하면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가 잘 펴이고 그만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높이 발양될 수 있음. 허나 적대 세력들의 압살공세가 가중되고 있는 오늘의 준엄한 현실은 알곡 증산이자 혁명보위라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불리한 기상 조건 속에서도 평양시와 평안북도, 개성시, 남포시에서 료력과 운반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벼, 강냉이가을을 남 먼저 끝냈으며 협동벌마다에서 다음 해 농사

준비를 위한 논밭갈이에 박차를 가하는 등 련이어 일어나는 혁신적 성과들은 농업전선에 타 번지는 80일 전투의 불길이 얼마나 거세찬 것인가를 뚜렷이 보여줌

■ 농업 부문, 농업 발전의 5대 요소 통한 다음 해 농사 차비 독려(『노동신문』, 2020.11.23)

- 김정은 위원장은 아래와 같이 언급함

“오늘 농업 부문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 것입니다.”
- 농사 차비도 시기가 있어 이때 해야 할 일감은 대단히 많음
 - 종자 준비로부터 시작하여 농기계와 농기구 수리 정비도 해야 하고 질 좋은 유기질 비료도 충분히 생산하여 논밭에 실어내야 함. 이처럼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도 놓침 없이 질적으로 끝내자면 지금부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농사 차비에 매진해야 함
- 최근 연간 농업 생산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한 시와 군, 농장들의 경험은 종자혁명과 과학농사, 저수확지에서의 증산을 비롯한 농업 발전의 5대 요소에 관한 사상의 기본 요구를 철저히 구현할 때 불리한 조건에서도 다수확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농사 차비에서 기본은 종자 준비임. 당의 종자혁명 방침을 받들고 자기 단위의 지대적 특성에 맞는 우량 품종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함
- 질 좋은 거름을 많이 생산하는 것은 농사 차비에서 선차적인 문제로 나섬
- 농사 차비를 잘하는 데서 물을 확보하는 사업도 매우 중요함. 농촌들에서는 양수기 수리 정비와 고압전동기 개조를 질적으로 하고 물길과 저수지, 저류지 건설, 그리고 줄짱박기와 굴포, 우물 파기 등을 계획대로 내밀어야 함
- 태풍과 큰물로 파괴된 관개구조물들을 복구하는 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함. 이와 함께 류실된 농업 토지를 환원 복구하는 사업도 하루빨리 결속하여야 함
-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 사업은 시대와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업 생산

을 비약적으로 늘이기 위한 중요한 문제임. 각지 트랙토르 부속품 공장들과 연결 농기계 공장들, 농기계 작업소와 농기구 공장들에서는 목표를 높이 세우고 설비들을 만가동시켜 농사에 필요한 농기계와 농기구, 부속품들을 생산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힘 있게 벌려야 함

- 다음 해 농사에서 풍요한 결실을 안아오기 위한 준비사업은 어렵고도 방대한 것만큼 농촌 경리 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만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으며 이 나라 공민이라면 누구나 농사 문제를 놓고 걱정할 줄 알아야 하며 농업전선을 힘껏 도와나서야 함

8. 토양

- 해당 사항 없음

9. 해양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해상탐색 및 구조법」 채택(중앙통신, 2020.1.23)

-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해상탐색 및 구조법」을 채택하였음
- 여기에는 해상 탐색 및 구조 체계, 배 보고 및 구조 통신, 구조 조종과 구조, 해상 탐색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규제되어 있음
- 해상 탐색 및 구조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람의 생명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해사감독법」 수정·보충(중앙통신, 2020.2.6)

-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해사감독법」을 수정 보충하였음
- 수정 보충된 「해사감독법」은 12개 장에 140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해사감독

체계의 수립을 비롯하여 해사감독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10. 생태계(동식물)

■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생물다양성 보호 적극 대처와 생물다양성협약체약국의 의무 이행 강조(『노동신문』, 2020.5.22)

- 유엔은 생물다양성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높여주기 위하여 해마다 5월 22일을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고 있음
- 올해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의 주제는 ‘자연에 우리의 해결책이 있다’임
- 오늘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산림복구전투가 힘 있게 벌어지고 있음. 또한 수많은 유용 동물을 산과 바다에 놓아줌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더욱 풍부히 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되고 있음
- 생물다양성 보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백두산과 구월산, 묘향산, 칠보산, 금강산을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하고 문덕철새보호구와 라선철새보호구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등록하였으며 생물다양성 중점지역들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호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음. 생물다양성 협약체약국으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나갈 것임

■ 유네스코민족위원회, 백두산지역 세계지질공원 등록 추진(중앙통신, 2020.5.31)

-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네스코민족위원회는 백두산 지역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유네스코민족위원회는 주체107(2018)년에 백두산 지역을 우리나라의 첫 세계지질공원으로 등록할 것을 결정하고 유네스코의 절차 규정에 따라 추천의향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신청 문건을 제출하였음

- 현재 유네스코에서는 신청 문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음
- 백두산 지역은 1989년에 우리나라의 첫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되었음

■ 국가과학원, 야생동물에 대한 바이러스 연구 강화(중앙통신, 2020.11.12)

-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에서 악성 비루스 전염병으로부터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음
- 이곳 연구소에서는 악성 비루스 감염증이 발생한 초기부터 검사조를 뭇고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연구사업을 벌이고 있음
- 각지에 파견된 검사조 성원들은 동물들에 대한 역학적 감시를 하는 한편 죽은 동물들의 검체를 수집하여 그 원인을 철저히 해명하고 있음
- 짐승들은 물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죽은 곤충들도 놓치지 않고 검체를 모두 채취하였으며 그에 대한 과학적인 검사를 진행하여 죽은 원인을 해명하여나가고 있음
- 특히 박쥐를 비롯한 야생동물들에 대한 역학적 감시와 연구사업에 보다 큰 힘을 넣고 있음

11.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 김영철 국가비상재해위원회 국장, 2019~2030년 국가재해위험감소전략 실현 완성과 실현 사업 추진 소개(중앙통신, 2020.3.20)

- 센다이기틀 문건을 비롯한 국제적 합의에 부합되게 2019~2030년 국가재해위험감소 전략을 완성하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비상재해위원회 국장 김영철은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현존하거나 잠재하는 재해 위험들을 미리 막는 것과 함께 재해 대응력, 회복력을 높여 지속적인 사회경제발전을 담보하며 사람들의 생명 재산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환경적 재부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이 전략의 총적 목표라고 밝힘

- 국가재해관리기구 체계와 긴급대응제도 완비, 전 인민적인 재해 위험과 대응에 대한 인식 제고, 재해관리 과학기술 개발, 자금과 물자 보장 능력 강화, 재해기금 창설 등을 계획하고 있음
- 전략의 첫 단계로서 2022년까지 도, 시, 군인민위원회들에서 국가재해위험감소전략에 준하여 지역재해위험감소계획을 세우고 재해관리의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 자료들을 확증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위험 대상들에 대한 조사장악사업을 완료하게 됨
- 자연재해정보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모들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높이며 재해 자료 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국가과학원 지구환경정보연구소, 재해관리정보체계 등 재해 방지를 위한 과학연구사업 추진(중앙통신, 2020.4.1)

- 우리나라에서 자연재해에 대처한 국가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속에 국가과학원 지구환경정보연구소에서 재해 방지를 위한 과학연구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국가통합자연재해관리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완성되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부터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나라의 귀중한 자원과 국토환경을 보호하게 된다고 함
- 연구소에서는 국가적인 재해 정보 수집 및 통보 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 군들에 도입하고 있음
- 이와 함께 큰물, 가물, 태풍, 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지대를 장악할 수 있는 지도를 작성하였음
- 통합큰물관리정보 체계와 말단단위큰물관리정보 체계도 개발 도입함으로써 전반적 지역뿐 아니라 개별적 지역에 대한 큰물 수위와 상태, 큰물 범람 등과 관련한 재해 예측과 위험도 정보를 제공해주고 신속히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하였음

- 연구소에서는 지금 파괴적인 자연현상들에 대한 관리 정보 체계를 비롯하여 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작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진척되고 있음

■ 강수량 지역적 편차 심화 및 강풍·눈꽃 등 기온변화 불안정 보도(중앙통신, 2020.4.25)

- 최근 이상기상현상으로 일정한 지역에만 비가 내리며 강수량의 지역적 차이가 심하였을 뿐 아니라 기온변화도 매우 불안정하였음
- 지난 3월 상순과 중순에 주로 북부 내륙지역을 위주로 비와 눈이 자주 내려 이 지역의 월 평균 강수량은 평년에 비하여 많아진 반면에 남포시와 황해남도를 비롯한 중부 이남지역들에서는 매우 적었음
- 3월 하순과 4월 상순에는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으며 서해안의 대부분 지역들에서는 센 바람도 자주 불면서 낮 대기 습도가 아주 낮은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었음
- 이 기간에 기온이 대체로 평년보다 높은 상태로 유지되다가 4월 20일부터 급격히 낮아져 전반적 지역에서 저온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음
- 21일과 22일 낮 최고기온은 동서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10℃ 미만, 북부 내륙지역에서 4℃ 미만으로서 평년보다 7~10℃ 낮았음
- 특히 21일 매우 찬 공기가 흘러들면서 갑자기 눈구름이 형성되어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센 바람이 불고 눈꽃이 날리는 보기 드문 현상도 나타났는데 이것은 초겨울이나 초봄에 나타나는 기상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였음

■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 큰물 피해 상황 현지 요해(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2020.8.7)

- 최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은파군 대청리 지역에서 물길 제방이 터지면서 단층 살림집 730여 동과 논 600여 정보가 침수되고 179동의 살림집이 무너지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국무위원장 예비 랑곡을 해제하여 피해 지역 인민들에게 세대별로 공급해주기 위한 문건을 제기할 데 대하여 지시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와 인민무력성의 간부들로 피해복구사업지 휘부를 조직하며 지휘부는 현지에서 피해 상황을 료해 장악하면서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재와 역량 편성을 정확히 타산하여 보고할 데 대한 지시를 주었음
-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도 피해 복구 건설사업에 군대를 동원할 것을 결심하였다면서 파괴된 살림집과 도로, 지대 정리 사업을 진행할 데 대하여 지시하였음

■ 대청리 일대 홍수 피해 지원 양곡수송차 도착(중앙통신, 2020.8.10)

- 양곡수송차들이 9일 오전 은파군에 도착, 전달하는 모임은 은파군과 대청리의 일군들, 농업 근로자들이 참가하여 군소재지에서 진행됨

■ 황해남도 태풍 피해 상황 요해(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2020.8.28)

- 김정은 위원장이 황해남도 태풍 피해 지역을 돌아보며 피해 상황을 요해하였음
 - 김 위원장은 태풍 8호에 의한 피해 규모가 예상하였던 것보다 적다고 말하였음
 - 김 위원장은 모든 당 조직들이 태풍에 의한 피해를 막을 데 대한 당 중앙의 지시를 접수한 즉시 예견성 있는 안전 대책들을 취함으로써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위기 대처 능력이 개선되어가고 있는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하였음
 - 김 위원장은 특히 농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김 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각 부서들이 황해남도의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복구사업에 모두 동원될 데 대하여 지시하였음

■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피해 복구 건설 현장에 현장지도(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2020.9.12)

- 김정은 위원장이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의 피해 복구 건설 현장을 현지지도하였음

- 현지에서 은파군 큰물 피해 복구 건설에 참가한 군부대 지휘관들과 일군들이 맞이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건설 현장을 돌아보며 복구 건설 진척 정형과 공사 계획에 대하여 료해하였음

■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피해 복구 현장 현지지도(중앙통신·『노동신문』, 2020.9.15)

- 김정은 위원장이 폭우와 강풍 피해를 복구하여 새로 일떠세운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현지지도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동행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농촌 건설에서 당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갈 방향에 대하여 토의하였음. 김 위원장은 지방 건설, 특히 농촌 건설의 전망 목표를 현실성 있게 계획적으로 세워야 한다며 사회주의 농촌으로 전면시키기 위한 사업에 국가적 지원을 대폭 증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그러면서 사회주의 농촌 건설 강령을 하루빨리 완수하기 위한 당면 과업과 전망 목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당대회가 줄 것이라고 말하였음

■ 평양시 당원들, 함경도 피해 복구장으로 30여만 명 탄원(중앙통신, 2020.9.7)

- 6일 하루 동안 30여만 명의 당원들이 당중앙의 구상을 실천으로 받들어나갈 열의를 안고 함경남북도 피해 복구장으로 탄원하였으며 당원들의 뒤를 따라 근로자들도 적극 합세하여 탄원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

■ 제1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 함경남도 피해 복구 현지 도착(중앙통신, 2020.9.10)

- 평양을 떠난 제1수도당원사단의 전투원들이 9일 함경남도 피해 복구 현지에 도착하였음
- 제1수도당원사단의 지휘관들은 현장 료해를 진행한데 맞게 공사의 선후차를 옮겨 선정하고 로력 조직과 자재 보장 대책 등 구체적인 작전과 지휘를 전개해나가고 있음
- 각 대대의 전투원들은 살림집 부지들에 대한 지대 정리 작업에 일제히 진입하였음

■ 강원도 김화군 피해 복구 현장 공개 활동(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2020.10.2)

- 김정은 위원장이 건설 중에 있는 김화군 피해 복구 현장을 현지지도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피해 복구 건설 현장을 돌아보며 이 고장에서 발생한 살림집, 농경지, 교통운수 부문, 국토환경 부문, 도시경영 부문, 전력 부문, 체신 부문 피해 규모와 복구 정형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읍지구 소층 살림집과 리지역 단층 살림집 근 1,000세대에 대하여 총 공사량의 88% 계선에서 공사를 다그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당의 지도 속에 인민군대가 자랑찬 성과를 이룩해나가고 있다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였음

■ 함경남도 검덕지구 피해 복구 현장 현지지도(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2020.10.14)

- 김정은 위원장이 함경남도 검덕지구 피해 복구 현장을 현지지도하였음
- 불과 1개월 전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6차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검덕지구 복구전투에 인민군 부대들을 동원할 데 대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을 하달하면서 군인 건설자들은 검덕지구에 새로 건설하는 살림집 2,300여 세대에 대하여 총 공사량의 60% 계선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피해 복구 건설은 1단계로 정하고 80일 전투기간 총력을 다하여 질적으로 완공하며 2단계로 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할 5개년계획 기간에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대흥청년영웅광산, 룡양광산에 2만 5,000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결심을 피력하였음

■ 함경남도 자연재해 복구 건설사업 지도(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2020.10.14)

- 김정은 위원장이 함경남도 신포시와 흥원군을 비롯한 동해지구 자연재해 복구 건설장을 돌아보며 건설사업을 지도하였음
- 제1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은 끊어진 수십 리 구간의 도로를 복구하며 전투장으로 진출하여 9월 12일부터 29일까지 착공 18일 만에 함경남도 흥원군 운포로동자구, 경포로동자구와 리원군 학사대리에 147세대의 현대적인 문화주택을 새로 건설함으

로써 10월 명절전으로 맡겨진 전투 임무를 완수하고 피해가 제일 심하고 복구 실적이 뒤떨어진 또 다른 지역들에 새로운 전투장을 전개하고 또다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맹렬한 돌격전을 벌이고 있음

■ ‘당 창건 75주년’을 성대히 경축한 데 대한 상보 발표, ‘열병식을 비롯한 행사들이 품위 있게 진행’(중앙통신 상보, 2020.10.15)

- ‘조선로동당 창건 75돐을 전 인민적인 경사로 성대히 축한 데 대한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 당과 국가의 선제적이며 강력한 방역 조치들로 우리 조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로 되었음
 - 당 중앙은 비상방역사업과 자연재해 복구를 인민사수전으로 전환시켜 올해를 전화위복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전진·단결의 해로 빛내어나갔음
 - 황해남북도, 강원도, 함경남북도, 개성시를 비롯하여 피해 복구 전구들에서 군민 대단결의 위력이 발휘되었음

■ ‘80일 전투’ 관련 ‘자력갱생은 강위력한 보검’ 강조(『노동신문』 논설, 2020.10.17)

- 당은 비상방역사업을 강화하고 자연재해 복구 전투를 년말까지 완료하며 올해 농사를 잘 결속하고 국가적인 대상 건설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을 최대한 다그치는 것을 80일 전투의 기본 투쟁 목표로 내세웠음

■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민주조선』, 2020.10.19)

-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됨. 회의에는 김덕훈 내각 총리를 비롯한 내각성원들이 참석함
- 비상방역사업을 공세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당 제8차대회를 보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임
- 피해복구용 자재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 자연의 대재앙의 흔적을 말끔히 가셔내기 위한 피해복구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는데서 나서는 방도적 문제들이 언급됨

- 확대회의에서 피해복구 공사를 설계와 시공 공법의 요구대로 엄격히 진행할 데 대하여 지적함
- 농사 결속을 잘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하는 데서 나서는 방도적 문제들을 토의함
-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80일 전투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총 공격전을 과감히 전개하여 기어이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과업들을 밝힘
 - 전력공업 부문, 석탄공업 부문, 금속공업 부문, 화학공업, 철도운수 부문, 채취공업 부문 등
- 경공업 부문에서 내부 예비와 잠재력을 탐구 동원하여 80일 전투 목표에 제시된 경공업제품들을 무조건 생산 보장할 데 대한 문제들이 중요하게 언급됨

■ 세계적인 보건 위기와 자연재해 난관, '집단주의의 위력으로 타개' 호소(『노동신문』 사설, 2020.11.28)

- 80일 전투를 다그쳐나가고 있는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령도 따라 다그쳐온 올해의 진군은 당과 일심외의 보조를 맞추는 인민을 쓰러뜨릴 수 없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음
- 올해는 정초부터 시련의 련속, 엄혹한 위기들에 대처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이 벌어진 운명적인 해였음. 대재난 속에서도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확신성 있게 내밀고 있는 우리 국가의 기상은 만사람을 경탄시키고 있음
- 80일 전투는 전당, 전민이 난관을 함께 타개해나가는 공격전임.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을 받들고 비상 방역전을 강도 높이 벌리며 중요 대상건설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을 최대한 다그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함

12. 보건

■ 위생방역 체계를 국가비상방역 체계로 전환(중앙방송·『노동신문』, 2020.1.30)

- 최근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날로 커가는 속에 많은 나라에서 긴급 대책들이 취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발생 초기부터 강한 예방 대책을 세워나갔음
- 당과 국가의 긴급 조치에 따라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위험성이 없어질 때까지 위생방역 체계를 국가비상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을 선포했음
- 중앙과 도, 시, 군들에 비상방역지휘부가 조직되었음

■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위생 검역 주력(『노동신문』, 2020.1.31)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데서 국가품질감독위원회는 매우 중요함
-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우리는 보건사업을 발전시켜 인구의 평균수명과 전염병 예방률을 비롯한 보건지표들을 세계 선진 수준에 올려세우며 인민들에게 보다 위생문화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 위원회에서는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태에 대처하여 국경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지점들에서 위생 검역 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고 있음
- 외국 출장자들에 대한 검병 검진 사업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자들에 대한 검사 검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경지구 수출입품 검사 검역소들은 위생방역 부문의 일선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아래 단위 수출입품 검사 검역소들에서 해당 지역 비상방역지휘부와의 연계 밑에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사업과 의학적 감시 사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음
- 이 밖에도 위원회에서는 세계적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의 역학분석에 대한 세계적인 의학 기술 자료들을 수집하고 검사 및 진단 시약들을 확보하여 해당 단위들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음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사업 적극 전개(중앙통신, 2020.1.31)

- 조선에서 비상설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중앙과 도, 시, 군들에 조직 전개된 비상방역지휘부들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일군들이 국경, 항만, 비행장 등에서 위생 검역 사업을 강화하여 조선에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역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중앙위생방역소와 국가품질감독위원회에서는 다른 나라에 출장을 갔다 오는 성원들과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물자들에 대한 검진 및 검사 검역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고 있음
- 평양의학대학병원, 김만유병원, 함경남도인민병원을 비롯한 보건 부문의 일군들이 위생 선전 사업과 검병 사업을 강화하여 열이 있거나 기침을 하는 환자들을 제때에 찾아 확진하는 것과 함께 철저히 입원, 격리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음
- 전국의 탁아소들에서도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체질적 특성에 맞게 부모들과 보육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잘하도록 위생 선전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신종 코로나19 차단 사업 강조(중앙방송·『노동신문』·중앙통신, 2020.2.1)

- 지금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은 아시아 나라들뿐 아니라 북아메리카와 유럽 등 세계 각지로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음
“당의 예방의학적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염병과 질병을 제때에 막아야 합니다.”
-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기 위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힘 있게 벌어지고 있음
- 당과 국가의 긴급조치에 따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위험성이 없어질 때까지 위생방역 체계를 국가비상방역 체계로 전환하였으며 중앙과 도, 시, 군들에 비상방역 지휘부가 조직되어 이 사업을 통일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 삼지연시인민병원에 의료설비와 기구 등 전달(중앙방송 『노동신문』, 2020.2.12)

- 김정은 위원장은 삼지연시인민병원을 새 세기 보건의학적 요구가 완벽히 구현된 지방 인민병원의 본보기로 꾸려주기 위해 현대적 의료설비와 기구 등을 선물로 보내주었음
-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11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

■ ‘코로나19’ 감염증 격리 기간 연장(중앙통신·중앙방송, 2020.2.12)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기 위해 격리 기간을 연장함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제의를 심의하고 승인, 결정하였음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긴급 채택한 결정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하여 공화국 령내에서 격리 기간을 잠정적으로 30일로 연장함
- 국가의 모든 기관, 부문들에서와 우리나라에 주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를 무조건 준수하여야 함

■ ‘코로나19’ 미발생 주장 및 위생방역사업 주력 촉구(『노동신문』, 2020.2.20)

-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음

“질병예방사업을 대중화하는 것은 질병을 미리 막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들어오지 못하였음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미해명 문제들이 많은 조건에서 절대로 긴장성을 늦추지 말고 모든 지역, 모든 단위들에서 위생 방역 사업의 강도를 더욱 높여나가야 함
- ‘인민 보건 발전은 영원한 국책’ 강조, ‘전염병 침습 통로 철저히 봉쇄, 사소한 징후도 조기에 적발·소멸’(『노동신문』, 2020.2.23)
-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사회주의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 위생방역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살리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임
 - 국가적인 위생방역 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위생방역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온갖 전염병의 침습 통로를 철저히 봉쇄하며 그 사소한 징후도 조기에 적발하고 소멸하여야 함
 - 중앙과 지방의 의학 교육기관들을 보건 부문의 인재 양성 기지, 학술연구 기지답게 잘 꾸리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함
 - 국가적으로 보건 부문을 최대로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의약품과 의료기구 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원료, 자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여야 함
- ‘코로나19’ 관련 의학적 감시 대상자 3,000여 명 생활 보장 및 외국인 380여 명 격리(중앙방송, 2020.2.24)
- 평안남도, 황해남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각 도들에서 다른 나라에 갔다 온 출장자들과 접촉자들, 감기를 비롯한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을 빠짐없이 찾아 격리시키고

의학적 감시와 예방치료 대책을 면밀히 세우고 있음

- 평안북도에서는 국경 접경지역의 특성에 맞게 모든 사람들이 최대의 각성을 가지고 위생방역사업과 관련한 규율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3,000여 명의 의학적 감시 대상자들이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전력 보장, 물자 보장, 난방 보장, 물 보장 등을 적극 따라 세우고 있음
- 지금 전국적으로 외국인 380여 명을 격리시킨 것을 비롯해서 외국 출장자들과 접촉자들,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 및 의학적 관찰과 모든 단위들에서의 검병 검진사업이 보다 강화되고 있음

■ 국경지역 및 주요 항구 수출입품 검사 검역소, 물자 검사 검역사업 고강도 전개(중앙통신, 2020.2.26)

- 우리나라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예방 사업이 강도 높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자들에 대한 검사 검역을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음
- 국가품질감독위원회 감독성원들이 조금이라도 긴장성을 늦추면 커다란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고 있음
- 국경지역과 주요 항들에 위치한 수출입품검사검역소들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자들에 대한 검사 검역을 철저히 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해나가기도록 하고 있음
- 물자들을 먼저 반입 지점의 격폐된 장소들에 정해진 기간 자연 상태에서 방치해두고 지도서의 요구대로 철저히 소독한 다음 해당 절차에 따라 물자를 인계인수하는 질서를 새로 세워놓았음

■ '코로나19' 관련 방학 연장 및 기숙사생 생활 조건 보장(중앙방송, 2020.2.27)

-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이 퍼지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학생들의 방학이 연장된 데 맞게 각급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방법론 있게 짜고 드는 것과 함께 위생방역사업에 힘을 넣고 있음

- 교사와 기숙사 등에 대한 소독사업을 위생학적 요구에 맞게 하는 한편 기숙사생들의 생활 조건 보장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그들에 대한 검진과 의학적 감시를 강화하고 있음
- 소학교와 초급, 고급 중학교의 교원들은 학부형들과 항시적인 연계를 가지고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학습 정형을 정상적으로 알아보면서 그들이 위생 방역과 관련한 사항들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도록 요구성을 높여 사소한 편향도 나타나지 않게 하고 있음
- 각지 유치원, 탁아소의 교양원, 보육원들도 가정들에서 방 안 소독과 공기갈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어린이들이 손 씻기를 자주 하고 몸 관리를 잘하도록 하는 데 관심을 돌리고 있음

■ ‘코로나19’ 차단 사업 과정, 외국인 221명 격리 해제(중앙통신, 2020.3.6)

- 세계적으로 ‘COVID - 19’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데 대처하여 전염병이 류입될 수 있는 통로를 철저히 차단하고 방역사업이 엄격히 진행되고 있음
- 이 과정에 격리되어 엄밀한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던 380여 명의 외국인들 중에서 221명이 격리 해제되었음
-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에서 의학적 감시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물자들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리고 있음

■ 평양종합병원 건설 착공식 참석 및 연설(중앙방송·중앙통신·『노동신문』, 2020.3.18)

-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이 3월 17일 진행되었음. 김정은 위원장이 착공식에 참석함

■ 방역사업 엄격히 실시 및 추가 격리 해제(중앙통신·중앙방송, 2020.3.13)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받들고 우리나라에서는 ‘COVID-19’를 막기 위한 국가적인 방역사업의 도수가 날로 높아가고 있음
- 중앙과 지방의 각급 검사 검역 단위들에서는 국경과 항만을 통하여 국내에 들어오는

차량, 선박들과 물자들에 대한 검사와 소독을 빈틈없이 한 다음 물자들은 격폐된 장소에 10일 동안 자연 방치하였다가 제정된 절차와 질서에 따라 해당 단위에 인계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격리와 의학적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것과 함께 의심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70여 명의 대상들을 또 격리 해제시켰음
- 평안북도에서 990여 명, 평안남도에서 720여 명을 격리 해제시켰음

■ ‘코로나19’의 바다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 강구(중앙통신, 2020.3.18)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다물의 염기 속에서 단백질막이 파괴되어 존재할 수 없으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물건들이 해류를 통하여 떠다니면서 전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바다를 통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류입을 막기 위해 연안지역의 각급 비상방역지휘부, 해당 기관들이 바다 출입 질서를 보다 철저히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바다에 떠다니는 물건들을 승인 없이 건지거나 만지지 않도록 해설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바다 기슭으로 밀려든 물건들을 발견하는 즉시 위생방역규정에 따라 소각 처리하기 위한 강한 대책을 취하였음

■ 각급 비상방역지휘부, 방역사업 계속 심화 및 추가 격리 해제(중앙통신·중앙방송, 2020.3.20)

-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의 각급 비상방역지휘부들에서 비루스전염병방역사업을 계속 강도 높게 심화시켜나가고 있음
- 중앙비상방역지휘부에서는 매 주마다 전국적인 화상회의 체계를 통하여 각 비상방역지휘부들에 주별 사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주고 그 집행에서의 성과와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는 것과 함께 편향들을 강하게 총화 대책하고 있음
- 충분한 의학적 감시와 검병검진사업을 통하여 이상 증세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데

따라 19일 현재 3명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들이 격리 해제되었음

- 평안남도, 평안북도에서 각각 1,500여 명, 1,090여 명을 추가로 격리 해제시킨 것을 비롯하여 각 도에서 격리 기간이 완료되고 비루스 감염 증세가 없는 사람들을 련이어 격리 해제시키고 있음
- 강원도에서는 현재까지 1,430여 명을 격리 해제시키었으며 그들에 대한 일정한 기간의 의학적 감시 조직도 적극 따라 세우고 있음

■ 봄철 위생월간사업의 코로나19 국가 비상방역 전환 강조(『노동신문』, 2020.3.20)

- 지금 3, 4월 위생월간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힘 있게 벌어지고 있음
- 해마다 진행되는 봄철 위생월간사업은 전 국가적, 전 인민적인 위생문화사업임
-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음
“생활문화를 세우는 사업은 광범한 대중이 발동되고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될 때에만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국제사회에서 비루스 감염증에 의한 피해가 나날이 급증되고 있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각성 분발하여 봄철 위생월간사업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비상설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에서는 이미 3, 4월 위생월간사업을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의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으로 전환시켜 진행할 데 대하여서와 이 기간에 진행하여야 할 단계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지시문을 모든 지역과 단위에 하달하였음
- 격리 장소를 물리적으로, 방역학적으로 차단격폐하고¹⁾ 그에 대한 위생 관리와 격리자들의 치료 예방 대책을 바로세워야 함
- 우리나라 령해와 대동강 류역에 격리되어 있는 무역 선박들에서 나오는 오수 처리를 규정대로 엄격히 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강구하여야 함

1) 저자 주: “격폐”의 북한말.

- 상하수도망들에 대한 정비와 보수 대책을 잘 세우며 도랑 정리와 울타리 보수, 오수정 화장장에서 버림물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진행하는 것과 함께 수원지들의 수질검사 일, 주, 월별로 정상화해야 함
- 봄철 위생일간사업에서 사소한 편향도 나타나지 않도록 해당 기관들에서 법적 통제와 교양사업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가야 함

■ 국가비상방역사업총화회의의 진행 및 격리 해제 현황 보도(중앙통신, 2020.3.27)

- 전염병 류입과 전파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방역사업 더욱 심화됨
- 화상회의 체계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국가비상방역사업총화회의에서는 전염병의 류입 경로에 대한 차단 봉쇄, 검병 검진, 검역 등 방역사업에서의 성과와 결함들이 심도 있게 분석 총화되고 필요한 대책들이 강구되고 있음
- 1명의 외국인이 또 격리 해제됨으로써 현재 격리되어 있는 외국인은 2명임
- 각급 비상방역지휘부들에서는 격리 기간이 끝나는 차제로 이상 증세가 없는 의학적 감시 대상자들을 규정대로 해제하고 있으며 평안남도, 평안북도, 량강도, 라선시 등 전국적으로 남아 있는 2,280여 명의 의학적 감시 대상자에 대한 검병 검진과 생활보장사업도 더욱 면밀히 짜고 들고 있음
- 각지 호 담당 의사들이 담당구역 안의 격리 해제 대상들에 대한 의학적 감시를 매일 2차 이상 책임적으로 진행하도록 장악지도사업도 강화하고 있음

■ 평양종합병원 건설 군인·건설자들, 착공 10여 일 만에 ‘기초 굴착 실적 50% 돌파’ 등 조기 성과 달성(중앙통신·중앙방송, 2020.4.2)

- 착공한 지 불과 10여 일 만에 기초 굴착 실적이 50%계선을 넘어서고 기초 콘크리트치가 립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건설자들은 룬전기재들과 중기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매일 수만³의 토량을 처리하고 있음

■ 국가비상방역사업 총화회의 진행, 긍정적 소행 자료 평가 및 일부 부정적인 현상 총화(중앙통신, 2020.4.3)

- 이번에 진행된 국가비상방역사업 총화회의에서는 긍정적인 소행 자료들이 통보, 평가되고 방역사업을 만성적으로 대하는 일부 부정적인 현상들이 강하게 총화되었음
- 회의에서는 세계적으로 비루스 전염병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국가비상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전 사회적, 전 인민적인 행동 일치로 전염병 방역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되었음
- 각급 비상방역지휘부들에서는 전염병 류입 공간의 차단, 봉쇄와 검병 검진, 검사 검역 등을 방역 규정의 요구대로 책임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 체계와 질서를 짜고 들고 있음
- 모든 병원, 진료소들의 비상방역정보체계구축에도 힘을 넣어 중앙으로부터 말단 단위까지 필요한 자료들과 제기된 문제들이 즉시 전달되고 대책하도록 하고 있음
-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격리 해제 사업이 엄격히 진행되고 있는 속에 평안북도, 황해남도, 자강도, 강원도, 함경남도, 개성시에서는 의학적 감시 대상자들이 전부 해제되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500여 명이 남아 있음
- 격리 해제된 사람들에 대한 의학적 감시와 해제 사업도 방역 규정에 따라 정확히 진행되고 있음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염병예방법」 수정·보충 발표(중앙통신, 2020.4.3)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근 「전염병예방법」을 수정·보충하여 발표하였음
- 수정 보충된 「전염병예방법」은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1개 장이 새로 설정되고 8개 조문이 더 첨부되어 6개 장에 5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여기에는 전염원의 적발과 격리, 전염 경로 차단을 비롯하여 전염병 예방과 관련한 법적 요구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음

- 「전염병예방법」의 수정 보충은 전염병 예방과 치료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담보를 마련하였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음

■ 봄철 위생월간사업 - 코로나19 전파 방지 사업 결부하여 진행 (『노동신문』, 2020.4.5)

-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공장과 일터, 거리와 마을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자기 단위와 지방의 특성이 살아나면서도 먼 앞날에도 손색이 없는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 올해 봄철 위생월간사업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과 결부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 개체 위생을 엄격히 지키는 것과 함께 생산환경, 생활환경을 깨끗이 꾸리고 관리하는 것은 전염병 방역사업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나섬

■ 평양종합병원 건설장에서 기초 굴착 수십만 m^3 성과 조기 달성(중앙방송·중앙통신, 2020.4.8)

- 평양종합병원건설장에서 착공 20여 일 만에 방대한 기초 굴착을 결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군인 건설자들은 수십만 m^3 의 굴착 과제를 5일까지 앞당겨 끝냈음
- 8건설국의 건설자들도 료전기재와 중기계들의 만가동 보장을 위해 자검자수를 짜고 들고 제기되는 수리를 제때에 신속히 함으로써 맡은 굴착 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음
- 기초 굴착을 기한 전에 끝낸 전체 일군들과 지휘관, 건설자들은 기초 콘크리트치기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음

■ 코로나19 방역사업 강화, 평안남도·황해북도·라선시에서 모든 의학적 감시 대상자 해제(중앙방송, 2020.4.18)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채택된 공동 결정서 관철을 위한 방역사업이 전 당적, 전 국가적, 전 사회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음
-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비상설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에서는 세계적으로 비루스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비상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음
- 국경 및 분계연선지역들에서 국경과 영공, 영해가 완전히 봉쇄된 데 맞게 전염병 유입 공간이 없는가를 다시금 엄밀히 따져보고 사소한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사전 대책들을 예견성 있게 세워나가고 있음
- 국내에 들어오는 인원들과 물자들에 대한 검사, 검병, 검역 및 소독 처리를 더욱 엄격히 하고 비상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 보장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방역사업에서 전국적인 조직성과 일치성, 의무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악과 지도 사업이 보다 강도 높게 벌어지고 있음
- 각지에서 주민들에 대한 위생 선전과 의학적 감시가 계속 강화되고 의학적 감시 대상자들에 대한 해제 사업도 방역 규정에 맞게 따라 세우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은 전부 격리 해제됐으며 해제된 때로부터 30일간의 의학적 감시 기일이 지난 대상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활동이 보장되고 있음
- 평안남도와 황해북도, 라선시에서 모든 의학적 감시 대상자들이 해제됐음

■ ‘주문 봉사’ 장려 등, 코로나19 차단 방역 사업 전개(중앙방송, 2020.6.1)

- 비루스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국가적인 방역사업이 사회 경제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계속 강도 높게 전개되고 있음
- 6월 초부터 전국의 소학교와 초급, 고급 중학교들에서 새학년도 수업이 시작되고 탁아소와 유치원들, 각지 요양소들과 일부 봉사 단위들이 다시 운영되는 데 맞게

그에 따르는 방역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

- 각 도, 시, 군 비상방역지휘부들에서는 교육 및 보육기관들에서 정문과 모든 교실, 사무실들에 체온계와 손소독 기재들을 갖추고 교원, 교양원, 보육원들이 방역 질서를 철저히 준수하며 학부모들이 자녀 교양을 잘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해당 지역의 치료 예방 기관들이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들과 성원들에 대한 운영전 검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며 건물 소독에 필요한 소독약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선행시켜나가고 있음
- 상업봉사 부문에서는 봉사원들에 대한 검병 검진을 강화하면서 방역 규정에 준하여 봉사활동을 짜고 들고 있음
- 평양시를 비롯한 각지에서 상업봉사 단위들의 봉사 조직과 방법을 방역 규정의 요구에 부합되면서도 손님들에게 편리하게 개선하고 있으며 급양봉사망들에서는 주문 봉사를 장려하는 것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최대로 보장하고 있음
- 수산 부문에서는 해당 단위 일군들과 방역 일군들의 긴밀한 협동 밑에 어로 및 양식 활동으로 바다에 나가는 성원들이 제정된 질서를 엄격히 지켜 전염병의 유입 및 전파 공간을 철저히 막는 데서 공민적 의무를 다해나가도록 하고 있음

■ 룡해운 부문에서 악성 비루스의 류입과 전파를 보다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사업을 강도 높게 전개(『노동신문』, 2020.8.2)

- 룡해운 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생방역사업에서 방심과 방관, 만성화된 현상을 철저히 경계하며 나라의 주요 관문과 교통로들을 지키고 있음
- 평양시와 지방의 모든 로선버스 운영 단위들에서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내용의 위생 선전을 공세적으로 벌리는 것과 함께 여행자들이 개인 보호 기재를 철저히 착용하고 위생 방역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음
- 평양면거리려객차사업소, 평양면거리자동차수송대 등에서는 교통망과 룡전기재를 통한 악성 비루스의 류입과 전파 공간을 없애기 위해 비상방역사업을 보다 강도 높이

별려나가고 있음

- 청진, 흥남, 송림, 남포항 등에서 검사 검역 기재들을 방역 규정의 요구대로 전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화물들에 대한 소독 처리와 자연 방치 규정을 지키면서 고도의 긴장성을 유지함

■ 개성시 완전 봉쇄 및 개성시민 검병 검진·의학적 감시 강화(중앙통신, 2020.8.3)

- 최대비상체제에 맞는 선제적이며 즉시적인 방역 조치들이 엄격히 실시되고 있음
- 국가적으로 개성시에 대한 완전 봉쇄와 함께 물자 보장이 최우선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대의 긴장 상태에서 개성 시민들에 대한 검병 검진과 의학적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
- 국경과 분계연선, 해안 연선지역들에서 악성 비루스가 류입될 수 있는 바늘구멍만한 공간도 모조리 앞질러가며 찾아내어 철저히 차단 봉쇄, 관리하기 위한 조치들이 련속 강구되고 있음
- 수출입품 검사 검역 부문의 일군들은 최대로 각성하여 납입 물자들에 대한 검사검역과 소독에서 방역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
- 전국적 범위에서 모든 주민들에 대한 검병 검진을 철저히 진행하여 발열자와 이상증상이 있는 대상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대책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전국의 주요 지점들에 증강 배치된 방역 초소들이 류동하는 인원과 물자, 료전기재들에 대한 소독 및 검역 검진을 철저히 하며 자그마한 전염병 전파 요소도 나타나지 않도록 적시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음
- 해당 부문과 단위들에서는 장마철 조건에 맞게 강하천과 수원지들의 수질 검사를 책임적으로 하고 바다 출입 규률을 엄격히 지키며 물에 떠다니는 물체에 대하여 방역 규정대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강도 높이 진행하고 있음

■ 개성시에 특별 지원 물자 지원(중앙통신, 2020.8.9)

- 당 중앙은 개성시에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 것과 관련하여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하도록 하고 봉쇄된 개성시의 인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긴급 조치들을 련이어 취하였으며 이번에는 많은 식량과 생활보장금을 특별 지원함
- 어머니당의 은정 어린 특별 지원 물자를 실은 열차가 7일 오후 개성역에 도착하여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시 인민들에게 베풀어주신 배려를 전달하는 모임이 개성시당 회의실에서 진행됨
- 리만건 당 제1부부장의 전달사를 통해 개성시가 완전히 봉쇄된 그 시작부터 식량과 의약품 등을 긴급 보장하도록 해주신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많은 량의 흰쌀과 생활보장금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언급함

■ 김정은 위원장, 수해 지역에 의약품 지원(중앙통신, 2020.8.16)

- 김정은 위원장이 은파군인민병원과 대청리 주민 세대들에 보내준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15일 군소재지에서 진행됨
 - 모임에는 은파군 일군들과 군인민병원 종업원들, 대청리 주민들이 참가함

■ 평양종합병원, 의료봉사 지능화·정보화준비사업 추진(중앙통신, 2020.8.27)

- 보건성에서는 평양종합병원의 의학자, 과학자 대렬을 꾸리고 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 기능공들을 키우기 위한 강습과 실습 등 실무적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이와 함께 각종 설비와 의약품과 소모품들을 생산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다그치고 있음
- 평양종합병원의 지능의료봉사체계개발을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과학자, 기술자, 의료 일군들은 지능화, 수자화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 목표 밑에 자료 조사와 분석, 질병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기술 과제서 작성을 책임적으로 하고 있음

■ 평양종합병원건설 군인·건설자들, 외부 마감 공사 진척(중앙통신, 2020.9.12)

- 조선로동당 창건 75돐까지 평양종합병원건설을 무조건 끝내기 위해 인민군 군인들과 건설자들이 립체전으로 외부 마감 공사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음
- 전면 창문틀과 늪창문틀 설치공사, 지붕 방수 및 습식 공사 등을 끝낸 군인들이 공사 속도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능률적인 작업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외부 타일 붙이기 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음
- 이와 함께 유리 끼우기와 벽체 외장재 칠하기를 동시에 밀고나가고 있음
- 8건설국의 건설자들도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여 타일 붙이기 공사와 지붕 방수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단열창 설치를 비롯한 여러 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중앙비상방역 부문 사업정형 총화(중앙통신, 2020.9.21)

- 중앙비상방역 부문에서는 각지의 비상방역사업 정형을 정기적으로 총화하여 나타난 편향들을 철저히 극복하며 모든 단위, 모든 국민들이 국가적인 방역 조치들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실무적인 대책들을 적시적으로 세워나가고 있음
- 각급 지휘관들은 인원과 기재들이 정도 이상으로 모이거나 무질서하게 류동하지 않도록 작업 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고 있음
- 작업장과 침실 등에 소독 기재들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소독을 간간히 진행하는 한편 소독약 보장도 제때에 따라세우고 있음
- 식당과 상점 등 사람들이 많이 리용하는 곳들에서 제정된 방역 질서를 더 잘 지켜 사소한 전염병 전파 공간도 생기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를 심화시키고 있음

■ 강도 높은 비상 방역 및 방역 규정 철저히 엄수 강조(중앙통신, 2020.9.28)

-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악성 전염병 류입 위험성이 완전히 소실될 때까지 비상방역전을 계속 힘 있게 전개해나가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주인답게 동원되어야 함

- 전체 인민이 오늘의 비상방역전에서 전초병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방역 규정을 철저히 엄수하여야 하고 각급 당 조직들이 책임과 본분을 다 해나가야 함

■ ‘대재앙·최악의 시련’ 등 난관 속 ‘민심’ 강조(『노동신문』 정론, 2020.11.18)

- 대류행 전염병으로 5,500여만 명의 감염자와 130여만 명의 사망자라는 기록적인 수자를 넘어 지난 세기의 가장 큰 경제공황 이래 최악의 혼란 상태가 세계를 위협하고 있음
- 최악의 시련은 모든 것을 시험하고 검증함. 가리워진 실체가 수면 우에²⁾ 떠오르듯 전 세계가 이 시험대에 올라 진면모를 낱낱이 드러내 보이고 있음
 - 3중으로 겹쳐든 전대미문의 고난보다 비할 바 없이 강할 뿐 아니라 그것이 가증될수록 용기백배해지는 힘이 있음. 그것은 이 나라의 격양된 민심임

■ ‘비상방역체계 더욱 보강’ 강조(『노동신문』, 2020.11.19)

- 많은 나라들에서 악성 전염병의 2차 파동으로 방역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엄혹한 현실은 우리들에게 국가비상방역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켜 주고 있음
- 믿음직한 방역 장벽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재해 복구와 농사 결속을 비롯한 모든 과업들을 전투적으로, 책임적으로 보다 실속 있게 해제끼자는 것이 우리 당의 의도임
- 거대한 창조대전 앞에 비상방역사업이 있음. 방역 전선이 흔들리면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이 위태롭게 됨. 우리 당이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회의들을 련이어 소집하고 방역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데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임
- 80일 전투의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면 누구나 방역사업에서부터 무한한 책임성과 최대의 긴장성을 발휘하여야 함. 여기서는 그 누구도 레외가 될 수 없음. 비상방역사업은 철저히 주동에 서서 공세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2) 저자 주: “위”의 북한말.

13. 환경정보화 및 과학기술

■ 과학기술 강조, ‘주체과학 증폭은 적들의 과학기술 봉쇄 무력화와 사회주의 전진 가속화를 위한 최선의 방략’ 주장(『노동신문』, 2020.2.21)

-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확고히 선행시키며 과학기술 성과들을 적극 도입하는 데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적 전진이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며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입니다”라고 말하였음
- 지금 정치군사적으로 우리를 더는 어쩔 수 없게 된 적대 세력들은 경제기술적 봉쇄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으나, 적들의 과학기술 봉쇄를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 전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략은 주체과학의 힘을 최대한 증폭시키는 데 있음
- 나라의 종합적 국력과 지위는 결코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 물질적 부, 지정학적 위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에 의하여 규정됨
- 과학기술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3대 기둥의 하나로 내세운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온 나라에 과학기술 중시 기풍, 첨단 돌파 열풍이 차넘치고 과학기술 발전에 전 국가적 인 힘이 집중되었음
- 경제강국 건설과 무적의 군사력 강화, 사회주의 문명 건설도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에 달려 있음
- 경제 부문만 놓고 보아도 경제 전반의 정비 보강과 발전 동력의 회복, 현존 토대와 현존 능력의 효과적인 활용, 에너르기 절약형, 로력 절약형, 기술 집약형의 생산 공정 확립,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 실현, 새 에너르기 자원의 개발 리용, 선질후량의 원칙 구현, 다수확 재배 등 수많은 문제들이 나서고 있음
- 지금 생산 정상화, 생산 활성화의 동음을 높이 올려나가는 단위들을 보면 자체의 과학기술 역량이 그뿐하며 과학기술로 난관 극복의 해결책을 찾고 있음

-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과학기술을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내세운 당의 의도를 똑똑히 명심하고 과학기술 선행, 과학기술 발전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것임

14. 정치·경제

■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의 3일 회의 진행 (『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2019.12.31)

-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의 3일 회의가 12월 30일에 계속 진행되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보고에서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정돈할 데 대하여, 인민경제 주요 공업 부문들의 과업에 대하여, 농업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 데 대하여, 과학·교육·보건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 증산 절약과 질 제고 운동을 벌리며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재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 등 당과 국가사업 전반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제기하고 그 해결 방향과 방도들에 대하여 천명하였음
- 전원회의는 해당 의정의 결정서 초안과 다음 의정으로 토의하게 될 중요 문건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음

■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의 4일 회의 진행 및 김정은 위원장,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기념촬영(『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2020.1.1)

- 일자 및 장소: 2019.12.31,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음
-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지도하고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전원회의를 운영·집행하였음
- 전원회의에서는 네 가지 의정 중 ‘구성된 대내외 형세하에서 우리의 당면한 투쟁

방향에 대하여'라는 첫째 의정에 대해 서면 토론들을 통한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 되었음. 다음과 같은 결정들을 포함하여 총 여덟 가지 결정이 명시되어 있음

- 과학기술을 중시하며 사회주의 제도의 영상인 교육, 보건사업을 개선할 것임
-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세울 것임

■ '전원회의 기본 사상, 기본 정신은 정면돌파전'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 2020.1.3)

- 이번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지난 해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양양 기를 일어나갈 데 대한 당의 호소에 따라 인민은 영웅적 투쟁을 벌려 난국을 맞받아 전진 비약해나가는 주체조선의 기상과 잠재력을 과시하였음
 - 삼지연시 꾸리기 2단계 공사,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 건설을 비롯한 국가적인 대규모 중요 대상 건설들이 완공되거나 진척되었음
 - 당 정책 관철에서 본보기가 되고 있는 강원도의 호소에 따라 각 도들이 경쟁적으로 농산과 축산, 교육과 보건, 지방 공업 발전에서 뚜렷한 실적을 올리고 있음
- 이번 전원회의의 기본 사상, 기본 정신은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을 벌려야 한다는 것이며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기본 전선은 경제 전선임

■ 주요 공업 부문 노동계급의 당 전원회의 결정 관철 강조(『노동신문』, 2020.1.13)

-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2월 전원회의 소식에 접한 인민경제 주요 공업 부문 노동계급이 산악같이 떨쳐나섰음
-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석탄, 전력, 금속, 화학공업과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선행 부문, 기초 공업 부문을 추켜세우는 데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까.”
- 현 시기 주요 공업 부문에서의 생산 활성화 문제는 단순히 강제 몇 십만t, 전력 몇 십만kW를 더 생산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경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식 사회주의

가 승리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가 판가름되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임

-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에너지를 원료, 자재, 설비들이 주요공업 부문에서 나옴
- 주요 공업 부문에서 우리의 힘과 기술에 의거한 생산 공정의 주체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증산의 포성을 연속 다발적으로 올려나갈 때 원수들의 봉쇄 압박 책동에 통구멍을 낼 수 있음
- 우리가 적들의 악랄한 제재 봉쇄 책동을 무력화시키고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승리를 이룩해나가자면 첫째도 둘째도 인재와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해야 함
- 전 국가적으로 주요 공업 부문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 당 전원회의 과업 관철을 위한 각 도(직할시) 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노동신문』, 2020.1.15)

- 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각 도(직할시) 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020년 1월 13일과 14일에 진행되었음
- 보고들에서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옹위전에서 당 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결함들이 분석총화되었음
- 보고자들은 증산 절약과 질 제고 운동을 힘 있게 벌리며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였음
- 끝으로 보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 중앙의 웅대한 작전도 따라 조선로동당 창건 75돌이 되는 올해의 진군 보폭을 더 크게 내짚는 데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가자고 호소하였음

■ 전원회의 과업 관철을 위한 주요 공업 부문 쫓기 모임(『노동신문』, 2020.1.16)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쫓기 모임들이 인민경제 주요 공업 부문 단위들에서 진행되었고 쫓기모

임들에서는 결의토론들이 진행되었음

- 금속공업성 종업원 쉼기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주체 철 생산 공정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완비하면서 생산 능력을 에너르기 절약형으로 확대하는 사업에 중심을 두고 증산 절약 투쟁을 강화하며 철강재의 질을 높이도록 경제 조직과 지휘를 짜고들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화학공업성,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명간화학공장 종업원 쉼기 모임들에서 토론자들은 화학공업의 발전이자 자립경제건설이라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화학공업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으며 화학공장들을 정비 보강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인민 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충분히 보장할 결의들을 피력하였음
- 전력공업성 종업원 쉼기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새로운 동력 기지 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자연에너르기를 적극 개발 리용하며 생산된 전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밀고나갈 것이라고 말하였음
- 2.8직동청년탄광, 인포청년탄광을 비롯한 각지 탄광들의 석탄 생산자들도 쉼기 모임들을 열고 올해의 석탄 생산에서 양양을 일으켜 경제건설을 힘 있게 추동할 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기계공업성, 구성공작기계공장 종업원 쉼기 모임들에서 토론자들은 자체의 기술 력량을 강화하고 기능공 대렬을 늘이며 제품의 질을 높임으로써 사회주의 대건설 전투장들과 주요 공업 부문에 필요한 대상 설비들을 제때에 원만히 생산 보장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천리마타일공장, 평양화학건재공장에서 진행된 쉼기 모임들에서는 중요 대상 건설과 지방 건설에 필요한 세멘트와 여러 가지 고급 건재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데 대한 문제가 언급되었음
- 룡해운성, 평양철도국, 함흥객화차대 종업원 쉼기 모임들에서 토론자들은 주요 공업 부문의 생산 활성화에 필요한 물동량들을 제때에 실어 나르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수송 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며 현존 수송 능력을 최대

한 활용하여 제기되는 수송 수요를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중앙통신, 2020.2.1)

- 내각총리인 김재룡을 비롯한 내각 성원들이 참가하였고, 도, 시, 군 인민위원회 간부 및 각급 기관, 공장, 기업소 지배인들, 책임일군들이 방청과 화상으로 참가하였음
- 김재룡 내각총리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은 조선혁명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주객관적인 장애와 난관들을 심도 있게 분석 평가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결정적 대책을 뚜렷이 밝힌 불멸의 대강이며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대업을 앞당겨 실현해나갈 수 있게 하는 전투적 기치 이라고 언급하였음
- 또한 주요 공업 부문들에서부터 겹쌓인 난관을 정면돌파하고 실제적인 생산적 양양을 일으켜나가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교육, 보건사업을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방도적 문제들이 언급되었음
-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위기 관리 체계를 세우는 데서 나서는 과업들에 대하여 언급되었음
-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음

■ 당 정치국 확대회의 지도(중앙방송·중앙통신·『노동신문』, 2020.2.29)

-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정면돌파전을 전개하고 있는 관건적인 시기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되었음
- 회의에서는 당 건설과 당 활동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들과 당면한 정치·군사·경제적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비루스 전염병을 막기 위한 초특급 방역 조치들을 실시할 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었음
- 회의에서는 비루스 전염병을 막기 위한 국가적인 초특급 방역 조치들을 철저히 취하

고 엄격히 실시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음

- 회의에서는 경제조직사업과 방역사업을 짜고들어 올해의 투쟁 목표를 수행하고 인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킬 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었음

■ 당 중앙위 정치국회의 참석(중앙방송·중앙통신·『노동신문』, 2020.4.12)

- 일자 및 장소: 2020.4.11,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회의에 참가하여 사회하였고, 회의에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음
- 회의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의정으로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에 대처하여 인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 결정되었고 이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초기부터 초특급 비상 방역 조치를 가동하고 전국적으로 방어적 대책에서의 조직성과 일치성, 의무성을 보장함으로써 매우 안정적인 방역 형세를 유지하고 있음
 - 정치국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추이에 대처하여 비루스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엄격하게 실시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정치국회의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국무위원회, 내각 공동결정서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에 대처하여 우리 인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를 채택하였음

■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 채택 공동결정서 관련 '인민생활향상' 강조(『노동신문』, 2020.4.17)

- 이번에 소집된 정치국회의는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며 인민 생활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당의 혁명적 성격을 뚜렷이 보여준 중요한 계기로 됨
-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휘해나가야 함. 각급 당 조직들은 이번 정치국회의의 사상과 정신을 대중 속에 깊이 심어주고 그들을 공동

결정서 관철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 공세를 강도 높이 벌려야 함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에서 그 어떤 특수도 허용하지 말며 모든 국민들이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중앙지휘부의 지휘·통제에 무조건 복종하도록 사업을 계속 강화해나가야 함. 내각과 경제 기관들이 당 중앙의 의도에 맞게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을 드팀없이³⁾ 내밀도록 당적으로 적극 떠밀어주어야 함

■ 당의 노선 및 정책 관철 강조(『노동신문』, 2020.5.18)

- 정면돌파전이 맹렬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땅 그 어디서나 당 정책 결사 관철의 열풍이 일고 있음
 - 당 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받들어 사회주의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총 진군길에서 순천린비료공장이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창조물로 일떠선 것은 당 정책 절대 신봉자들의 결사 관철의 정신이 안아 온 결실임
- 정면돌파전의 기본 전선인 경제 전선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발휘하여 당 정책을 결사 관철하여야 함
 - 증산 절약 투쟁과 재자원화 사업을 벌리는 것을 비롯하여 당의 정책적 과업들을 관철하여야 함
 - 국내의 생산·연구·개발 단위와 협동하여 원료·자재·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부족되는 것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결해나가는 기풍을 확립하여야 함

■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2020.6.8)

-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회의에 참가하여 사회하였음. 회의에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음. 내각 부총리들과 일부 도 당위원장들, 위원회, 성 책임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음
- 정치국 회의에서는 나라의 자립 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한 세 가지 의정 중 첫째 의정으로, 나라의 화학공업을 전망성 있게 발전시키는

3) 저자 주: “조금도 틀림없다”의 북한말.

데서 나서는 당면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당 제7차 대회에서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한 후 그 사업을 본격화하여온 데 대하여 말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화학공업 전반을 추켜세우기 위한 당면 과업들을 제시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국내 원료와 자재에 철저히 의거하여 각종 화학제품들을 수요대로 중단 없이 생산해내는 에네르기 절약형, 로력 절약형, 자원 절약형, 기술 집약형, 개발 창조형의 다방면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주체화된 화학공업의 새 부문 구조로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또한 촉매기술, 촉매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물질적 토대를 갖추는 데 대하여 지적하였음

■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내각 전원회의 확대 회의 진행(『민주조선』, 2020.6.27)

- 화학공업 부문과 평양시 인민 생활에 나서는 문제들을 심도 있게 토의하였음
- 화학공업의 현 실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현존 화학공장들을 활성화하고 화학공업의 부문 구조를 완비할 데 대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함
 -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여 자립적인 화학공업의 근간을 새롭게 세우고, 화학공업 부문에서 단계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데서 나서는 대책들을 강구함
- 화학공업 부문의 생산 능력 확장과 생산 정상화를 힘 있게 추진시키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함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와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 능력 확장 공사를 빠른 기간에 끝낼 수 있게 화학공업성, 건설건설공업성, 기계공업성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의 설비와 장치물 보장사업에서 나서는 대책들이 취해짐
- 평양시인민위원회에서 평양 시민들의 살림집 문제 해결, 생활용수 문제 해결, 남새생산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강구됨

■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의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2020.8.14)

- 일자 및 장소: 2020.8.13,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에 참가하고 회의를 사회하였고,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음
- 회의에서는 큰물 피해를 빨리 가시고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데 대한 문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방역사업지휘체계를 완비할 데 대한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세계적인 악성 비루스 전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큰물 피해와 관련한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닫아매고 방역사업을 엄격히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였음

■ 당 중앙위 정무국 확대회의의 지도 및 함경남도 피해 지역 현지 요해(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2020.9.6)

- 일자 및 장소: 2020.9.5, 함경남도 태풍 피해 지역
- 김정은 위원장이 태풍 9호에 의한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자연재해복구전투 조직을 위한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를 피해 지역 현지에서 소집하고 지도하였음
- 회의에는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 성원들과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를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주요 부서 책임일군들, 박정천 총참모장을 비롯한 군 지휘성원들이 참가하였음
- 정무국 확대회의에서는 피해 복구 문제가 토의되었으며 이 지역들에 급파할 건설력량 편성 문제와 설계, 자재 수송 보장 문제를 비롯한 대책적 문제들을 연구 확정하고 결정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수송 부문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피해 복구 전투에로 부르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을 하달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함경남도 태풍 피해 지역을 현지에서 료해하였음

■ 당 군사위원회 제7기 제6차 확대회의 지도(중앙통신·『노동신문』, 2020.9.9)

- 일자 및 장소: 2020.9.8,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태풍 9호로 인하여 함경남도 검덕지구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9월 8일 오전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국가적인 피해 복구 대책을 토의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이 확대회의를 지도하였고, 회의에는 당 주요 간부들, 내각·성·중앙기관 성원들, 무력기관 지휘성원들, 큰물피해복구 중앙지휘부 성원들이 참가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적인 비상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피해 복구 사업을 10월 10일까지 결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함경남도 검덕지구의 태풍 피해 복구 투쟁과 관련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서에 친필 서명하였음

제2장

국내 매체 보도 동향

1. 한반도 및 국토환경

■ 김연철 “금강산의 컨테이너 숙소 340개 정비 필요성”(『국민일보』, 2019.12.2)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일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오랫동안 방치돼온 남측 컨테이너 숙소에 대한 정비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함
- 그는 “금강산 관광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숙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컨테이너를 사용했는데 지금 금강산 지역에 340개 정도 있다”며 “(이 시설물들은) 관광 중단 이후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됐다”고 설명하고 “사업자들도 초보적인 형태의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함
- 김 장관은 “금강산관광 문제에 대해 남북 간 입장차가 있다”며 “북한은 일관되게 철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에 대해) 우리는 정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정도”라고 말함

■ 北 김정은, 백두산 삼지연 읍지구 준공식 참석(『조선일보』, 2019.12.3)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백두산 입구 양강도 삼지연군 관광지구를 찾아 준공식에 참석하고 준공 테이프를 끊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일 보도함
 - 준공식에서는 준공을 축하하는 무도회와 축포 발사가 진행됨
 - 이날 준공식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총리,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 육군 대장

등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참여함

■ 김정은이 공들인 北 양덕 온천관광지구 완공 “군대가 창조한 기적”(『한국일보』, 2019.12.8)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을 들인 평안남도 양덕군의 온천관광지구가 착공한 지 1년여 만에 완공됨
 - 관광업은 북미 협상 교착 및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비해 북한 정권이 집중 육성 중인 산업 분야임
 - 이날 준공식에는 최 제1부위원장 외에도 박봉주 국무위 부위원장과 박광호·리수용·박태덕·박태성·김영철 등 노동당 부위원장, 김두일 평안남도당위원회 위원장,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을 비롯한 군 간부들, 군인 건설자 등이 참석함
 - 양덕온천은 삼지연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더불어 자력갱생에 기초한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관광업을 지목한 김 위원장이 완공에 심혈을 기울인 대표 관광지임
 - 제재 탓에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투자 확보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삼지연군은 2일 읍지구 준공식을 했고, 원산갈마의 경우 내년 4월 15일 완공을 목표로 함

■ 북, 백두산 밑 삼지연군을 ‘삼지연시’로 승격(『한겨레』, 2019.12.11)

- 북한에서 “인민의 이상향” “사회주의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라 불리는 백두산 밑 삼지연군이 삼지연시로 승격됨
 - ‘혁명성지’로 불리는 백두산을 끼고 있으나 규모가 가장 작은 도인 량강도에 기존 혜산시에 이어 두 번째 시가 생긴 것임
 - 정령엔 시 승격 조처와 함께 두 갈래의 행정구역 개편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삼지연의 기존 ‘노동자구’를 일반 ‘동’으로 전환함

■ 김정은, 순천인비료공장 건설현장 방문… 새해 첫 공식활동(『동아일보』, 2020.1.7)

-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7일 “김정은 동지께서 순천인비료공장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며 보도함
 - 김 위원장은 “순천인비료공장 건설은 정면돌파전의 첫 해인 2020년에 수행할 경제

과업들 중에서 당에서 제일 중시하는 대상들 중의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 새해 첫 지도사업으로 이 공사장부터 찾아왔다”고 말함

■ 보름째 잠행 중 김정은 원산관광지구 건설 일꾼에 감사 인사(『서울신문』, 2020.4.27)

- 북한 평양이 아닌 강원도 원산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7일 보도함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원산시 일대에 호텔, 오락시설, 수상공원 등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김 위원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관광사업임
 -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평양의 노동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 다음 날 조선중앙통신 등에 보도된 뒤 보름째 공개 행보를 보이지 않음

■ 김정은 20일 만에 등장한 순천인비료공장은 北 자력갱생 상징(『한국일보』, 2020.5.2)

- ‘사망설’에 휩싸였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평안남도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함
 - 통신은 이날 ‘정면돌파전의 첫 승리-자립경제의 발전 잠재력을 과시하는 새로운 비료공업기지 창설’ 제목의 ‘보도’를 발표, 순천인비료공장 건설의 막전막후를 자세히 소개함
 - 또 공장 안에 소나무, 전나무, 은행나무 등 40여 종 3만 5,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풍경을 가다듬었다고 전함

■ 김정은 핵카드 꺼내 든 다음 날… 北 “재활용 사업으로 힘 있게 벌자”(『서울경제』, 2020.5.25)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언급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 가운데 북한이 정면돌파전을 다시 강조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재자원회(재활용)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며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생산 과정에 나오는 폐기폐설물을 빠짐없이 회수하고 종류별로 선별해 새로운 생산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벌여야 한다”고 밝힘

- 신문은 “모든 근로자는 수매사업에 적극 참가해 생활 과정에 생기는 파지, 파수지, 파고무, 파유리를 비롯한 각종 폐물을 나라의 귀중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독려함

■ 북한 내각 “평양시민 ‘주택·물·채소’ 문제 해결” 중대 결정 채택(『매일경제』, 2020.6.27)

○ 북한 내각이 수도 평양 시민들에게 양질의 주거환경과 생활용수, 채소를 제공하기 위한 중대 결정을 채택함

- 27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내각이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 결정서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고 보도함
- 먼저 참석자들은 “건설을 완공하지 못한 살림집(주택)들의 미진된 공사를 올해 말까지 무조건 끝내며 불비한 살림집들에 대한 보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음. 오래된 집에 대한 개건 계획도 연차별로 세우기로 함
- 평양에 깨끗한 생활용수를 보급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됨
- 신문은 “평양시민위원회에서 몇 달 어간에 심하게 파괴된 옥내 상수관 교체 공사를 힘 있게 추진하며 수원지들과 상수시설들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요해(파악)하고 불비한 설비들과 미흡한 개소들을 단계별로 퇴치하여 물 보장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하였음
- 남새(채소)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양수장 수십 개소를 건설, 관수 체계를 복구하기로 함. 이를 위해 국가계획위원회와 농업성, 건설건설공업성, 기계공업성, 금속공업성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기로 함

■ 14분 만에 집 한 채 ‘뚝뚝’ 평양 시간 언급한 북한, 뭘길래?(『매일경제』, 2020.9.24)

○ 북한이 (평양)수도당원사단의 태풍 피해 복구 작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과거의

이른바 ‘평양 시간’을 다시 띄우고 있음

-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평양 시간이 흐른다’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평양 시간에 준해서 모든 것을 창조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14분에 한 세대의 주택을 조립하는 놀라운 평양 속도를 창조하는 투쟁의 앞장에 섰던 우리의 수도당원들”이라며 황해도, 함경도 등 수해 지역에 파견된 수도당원사단을 치켜세웠음
- 여기서 말하는 ‘평양 시간’은 1976년 북한 소설가 최학수가 발표한 동명의 장편소설 제목에서 따온 말이며, 소설은 6·25전쟁 이후 잿더미가 된 평양을 재건하는 건설 과정을 그렸는데 만난 속에서도 7,000가구를 지을 노동력과 자금으로 2만 가구 주택을 지었다는 속도전의 상징임

■ 착공 18일 만에 147세대 주택 완공… 김정은 “충성심의 결정체” 만족(『아시아경제』, 2020.10.15)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남도 검덕지구에 이어 동해안 태풍 피해 복구 현장을 연달아 시찰하고 건설사업을 진행한 평양 당원사단과 군을 격려함
 - 함경도는 올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연달아 상륙하면서 큰 피해를 본 지역임. 앞서 김 위원장은 친필 서한을 공개하며 평양 당원사단이 함경도 피해 지역 복구 지원에 나서 달라고 요청한 바 있음
 - 통신은 “9월 12일부터 29일까지 착공 18일 만에 함경남도 흥원군 운포로동자구, 경포로동자구와 리원군 학사대리에 147세대의 현대적인 문화주택을 새로 건설했다”고 전함
 - 현지를 둘러본 김 위원장은 평양당원사단과 군의 건설 활동에 만족감을 드러냈음. 또한 주거 지역 내 도로를 흙 경화제로 포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주택마다 과일나무를 많이 심고 산림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강조함

■ 이인영 “北 철도 연결·개별관광, 반드시 가야 할 길”(『서울경제』, 2020.10.21)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철도 연결과 북한 개별관광을 두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재차 강조함

- 이 장관은 21일 통일연구원 주최 국제 심포지엄 ‘신(新)한반도 체제와 평화 경제’ 영상 축사를 통해 “남북 정상에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북한 개별관광 이행 추진, 남북 신뢰를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외면하지 않아야 할 책무”라고 밝힘

■ 북한, 태풍 피해 입었던 함경도서 새집들이 행사 열어(『헤럴드경제』, 2020.11.7)

- 조선중앙통신은 함경북도 김책시 춘동·은호·석호리와 함경남도 이원군 학사대리 등 피해 지역에서 복구를 마치고 살림집 입사(입주) 행사를 각각 진행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최휘 제1수도당원사단장, 정상학 제2수도당원사단장과 리정남 함경남도당 위원장, 김철삼 함경북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한 행사에서 주민들에게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전달됐다고 전함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태풍 피해 발생 직후인 지난 9월 5일 직접 함경도 지역에 가서 당 정무국 회의를 진행함. 김 위원장은 수도당원사단에 친필 서한을 보내 복구 작업 참여를 독려할 정도로 수해 복구에 신경을 썼음
 - 김 위원장은 10월에도 함경남도 태풍 피해 지역을 시찰하며 설계와 공법에 어긋나는 ‘날림식’ 건축을 엄하게 다루겠다고 경고함

2. 기상

■ 北에도 날씨 앱이 있을까?... 다양한 날씨 앱 존재(『헤럴드경제』, 2020.1.4)

- 북한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가 최근 “기상수문국 기상정보교류소에서 기상정보자료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손전화 기상정보봉사체계 ‘날씨’(2.0)를 개발하고 광범히 보급하고 있다”고 홍보함
 - 4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날씨(2.0)는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에서 구동되는 앱으로, 주요 지역의 현재 날씨와 단기·중기 예보를 비롯한 기상 자료를 15분 간격으로 제공함. 또한 각 지방의 날씨별 기온 변화 과정과 강수량은 물론 해비침률(일조율)과 지중온도 등 구체적인 기후 정보를 도표나 분포도 형식으로 제시함

- 대외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이 소개한 ‘농업기상’(1.0)은 농업 기상 예보에 더해 농작물 생육 예보와 농업 기상 상식을 함께 서비스 제공함. ‘해양기상’(1.0)은 태풍 등 해상예보뿐 아니라 표층 수온과 심층 수온, 염도, 해류, 해수위, 등온구역 등을 분석함
- 아울러 북한 국가망에 연결된 컴퓨터라면 종합 기상 정보 프로그램인 날씨(1.0)와 해양 예보 프로그램인 푸른 바다(1.0)를 활용하거나 기상 정보 홈페이지인 기상정보(2.0)에 접속해 날씨를 알 수 있음

■ 평양도 이상기온… “눈 내려야 할 小寒에 비”(『조선일보』, 2020.1.8)

-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절기 중 가장 춥다는 소한(小寒)을 맞은 평양에 비가 내림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평양에 비가 내린다”며 “강산에 흰 눈이 쌓여 있어야 할 한겨울에 비가 내리고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다니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다”고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평양은 소한(小寒)을 전후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데 전날인 7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상 1도를 넘겼음
 - 신문은 “올해 들어와 처음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 6일은 소한 날이었다”며 “한 해 중에 제일 추운 날 중의 하나로 알려졌온 소한 날에 비가 오는 것과 같은 현상은 매우 보기 드물다고 한다”고 전함

■ 북한군, 남한 예보 듣고 빨래 걷는다?… 北에도 ‘날씨앱’ 있다(『한국일보』, 2020.8.9)

- 9일 북한 기상수문국(기상청)은 5호 태풍 ‘장미’의 북상으로 (한반도에 걸쳐 있는)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이동해 전날부터 북한 내륙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 전함
 - 그러면서 10일까지 북한의 남강·임진강·예성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에 100~150mm, 개성과 강원 내륙 일부는 300mm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함
 - 북한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 보도에 따르면, 기상수문국은 지난해부터 ‘날씨 2.0’

앱을 만들어 주요 지역의 현재 날씨와 단기·중기 예보 등을 제공 중임. 앱을 통해 날씨 정보가 약 15분 간격으로 업데이트됨. 또 각 지역의 강수량과 일조율 등도 도표나 분포도 형식으로 알려줌

- 김 위원장은 태풍 ‘링링’이 상륙했던 지난 해 9월 당 중앙군사위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해 “자연 재해 발생 시 농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상 예보 활성화 등을 주문함
- 그러나 기상관측 시설 노후화로 정확한 예보를 기대하기 어렵고, 여름철 게릴라성 폭우 등 기상이변이 늘면서 예보가 아예 빗나간 경우도 잦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게 대북 소식통들의 전언임
- 북한의 예보 적중률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움. 윤기한 기상청 통보관은 “북한은 자체 기상 관측 위성이 없어 중국·러시아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할 수밖에 없고 각종 첨단 장비도 도입하지 못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남측 예보 기술보다 20~30년가량 뒤쳐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함

■ 적중률 90%라는 북한 기상청 ‘기상수문국’ 실상은?(『국민일보』, 2020.8.15)

- 평양에 위치한 기상수문국은 기상 관측은 물론 수문·해양 관련 업무도 담당하면서 ‘기상’에 ‘수문’이라는 명칭이 더해짐
- 무분별한 산림 벌채와 낙후된 배수시설 등으로 물난리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기상수문국에 공을 들이고 있음
- 이달 초 황해북도 은파군의 경우 집중호우를 대비했음에도 여의도 2배 면적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음

■ 北 “황사에 코로나가…” BBC “경보 발령에 평양 거리 텅 비어”(『서울신문』, 2020.10.23)

- 북한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황사에 유해물질과 비루스, 병원성 미생물이 포함됐을 우려가 있다며 22일 주민들에게 집에만 머물러달라는 황사주의경보를 발령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황사에 대처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제목의 기사

를 통해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계속 전파되는 현 실태와 공기 등에 의해서도 악성 바이러스가 옮겨질 수 있다는 자료에 비춰볼 때, 황사 현상을 각성 있게 대하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함

- 리영남 기상수문국(기상청) 부대장도 전날 조선중앙TV에 출연해 “황사나 미세먼지에는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을 비롯한 유해물질들과 공기 중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를 포함한 병원성 미생물들도 섞여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함

3. 대기 및 에너지

■ 북, 김정은이 “한심하다” 질책했던 어랑천발전소 팔향댐 준공(『경향신문』, 2019.12.5)

- 북한이 공사 진척이 늦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질책을 들었던 어랑천발전소 팔향댐을 지난 4일 준공함
 - 앞서 『노동신문』은 지난 10월 김 위원장의 현지 시찰 15개월 만에 팔향댐이 ‘고속’ 완공되어 준공식은 2개월 만에 진행됨
 -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어랑천발전소를 방문해 댐 건설을 시작한 지 17년이 되도록 총 공사량의 70%밖에 진행되지 않았으며 “도대체 발전소 건설을 하자는 사람들인지 말자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한심하다”며 강하게 질타함
- 이날 준공식에는 대북제재 속에서 완공한 댐 건설을 선전하려는 듯 경제 관련 고위 간부들이 대거 참석함
 -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 오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동정호 부총리, 리히용 함경북도 당위원장, 장혁 철도상, 권성호 국가건설감독상 등이 참여함

■ 북한도 미세먼지에 몸살 앓아 전조등 켜고 마스크 끼고(『세계일보』, 2019.12.11)

-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넘어오면서 북한이 이틀째 몸살을 앓고 있음
 - 북한 조선중앙TV는 11일 평양을 비롯한 서해안 여러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오늘 나타난 지속적인 안개 현상은 2017년 1월 2일 이후 또다시 나타난 드문 기상 현상”이라고 분석함
-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10일 날씨 예보에서 “서해안 일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당부함

■ “대북제재로 北 석탄, 철광석 산업 큰 피해”(YTN, 2019.12.31)

-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12월호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산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분석하며, 국제사회의 수출 제재가 북한의 수출용 무연탄과 철광석 생산업체, 그리고 연관 업체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다고 전함
 - 다른 제재 품목인 의류나 수산물 등 북한 내수 시장에서 수출 물량을 흡수하고 있지만 무연탄과 철광석은 북한 내 수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석탄과 철광석을 원료로 사용하는 내수 기업들은 그만큼 이 품목들을 손쉽게 구하게 됐는데도, 생산량 증가 효과는 미미하다고 덧붙임

■ 평양도 난방 끊겨 덜덜 떠다(『조선일보』, 2020.1.4)

- 북한의 전력과 식량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짐
 - 북한 내부 소식에 정통한 소식통은 3일 “북한 발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수력발전소가 겨울에 가동을 멈추고 석탄 부족과 설비 고장 등으로 화력발전소 가동률도 떨어지면서 전력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평양도 지난 12월부터 하루 3~5시간 이상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함
 - 이 소식통은 “북한은 화력발전을 하면서 온수를 함께 생산해 난방용으로 공급하는데, 최근 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난방도 끊기는 경우가 늘었다”고 전함. 소식통은 “유엔 제재로 북한산 석탄 수출 길이 막히면서 내부 화력발전용으로 석탄 공급을 돌렸지만, 북한 내 석탄 가격은 수출가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석탄 채굴을 위한 설비 구입 등을 제때 하지 못하게 됐고, 이 때문에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전함

- 여기에 가뭄 피해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실패로 식량난도 심각한 것으로 전해짐

■ 대북제재 장기화 대비... 北 “석탄 철도 독려... 절약해야 애국자”(YTN, 2020.5.7)

- 대북제재 장기화 속에서 북한이 석탄, 철도 등 기간산업 독려와 함께 절약을 강조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선행 부문’ 4대 산업인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에서 보다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보도함
 - 또 절약 정신을 체질화해야 한다면서 한 와트의 전기, 한 방울의 물, 한 조각의 철판도 모아 나라 살림살이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애국자라고 주장함

■ ‘만성적 전력난’ 시달리는 북한 “전기 절약하자”(『세계일보』, 2020.8.21)

- 만성적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전기절약사업을 강조함
- 송·배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
 - 전력공업성은 3kV 배전선의 전압 단계를 높이고 있으며, 이에 맞춰 고압전동기를 개조하는 사업을 진행 중임
 - 태양광과 풍력 등 대체에너지와 이들 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할 발전 체계 확립에도 주목하고 있음

■ 제재 맞서 석탄을 석유로 바꾸겠다는 북한 성과는 아직(『국민일보』, 2020.8.25)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석유 금수 제재를 겪는 북한이 탄소하나(C1)화학공업에 관심을 쏟고 있음
 - 탄소하나화학공업은 북한에 풍부한 자원인 석탄을 가공해 인조석유와 석유화학제품 등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뜻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수년 전부터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탄소하나화학공업 발전을 강조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2016년 5월 7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하며 “석탄 가스화에 의한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고 갈탄을 이용하는 석탄 건류 공정을 꾸리며 회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소다공업을 완비해 메타놀과 합성연유(석유), 합성수지를 비롯한 화학제품 생산의 주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말함

■ 북한, 대북제재로 원유 반입 어려워지자 담당 조직 축소(『세계일보』, 2020.8.31)

- 북한 내각 산하의 원유공업성이 ‘국’(局) 조직으로 축소됨
 - 31일 조선중앙TV는 강원도 철원군 피해 지역 지원 소식을 전하며 원유공업국 여단이 주택 건설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원유공업성이 원유공업국으로 축소된 것으로 보임

4. 수자원

■ “北 주민 990만 명 식수 위생 지원 필요”(『서울신문』, 2019.12.3)

- 2017년 기준 북한에서 안전한 식수를 확보한 주민 비율이 67%로 2000년(69%) 이후 낮아진 것으로 확인됨
 - 식수 위생 지원 필요 인구만 9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 국제인도주의 비정부기구(NGO)는 2일 북한 식수 위생 상황을 공개해 “식수 및 위생 프로그램을 통해 상수도 시스템을 구축한 가정과 시설에서 설사 등 수인성 질환이 44% 감소했다”며 열악한 상황을 전함

■ 北, 신종 코로나 유입 방지 위해 수질검사(YTN, 2020.2.6)

-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북한 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하천과 호수 등 수원지의 수질 분석에 착수함
 -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중앙비상방역지휘부가 음료수로 사용하는 강과 하천, 호수들의 수질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도함

■ 北 “신종 코로나 관련 압록강 등 수질검사 양호”(OBS, 2020.2.11)

-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방역을 위해 두만강과 압록강, 대동강 등 주요 수원을 검사한 결과 모두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
 - 조선중앙통신은 “측정 대상 지역 3곳의 pH와 산화도, 용존산소농도 등이 국가 환경보호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보도함

■ “北, 활성탄 이용한 ‘우리 식’ 수질검사법 개발”(YTN, 2020.3.19)

- 북한이 국경에 있는 강과 하천을 통한 ‘코로나19’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수질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체 수질검사법을 개발했다고 밝힘
 - 북한 대북 선전매체 메아리는 의학연구원 의학생물화학연구소에서 전국의 강과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임의의 장소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술을 확립했다면서, 활성탄을 활용한 물 시료 농축 방법 지도서를 작성하고 전국적인 화상 강의도 진행했다고 전함

■ 정부 ‘단전’ 응수, 개성주민 식수 끊는 효과(『동아일보』, 2020.6.17)

- 정부는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50분 만에 개성공단으로 가는 송전을 차단함
 - 이에 따라 개성시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던 개성정배수장의 가동이 멈춘 것으로 알려짐. 북한의 사무소 폭파에 정부는 단전, 단수로 응수한 것임
 -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경 개성으로 우리가 보내던 전기를 차단하여 개성 시민에게 공급된 하루 1만 5,000t의 식수가 단수되었음
 - 정부는 지금까지 개성 정배수장용 송전에 대해 “인도적 지원 등의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이날 폭파 이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임

■ 경기도, 임진강 수자원 남북 공동관리 전담 TF 출범(『한겨레』, 2020.9.22)

- 경기도는 임진강 수자원의 남북 공동 이용 방안을 모색하고 협상을 총괄, 조정하는 전담 테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22일 밝힘

- TF는 홍수 및 수해 예방, 가뭄 해결을 위한 전력 지원 등을 위해 실현 가능한 남북 간 수자원 공동 이용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쪽과의 협상을 총괄하는 구실을 맡으며, 대북협상총괄반, 홍수예방지원반, 전력지원반, 경보체계지원반 등 4개의 실무반으로 구성됨

5. 산림

■ 백두산 삼지연에서 금강산 고성까지… 위성 데이터로 본 북한 산림 훼손 실태(YTN, 2019.12.30)

- 주로 난개발로 숲이 손실되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계단밭 등 농지 조성으로 인한 산림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짐
 - 2천년 대 들어 내륙뿐 아니라 북부 접경지대인 자강도와 양강도의 손실이 두드러지다가 김정은 국무 위원장 집권 이후부터는 함경남북도에서 숲이 가장 많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들어 삼지연 공항 부근의 산림 손실이 가장 컸고, 백두산의 일부인 정일봉 인근, 그리고 리명수역 부근도 숲이 줄어든 것으로 보임
 - 고성군 부근의 산림 손실이 가장 두드러졌고, 금강군 주어봉 인근 등의 숲도 훼손된 것으로 추정됨

■ 경기도의 대북 교류… 유엔 허가 받고 개성 관광·묘목사업 추진(『중앙일보』, 2020.01.13)

- 경기도가 민간단체와 손을 잡고 개성관광 사전 신청을 받음. 북한 황해북도 개성시 개풍동 일대에 묘목을 심어 황폐한 북한 산림을 복원하는 ‘개풍양묘장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함
 - 주요 사업은 개성관광 실현, 개풍양묘장 조성, 북측 농촌개발 시범사업 대북제재 면제 추진, 한강하구 남북공동 수역 활용, DMZ 국제 평화 지대화 추진 등 5개임
 - 이를 위해 민간단체와 손잡고 ‘개성관광 사전 신청 서명운동’을 추진함
 - 북한 개성시 개풍동 일대 9ha에 묘목 생산 등 산림 녹화사업 전초기지를 만드는

‘개풍양묘장조성사업’도 속도를 높일 것임

- 지난 해 12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물자 152개 품목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음

■ ‘숲으로 남북 잇는다’ 산림협력센터 준공… 북한 산림 복구 묘목 200만 개 생산(『경향신문』, 2020.6.3)

- 북한 산림 복구를 위한 묘목을 생산하며 남북 산림 협력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남북산림협력센터’가 문을 열었음
 - 남북산림협력센터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성과 평양 등 북측 지역과 가까운 곳에 산림협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건립이 추진되었음
 - 파주시 탄현면 17.4ha 부지에 4,020m² 크기의 스마트양묘장과 552m² 규모의 관리동 1동을 갖추고 있음
 - 센터 내 스마트양묘장에서는 현재 2022년 첫 출하를 목표로 낙엽송과 소나무, 자작나무 등 온대 중북부 기후와 북측 산림 복구에 적합한 수종의 묘목 200만 그루를 기르고 있음

■ 한강하구·DMZ 다음은 남북 산림 협력… 통일장관 ‘쟁걸음’(『머니투데이』, 2020.6.3)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3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와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기후 변화에 맞서 남과 북이 함께 대응해나가야 한다”며 “산림 협력이 그 열쇠”라고 밝힘
 - 김 장관은 이날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 준공식 축사에서 “2018년에는 산림협력 분과회담이 두 차례나 열렸고, 합의의 이행으로서 산림병해충 공동 방제, 양묘장 현장 방문 등이 이뤄지기도 했다”고 상기시킴
 - 산림회담은 2018년 9·19 평양정상회담 후 첫 남북 간 분과회담임
 - 남북 당국은 그해 10월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연 제2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북한 양묘장 현대화 등에 합의함

■ 北 산림 복원 지원 위해… 묘목 2백만 본 집중 관리(MBC, 2020.6.22)

- 남북관계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지만 이달 초 문을 연 남북산림협력센터는 한반도 산림 복원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고 있음
 -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될 날을 기다리며 200만 본에 달하는 묘목을 키우고 있음
 - 개암나무, 너도밤나무 등 스마트양묘장에서 자라는 묘목은 북한 기후에 적합한 10개 수종, 200만 본은 남북 산림 동질성을 확보하겠다는 국립품종관리센터가 인증한 종자들임
 - 2022년 60만 본이 먼저 출하되는데 북한이 계속 거부감을 보인다면 비무장지대나 국유림에 옮겨 심을 계획임
 - 내년 추가로 100만 본을 양묘장에 심는 등 산림 협력 가능성엔 지속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힘

■ 김정은 ‘산림녹화’ 외쳤지만, 10년 만에 평양 면적 산림 사라져(『조선일보』, 2020.7.23)

- 북한의 산림 면적이 지난 30년간 약 90만ha 줄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21일 밝힘
 - 지난 10년 사이는 거의 평양 면적(2629km²·26만ha)의 산림이 사라져버린 것으로 나타남
 - FAO는 이날 ‘세계 산림자원 평가 2020’ 보고서를 발표했고, 올해 북한의 산림 면적은 603만ha이며 2010년 624만 2,000ha에서 21만ha가 줄어들었음
 -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산림 면적은 10년 주기로 수십만ha씩 계속 감소하고 있음
 - FAO가 집계를 시작한 1990년에는 691만 2,000ha였지만 2000년에는 645만 5,000ha, 2010년에는 624만 2,000ha, 올해는 603만 ha로 30년 사이 거의 90만 ha가 사라짐
 - 전문가들은 산림 황폐화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사회·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함. 한국 국립산림과학원은 남북 산림 협력을 추진하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런 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VOA는 전함

6. 식량

■ VOA “FAO, 北 내년에도 식량 위기 겪을 거로 전망”(『국민일보』, 2019.12.6)

-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이 내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예상했다고 6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함
 - FAO가 지난 4월 북한 현지에서 세계식량계획(WFP)과 공동으로 실시한 긴급 식량 안보 평가에 따르면 북한 인구(약 2,500만 명)의 약 40%인 1,010만 명이 식량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 FAO는 올해 북한이 연초의 강수량과 관개용수 부족에 이어 8~9월 발생한 홍수로 주요 작물 수확량이 최근 5년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함

■ 광물 생산 40% 줄었지만 곡물 사유화로 쌀 생산↑(『매일경제』, 2019.12.13)

- 국제사회 제재로 2018년 북한의 핵심 수출 품목인 석탄·철광석 생산량이 2년 전과 비교해 각각 40% 가까이 급감함
 - 광물자원은 수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음. 2016년에는 석탄 생산량이 310만 6,000t, 철광석 생산량은 52만 4,000t에 달했지만 2년 새 생산량이 각각 180만 8,000t, 32만 8,000t으로 급감함
 - 지난해 곡물 생산량은 456만t으로 전년(470만t)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쌀 생산량은 2017년 219만t에서 소폭 증가한 220만t을 기록함

■ “쌀 지원 거부” 北 올해 쌀 생산량 224만t 지난해보다 4만t 증가(『세계일보』, 2019.12.16)

- 농촌진흥청은 올해 북한 지역 기상과 병충해 발생 및 비료 수급 상황, 위성 영상 분석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해 올 한 해 북한에서 생산된 식량 작물은 총 464만t으로 지난해(455만t)보다 9만t가량(약 2%) 늘었다고 16일 밝힘
 - 농진청의 ‘2019년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북한 지역 쌀 생산량은 224만t으로 지난해보다 4만t(1.8%)가량 더 늘었음
 - 옥수수는 지난해보다 2만t(1.3%) 늘어난 152만t에 불과함. 5~7월 가뭄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됨

- 감자 등 서류는 지난해 대비 3만t 증가한 57만t이었고, 콩 등 두류는 파종 이후 생육 초기 가뭄과 꽃눈 분화기 저온 및 태풍 ‘링링’ 등의 여파로 지난해와 같은 15만t 생산함

■ 식량난 北, 연말 쌀값 급락 자급자족 어려워 지속 힘들 듯(『문화일보』, 2020.1.3)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비한 ‘자력갱생’ 및 ‘정면돌파’론을 제기한 가운데, 북한 주요 도시의 쌀값이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20% 이상 하락함

■ 국제기구 “北 식량난 최악”이라는데 김정은은 “전례 없는 풍년” 자랑(『조선일보』, 2020.1.3)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지난 한 해 북한의 농작물 생산이 ‘최고 수확 연도를 돌파하는 전례 없는 대풍(大豊)’이라고 평가함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들이 북한의 식량 상황이 ‘최악’이라고 평가한 것과 대조됨
 - FAO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의 2019년 작물 생산량이 지난 5년 평균에 못 미칠 것이라면서, 북한을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함
 -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 농업 모니터링 그룹도 ‘조기경보 작황 모니터’ 2019년 12월호에서, 북한의 2019년 곡물 수확량이 평균 이하라고 밝힘
 - 미국 농무부도 지난해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9년 북한의 쌀 생산량을 136만t으로 전망함

■ 北 신문 “쌀독 비면 동냥해야… 자급자족 필요”(YTN, 2020.1.10)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나라의 쌀독이 비면 국가도 남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에 없으며 식량 자급자족을 촉구함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노동장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와 농업을 강조한 이후, 북한 매체들은 연일 곡물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함

■ 유엔식량기구 “北, 식량 안보 고위험국에서 벗어나… 겨울 식량 사정은 악화 우려”(YTN, 2020.1.24)

- 유엔식량농업기구 FAO는 북한을 식량 안보가 위태로운 ‘고위험국’에서 적절한 감시가 필요한 ‘감시국’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힘
 - 다만 북한이 최근 가뭄과 태풍, 홍수 등의 악천후로 곡물 생산 부족을 겪고 있다며, 겨울철 식량 사정이 나빠졌을 수 있다고 우려함

■ 식량난 시달리는 북한, 중국서 옥수수 7,600톤 수입(『조선일보』, 2020.2.5)

- 북한이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옥수수 7,600톤(t)을 수입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함
 - 같은 기간 중국에서 수입한 쌀은 8,500t임
 - 한편 지난달 미국 농무부(USDA) 산하 해외농업국(FAS)은 ‘2018~2019 북한 식량 작물 상황’ 보고서에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년간 북한이 생산한 곡물량을 전년 대비 12% 감소한 485만 2,000t으로 추정함
 - 구체적으로 쌀은 157만 3t에서 137만 8,000t으로, 옥수수는 220만t에서 187만 6,000t으로 감소함. 감자 외에 밀과 보리, 콩 생산량도 모두 줄었음
 - 보고서는 “장기간의 가뭄과 비정상적으로 높은 온도, 홍수 때문에 생산량이 하락했다”며 “제한된 농업 투자도 상황을 악화했다”고 분석함

■ 위성으로 확인한 북한 논 면적 ‘남한의 76%’ 쌀 생산량은 60% 수준 그쳐(『한국일보』, 2020.2.25)

- 인공위성으로 처음 확인한 북한의 벼 재배 면적이 남한의 4분의 3 수준으로 조사됨. 하지만 쌀 생산량은 60% 수준에 그쳐 농업 생산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북한 벼 재배 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벼 재배 면적은 55만 7,016ha(헥타아르)로 집계되었음. 시도별로는 황해남도(26.2%), 평안북도(19.3%), 평안남도(14.3%)순으로 벼 재배 면적이 넓었음
- 북한의 벼 재배 면적은 남한의 76.3% 수준임. 이날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국내 논 면적은 83만ha였으나, 이 중 벼 재배 면적은 72만 9,829ha임. 논은 물을 채우고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해 벼가 아닌 작물을 키우기도 함
- 다만 북한의 쌀 생산량은 남한의 4분의 3에 미치지 못함. 농촌진흥청이 북한 지역의 기상과 병충해, 국내의 기관 작황 자료, 위성 영상 분석 등을 종합해 추정한 지난해 쌀 생산량은 224만 톤임. 이는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374만 4,000톤)의 59.8% 수준임

■ 세계기상기구 “북한 천만 명 식량 원조 시급 이상기후 영향”(KBS, 2020.3.12)

-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가 북한 주민 약 천만 명이 식량 원조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함
 - 세계기상기구는 10일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1~3월 북한 강수량이 56.3mm에 그치는 등 2년 연속 건조한 환경과 불규칙한 기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음
 - 앞서 유엔 식량농업기구도 5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재지정함

■ 미 농무부 “올해 북한 쌀 수확량, 26년 만에 최저” 전망(『서울신문』, 2020.3.18)

-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이 2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미국 농무부가 전망함
 -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서비스(ERS)가 최근 발간한 ‘쌀 전망 보고서: 2020년 3월’에 따르면 북한의 올 한해 쌀 수확량은 136만t으로 전망되며, 1994년 약 150만t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북한 코로나19로 곡물 수입 영향 식량 86만 톤 부족할 듯”(『아주경제』, 2020.5.19)

○ 정부는 북경의 국경 폐쇄 등으로 곡물 수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 규모를 86만t으로 추산함

-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도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곡물 생산량에 대해선 “코로나19 영향으로 보기에 는 시간이 너무 단기간”이라고 말함
- 당국자는 현재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이 코로나19 시기와 겹치지 않아 직접적인 상관관계로 보기에 는 어렵다고 말함.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북한의 국경 폐쇄로 곡물 수입에는 당연히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봄

■ 北, 경제난에 ‘천금같은 5월’ 모내기 독려… “올해 86만t 식량 부족”(YTN, 2020.5.20)

○ 코로나19와 제재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북한이 5월 농번기를 맞아 연일 모내기를 독려하며 식량 증산에 힘을 쏟고 있음

- 하지만 올해도 심각한 식량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옴

■ 北 육류 섭취량, 전 세계 최하위 수준… 南의 7분의 1(『서울신문』, 2020.6.3)

○ 북한 주민들의 육류 섭취량이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고 북한 전체 인구의 48%가 영양결핍 상태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됨

- 북한 주민의 평균 육류 섭취량은 남한의 7분의 1 수준으로 조사됨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미국 존스홉킨스대학·‘개선된 영양을 위한 국제연합 (GAIN)’이 지난 1일 공동으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낸 통계 자료인 ‘식량 체계 계기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북한 전체 인구의 48%가 영양결핍 상태로 나타났음
- 북한 25세 이상 성인 1인당 하루 육류 섭취량도 2017년 기준 5.65g으로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음. 한국의 경우 41.77g으로 북한보다 7배 이상 많음
- 또한 북한 가임기 여성 3명 중 1명은 빈혈이 있었고 성인의 1인당 하루 우유 섭취량은 3.35g으로 한국의 51.67g에 비해 15배 이상 차이가 있음

■ 우리 식량 5만 톤 거부했던 북한, 중국서 80만 톤 식량 지원 받아(『매일경제』, 2020.6.22)

- 북한이 최근 중국으로부터 80만에 이르는 식량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짐. 앞서 북한은 작년 6월 우리 정부가 내민 5만에 이르는 식량은 거부했음
 - 『중앙일보』의 22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지난 21일 “중국이 최근 북한에 80만에 이르는 식량을 지원했다”며 “이번 지원은 배편으로 북한 남보광(원문대로)에⁴⁾ 도착했다”고 밝힘

■ 탈북 외교관 “코로나19에 타격 입은 北, 간부 가족에 쌀 배급 중단”(『아시아경제』, 2020.7.2)

-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자인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북한이 고위직 가족 쌀 배급을 중단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고 2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함
 - 고 전 부원장은 “코로나19로 북한 체재의 내구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북·중국경 폐쇄가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함

■ 北 곡창지대 황해도 가뭄 극심… 식량난 심화 가능성(『문화일보』, 2020.7.8)

- 북한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극심한 가뭄이 올해에 심화하고 있음
 - 특히 최대 곡창 지대인 황해도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식량난까지 겹쳐 북한 경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 8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이 지난 6월 22~28일의 위성 사진을 토대로 분석한 한반도 주변 전 세계 가뭄 지수(Drought Index) 분포도에서 황해도를 비롯한 중부지대 곳곳이 가뭄의 정도가 심각으로 나타남
 - 올해 4~6월 12주치 자료를 보면 가뭄 상황 악화를 나타내는 점들은 4월 첫 주부터 5월 둘째 주까지 빈발하다 2주간 사그라든 후 6월부터 다시 북한 전역을 뒤덮음

4) 저자 주: 남포항의 오자로 여겨짐.

■ 식량난 北 “먹자판 벌이지 말라”(『조선일보』, 2020.7.13)

- 북한 당국이 최근 여성들에게 “먹자판을 벌이지 말라”며 식량 절약을 강조함
 - 대북제재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제난을 겪는 북한이 가정 내 식단까지 강제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는 것이란 관측이 나옴
 - 북한은 지난 4월부터 평양 시민에게 3개월간 배급을 주지 못하고 일부 대도시에서도 아사자가 나오는 등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짐

■ “北 인구 48%가 영양부족 최빈국 아이티와 비슷”(『매일경제』, 2020.7.14)

- 북한 전체 인구의 48%가 영양부족에 노출됐고, 북한 수준의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이티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등 5개 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 상태’ 보고서가 13일 공개됨. 북한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전체 인구의 47.6%가 영양부족 상태에 놓여 있음
 - 전 세계 최빈국으로 꼽히는 아이티는 같은 기간 55%에서 48.2%로 전체 인구 대비 영양부족 비중이 소폭 낮아져 북한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

■ FAO, “코로나로 북한 주민 1,000만 명 식량 부족 상태” 전 인구의 40% 수준(『중앙일보』, 2020.7.18)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북한의 식량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힘. 1,000만 명 이상이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추산함
 - FAO는 17일 발간한 ‘북한·신종 코로나 인도적 대응’ 보고서에서 올해 말까지 북한의 식량 부족에 1,345만 달러(약 162억 원)의 대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봄. 수혜 대상을 67만 6,000명으로 예상했을 때 필요한 비용임
 - FAO는 보고서에서 북한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1,01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고 추산했으며, 코로나19가 북한의 고질적인 가뭄과 홍수와 맞물려 식량 부족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분석함

■ 김정은, 이번엔 닭공장도 “인민들 식생활 문제 해결 기대”(『국민일보』, 2020.7.23)

-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황해북도 황주군 광천리에 새로 건설하고 있는 닭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함
 - 김 위원장은 “닭공장 건설은 당이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많은 품을 들여 준비해온 사업”이라며 “당에서 그토록 마음 쓰는 인민들의 식생활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장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함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북한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6%로 분석함. 미국 농무부는 올해 북한의 쌀 수확량을 136만t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연간 쌀 소비량(약 550만t)의 25%에도 못 미치는 수치임

■ 北에도 큰비… 식량 걱정에 “알곡 보호하자”(YTN, 2020.8.2)

- 북한에도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음
 - 어제(1일)부터 나흘간, 북한은 청천강과 대동강 유역 일부 지역에 최대 50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함
 - 이미 황해남도 연안 등 일부 지역에는 200mm 가까운 비가 내렸음
 - 대북제재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예년보다 심한 식량난에 봉착한 데다, 여의도 면적의 150배가 넘는 농경지가 피해를 본 지난해 태풍 ‘링링’의 피해가 막대하여 식량 생산에 중요한 농경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김정은 지시 이틀 만에… 북한, ‘완전 봉쇄’ 개성에 쌀 특별생활비 지원(『아주경제』, 2020.8.9)

-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지난 7일 개성시에 쌀과 특별생활비를 지원함
 - 북한은 지난달 2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자가 재입북했다고 주장하면서 개성시를 완전 봉쇄함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5일 노동당 중앙위 정무국회의에서 개성에 식량과 생활보장금 등을 특별 지원하라고 지시했음
 -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개성시당 회의실에서 진행된 특별 지원

물자 전달식에서 토론자들은 개성시가 봉쇄된 첫날부터 식량·식용유·생활용품·전기·석탄 등이 보장되었다고 밝힘

■ “북한 주민 60% 식량 부족 상태”(『내일신문』, 2020.8.13)

- 북한 주민 10명 중 6명이 음식을 충분히 먹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 농무부가 보고서를 통해 밝힘
 - 13일 미국 농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산하 경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 ‘국제 식량 안보 평가 2020~2030’에서 올해 북한 주민의 59.8%인 약 1,530만 명이 식량 부족 상태일 것으로 분석함

■ “北, 홍수 등 이상기후로도 굶주림 겪을 우려 커”(『국민일보』, 2020.8.15)

- 최근 잇단 태풍으로 북한 주민들도 큰 피해를 본 가운데 “앞으로 가뭄·홍수, 열대성 저기압과 같은 이상기후로 굶주림을 겪을 가능성도 커졌다”는 전망이 나옴

■ 통일부 “北, 쌀 5만 톤 안 받으면 선지급 138억 환수”(『서울경제』, 2020.9.3)

- 정부가 지난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하려다 북한의 거부로 보류된 쌀 5만 톤 대북지원사업이 올해 중 진척 없으면 이미 지급한 관련 사업비를 환수하기로 결정함
 -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식량 사정을 고려해 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 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음. 이어 운송비·장비비·모니터링비 등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WFP에 138억 원가량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미리 지급했지만, 북한이 지난해 7월 한미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쌀 수령을 거부해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임

■ 유엔 “北, 코로나19 대응으로 식량난 가중”(『아시아경제』, 2020.9.5)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면서 식량난이 가중하고 있다고 소개함
 -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도 지난달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 주민 59.8%에 해당하는 1,530만 명이 식량 부족 상태일 것으로 예상함

- 이외에도 알레나 도한 유엔 일방적 강압 조치에 관련한 특별보고관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로 인도적 지원에도 차질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함

■ 이인영 ‘노벨평화상’ WFP에 “북한사업 적극 지원할 것”(『헤럴드경제』, 2020.10.20)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세계식량계획(WFP)에 서한을 보내 축하의 뜻을 전하고 향후 WFP의 대북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 RFA “북한, 내년까지 전문 어선 1만 척 확보 지시”(『세계일보』, 2020.10.28)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7일 현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내년 말까지 고기잡이용 전문 어선 1만 척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함
 - 평양의 한 소식통은 “이 같은 지시가 내려온 것은 전문적인 수단을 갖추지 못한 낡은 어선들이 고기잡이를 하다 보니 국가의 어획 계획량을 채우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최고지도자(김정은 국무위원장)가 주민들의 경제 생활을 빠르게 나아지게 하는 데 있어 수산물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그 의도를 따르기 위해 중앙당국이 발 빠르게 나선 것”이라고 말함
 -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변국과 무역 거래가 차단된 만큼 어선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무역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어선 및 어로 장비 확보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힘

■ 日 신문 “中, 北 물밀 지원 강화… 올해 식량 50만~60만t 비료 55만t 공급”(『한국일보』, 2020.11.3)

- 중국이 식량 외에 대량의 비료까지 제공하는 등 북한에 대한 물밀 지원을 올해 들어 강화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50만~60만t이며 비료는 55만t 정도임
- 북한 사정에 밝은 복수의 중국 관계자 정보에 의하면 중국이 올해 6~8월 북한에 보낸 식량은 옥수수 등 곡물 60만t이며 태풍 피해를 겪은 북한이 지난달 식량을 더

요청해 20만t 정도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중국이 검토하고 있음

- 북한 농업 사정에 밝은 중국 정부 기관 관계자는 파종 단계를 기준으로 올해 북한의 식량 수확량은 350만~380만t 정도이며 약 150만t 정도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함
- 전직 북한 고위 관료는 북한 당국이 비료 1t을 식량 10t으로 환산해 정책을 세운다며 “이번 비료는 (식량으로 환산하면) 연간 식량 생산량을 웃도는 550만t에 필적하는 것이므로 지원 규모로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함
- 중국의 대북 식량 지원은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해 양측의 관계가 악화한 2013년 무렵에 쪼그라들었으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관계가 회복한 2018년부터 활발해졌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6월 방북했을 때 식량 지원 합의가 이뤄졌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함
- 이와 관련해 전직 북한 고위 관료는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조선(북한)을 돕겠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언급함

■ WFP·FAO “북한, 겨울철 ‘식량 안보’ 계속 악화될 것”(『한국일보』, 2020.11.11)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약해진 북한의 식량 안보가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함
- FAO와 WFP는 10일 전 세계 국가들의 식량 안보 상황을 평가한 ‘11월 긴급 식량 불안정 조기 경보 분석 공동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제약이 북한 주민들의 식량 불안정 취약성을 증대시켰다”고 지적함
- 특히 보고서는 이미 식량 사정이 어려운 국가들이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우려함. 실제 북한은 2월 국경을 전면 봉쇄하면서 모종 등 농산물과 비료, 농자재, 농기계 연료 등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짐
- 또 올해 평년보다 과도한 강우량과 홍수, 태풍 등 불규칙한 자연재해에 따른 식량 불안이 북한 내 주민들에게 만연해 있다는 지적도 나왔음
- 보고서는 “홍수와 태풍으로 인한 정확한 곡물 피해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과도한 농경지 습기는 수확을 앞둔 농작물 발육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밝힘

- 보고서에 따르면 8~9월 태풍과 홍수로 인해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도, 평안도 지역의 토양 수분량이 지난 10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함

■ 북한 시장물가 급등한 2·4월… 왜(『아시아경제』, 2020.11.30)

- 북한 시장물가가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 급등함. 다만 시장물가는 다시 빠르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불안 심리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분석함
- 30일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11월호에 ‘북한의 물가와 환율: 추세 그리고 분석’이라는 주제로 실린 KDI 북방경제실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설명함
 - “특히 식량이 부족한 북한에서는 심리적 불안 확대가 비축 수요로 이어져 2월 초 물가가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4월 말 상승세도 곧바로 하락세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현재 옥수수나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로 반등한 상황”이라고 전함. 특히 춘궁기에 접어들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식량 가격 상승도 관찰됐다고 덧붙임

■ 北, 쌀 5만 톤 지원 안 받자… 통일부 “사업비 연내 환수 추진”(『서울경제』, 2020.11.30)

- 통일부가 지난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하려다 북한의 거부로 보류된 쌀 5만 톤 대북지원사업이 올해 중에도 진척이 없자 사업비를 연내를 목표로 환수하기로 함

7. 생태계(동식물)

■ 파종은 ‘씨뿌리기’, 묘목은 ‘나무모’, 솔나방은 ‘송충’(『매일경제』, 2020.5.11)

- 파종과 씨뿌리기, 묘목과 나무모, 솔나방과 송충.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11일 남북한 산림 용어를 비교해 소개하는 책자 2권을 발간함

- 이번 자료는 2015년부터 남북한과 조선족 과학기술자협회가 함께 편찬 중인 ‘남북 산림용어집’ 연구 결과를 활용해 제작함

■ 北, 애완견 소탕 작전(『조선일보』, 2020.8.3)

- 북한이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선 가운데 최근 평양에서 애완견을 기르는 행위를 ‘자본주의 요소’로 규정하고 강력 단속에 나선 것으로 2일 전해짐
 - 이날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7월 “나라가 어려운데 평양 시민들 속에서 애완견을 기르는 것은 부르조아 사상에 물든 행위, 자본주의 요소의 한 부분”이라며, ‘애완견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짐

■ ‘웃는 돌고래’ 상괭이 보전 위한 국제협력 토대 마련(『국민일보』, 2020.11.11)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최근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에 앞서 진행한 온라인 안건 심사에서 멸종위기종 상괭이 보전 촉구 결의안을 공식 채택함
 - 이 결의안은 상괭이가 주로 서식하는 황해 지역의 인접 국가(한국, 중국, 북한 등)들이 기초 조사와 위해 요소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악어가죽들버섯, 나도밤색기와버섯… 북한 균류 담은 목록집 발간(『한겨레』, 2020.11.20)

- 20일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북한에 사는 균류 1,779종의 정보를 담은 ‘국가생물종목록집-북한지역 균류’를 발간함
 - 이번 목록집은 앞선 연구인 조선포자식물 1권-균류편과 폴란드 식물연구지에 기초해 작성됨
 - 목록집에는 북한의 버섯류 1,401종과 곰팡이류 378종 등 총 1,779종의 정보가 정리되어 있음. 이 중 남한과 북한에 모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종은 922종이 있음. 마디풀흰가루균, 포도탄저균, 인삼송이균, 악어가죽들버섯, 나도밤색기와버섯 등 국가생물종 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버섯과 곰팡이도 포함됨
- 북한의 균류를 수록한 자료로는 북한이 연구해 출간한 ‘조선포자식물 1권-균류편 1~3권’(1984~1990)과 폴란드 연구자들이 1982~1986년 북한지역을 채집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폴란드 식물연구지 18권’(2004) 정도가 있음

■ 3월에 떠난 큰고니, 어디 다녀오나 했더니…(『서울경제』, 2020.11.24)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주남저수지에서 겨울을 보내는 큰고니의 이동 경로를 최초로 확인함
 - 고니는 북한과 중국 등을 거쳐 러시아 예벤키스키군 습지에서 여름을 보낸 후 다시 한 달 반을 날아 11월에 창원 주남저수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함
-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1월 30일 큰고니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이동 경로 연구함
 - 3월 2일 주남저수지를 떠난 큰고니는 평균 시속 51km 속도로 북한 해주시를 지나 약 923km를 비행하여 다음 날인 3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다양강 지역에 도착함. 단둥에 머문 기간은 2주이며 이후 큰고니는 다시 365km를 이동해 3월 18일 중국 내몽골자치구 퉁랴오시 인근 습지에 내려앉아 16일간 휴식함. 이어 4월 3일에 다시 이동을 시작해 내몽골자치구 후룬베이얼시 습지와 러시아 부랴티야 지역의 호수 등에서 머무름

8.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 UN 산하 녹색기후기금, 북한 기후변화 대응에 8억 7,000만 원 지원(『경향비즈』, 2019.12.27)

- 26일 유엔 산하 녹색기후기금(GCF)이 북한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는데 자금 75만 2,000달러를 지원함. 원화로 환산하면 약 8억 7,000만 원에 해당됨
 - 북한은 지난 8월 세계식량농업기구(FAO)를 수행 기관으로 역량 강화 및 국가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구축 분야에 75만 2,090달러를 신청했음
 - GCF에 등록된 국가지정기구(NDA)의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은 앞서 지난 1월 국토환경보호성을 GCF에 NDA로 등록함. GCF의 지원금은 북한 정부가 아니라 북한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FAO에 지급됨
 - 북한은 지난해 5월 램사르협약에도 가입하는 등 환경 문제와 관련해선 국제사회와 발 맞춘 행보를 보임

■ 평양도 이상기온… “눈 내려야 할 小寒에 비”(『조선일보』, 2020.1.8)

-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절기 중 가장 춥다는 소한(小寒)을 맞은 평양에 비가 내림
 - 평양은 소한(小寒)을 전후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데 전날인 7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상 1도를 넘었음

■ 북 신문 “온난화 심각… 건강 주의 필요”(YTN, 2020.1.12)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올해 겨울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주민 건강에 주의하고 영농 준비를 빈틈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함
 - 신문에 따르면 어제 백두산 최저기온이 영하 20도, 최고기온 영하 16도로 2년 전 같은 날 최저기온 영하 35도, 최고기온이 영하 30도에 비해 기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백두산 폭발 가능성’에 관심 폭증… 지질硏 ‘백두산 화산연구단’ 가동(『머니투데이』, 2020.1.13)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질연)이 백두산 분화 징후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백두산 화산연구단’을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힘
 - 지질연 측은 “백두산 화산 분화 징후가 감지됨에 따라 국가·사회로부터 백두산 화산에 대한 연구 요구가 커지고 있는 데다 남북 교류를 통한 백두산 남북공동연구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연구조직을 신설했다”고 설명함

■ 기상청 “北 길주 인근서 2.5 규모 지진… 6차 핵실험 여파 자연지진”(『조선일보』, 2020.1.29)

- 오전 9시 33분 47초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41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함
 - 기상청은 자연지진으로, 6차 핵실험으로 발생한 유발지진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함
 - 진앙은 북위 41.29도, 동경 129.11도임

- 지진 진앙은 지난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이 실시된 곳에서 남동쪽으로 3km 떨어져 있음

■ 기상청 “北 황해북도 평산 북서쪽서 규모 2.7 지진”(YTN, 2020.2.29)

- 밤 10시 2분쯤 북한 황해북도 평산 북서쪽 24km 지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함
 - 지진의 발생 깊이는 8km로,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함

■ 한 주 동안 DMZ서 산불 3건… “진압작전 시 北과 소통”(『세계일보』, 2020.3.14)

- 이번 주 들어 남북한의 접경지대인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3건의 산불이 발생함
 - 유엔사는 구체적으로 DMZ 내 어느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강원 철원 김화읍의 DMZ 내에서 발생한 산불이 3건의 화재에 포함된 것으로 보임

■ 北 황해북도 송림서 규모 2.2 지진… “자연지진으로 분석”(『중앙일보』, 2020.4.3)

- 3일 오후 7시 44분 북한 황해북도 송림 동북동쪽 8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함
 - 진앙은 북위 38.75도, 동경 125.72도임
 - 기상청은 자연지진으로 분석된다고 밝힘

■ 北 황해북도 인근 규모 2.4 지진… 기상청 “자연지진”(KBS, 2020.5.5)

- 오늘 오전 6시 44분에 북한 황해북도 부근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함
 -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한 황해북도 평산 북서쪽 26km 지역으로 분석됨
 - 기상청은 이번 지진에 대해 자연지진으로 분석된다고 밝힘

■ 기상청 “북한 평안남도 성천 남쪽서 규모 2.2 지진 발생”(『조선일보』, 2020.5.9)

- 9일 낮 12시 27분 8초에 북한 평안남도 성천 남쪽 41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함

- 진앙은 북위 28.87도, 동경 126.22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8km임
- 기상청은 자연지진으로 분석된다고 밝힘

■ 北 강원 평강서 규모 3.8 지진… 기상청 “자연지진”(『동아일보』, 2020.5.12)

-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45분 6초경 북한 강원 평강 북북서쪽 32km 지역, 깊이 16km 지점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함
- 지상에서 느껴지는 흔들림 정도인 최대 진도(상대적 강도)는 강원, 경기, 서울, 인천에서 2를 기록함

■ 북한 황해남도 웅진서 규모 2.1 지진… 기상청, “자연지진”(『서울경제』, 2020.5.22)

- 22일 오후 9시 18분께 북한 황해남도 웅진 남서쪽 43km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함
- 진앙은 북위 37.67, 동경 125이며, 진원의 깊이는 11km임
- 이 지진으로 강원 등 지역에는 최대진도 1의 진동이 감지되었음
- 기상청 관계자는 자연지진으로 분석된다고 밝힘

■ 北 황해북도 송림 동북쪽서 규모 2.5 지진… “자연지진”(『조선일보』, 2020.6.4)

- 4일 오전 2시 21분쯤 북한 황해북도 송림 동북동쪽 5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함
- 진앙은 북위 38.75도, 동경 125.69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6km임
- 이번 지진의 계기 진도는 1로 관측됨. 대부분의 사람이 느낄 수 없으나 지진계에는 기록되는 수준의 진동을 뜻함
- 송림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임
- 지난 4월 3일 오후 7시 44분 송림 동북동쪽 8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한 적 있음
- 기상청 관계자는 이 지역은 원래 지진이 잦은 곳으로 자연지진으로 분석함

■ 北 황해북도 사리원 북동쪽서 규모 2.5 지진… “자연지진”(『매일경제』, 2020.6.24)

- 오전 3시 28분께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북동쪽 24km지역에서 규모 2.5 지진이 발생함
 - 진앙은 북위 38.66도, 동경 125.95도임
 - 기상청 관계자는 자연지진으로 분석된다고 밝힘

■ 지진 발생, 연평도 해역서 규모 3.3… “이상하네”(『아주경제』, 2020.7.7)

- 7일 오후 2시 8분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남서쪽 54km 해역에서 규모 3.3 지진이 발생함

■ 북한, 모레 대동강·청천강 일대 홍수경보 발령(OBS, 2020.8.4)

- 북한이 제4호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오는 6일부터 이틀간 대동강과 청천강, 예성강 유역에 ‘홍수주의경보’를 발령함
 - 북한 기상수문국은 평안도와 황해도 개성시 그리고 자강도 남부와 강원도 내륙지역에 5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예보함

■ “북한 황해북도 송림, 규모 2.0 지진 발생”(YTN, 2020.8.5)

- 새벽 1시 22분 북한 황해북도 송림 북북동쪽 14km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함
 - 기상청은 자연지진으로 분석된다고 밝힘

■ 北서도 18일째 퍼붓는 장마…최대 쌀 생산지 피해 우려(『한국경제』, 2020.8.5)

- 북한에서 18일째 장마가 이어지면서 대표적 곡창지대인 황해도의 농작물 생산량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5일 “8월 1일부터 4일까지 황해북도 장풍군이 438.5mm 강우량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황해북도와 평안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개성 등 여러 지역에 폭우를 동반한 200mm 이상의 무더기 비가 쏟아졌다”고 보도함

■ 北 황북도 은파군서 독 터져 730여 채 침수… 김정은 현장 시찰(『중앙일보』, 2020.8.7)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장맛비로 수해 피해를 입은 황해북도 지역을 시찰함
 - 은파군에서는 연일 이어진 폭우로 독이 터지면서 주택 730여 동과 논 600여 정보가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함
 - 통신은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함

■ 北 핵실험했던 길주서 규모 2.4 지진… “이번엔 자연 발생”(『국민일보』, 2020.8.8)

- 7일 오후 9시 27분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북북서쪽 43km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함
 - 진앙은 북위 41.30도, 동경 129.09도이며, 계기진도는 최대 1입
 - 이번 지진은 북한에서 6차 핵실험을 강행한 위치에서 북동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함
 - 앞서 북한은 2017년 9월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6차 핵실험을 강행해 이로 인한 인공지진이 발생한 바 있음
 - 기상청은 “6차 북한 핵실험이 발생한 길주군에서 발생한 지진이어서 정밀 분석한 결과 인공지진의 가능성이 없고 자연지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힘

■ 北 황해도·강원도에 또 많은 비… 예성호에 홍수 중급경보(YTN, 2020.8.10)

- 북한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에 힘을 쏟는 가운데 황해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림
 - 조선중앙TV는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다는 소식을 전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200mm가 넘는 비가 왔다고 보도함
 - 이와 함께 황해도 지역 예성호에는 지난 6일에 이어 큰물, 홍수 중급경보도 내려짐
 - 한편 오는 13~14일에도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남부·함경남도·강원도 내륙 일부 지역에서 150~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됨

■ 북 수해 심각… “황강댐 위 임진강 상류 댐 2개 붕괴”(『한겨레』, 2020.8.11)

- 지난 10일 북쪽 접경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임진강 상류 황강댐 위쪽의 댐 2개가 붕괴됐다는 주장이 나옴
 - 11일 북한 사정에 정통한 제보자에 따르면, 북한은 집중호우로 황강댐 위쪽 댐 2개가 붕괴돼 황강댐으로 물이 밀려오자 지난 10일 부댐(새들댐·saddle댐)을 폭파시켜 물을 방류한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은 이달 1~6일 사이 강원도 평강군에 854mm, 개성지역에 423.9mm의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전해짐

■ “北도 폭우 피해… 수재민 540만 명 달할 듯”(『국민일보』, 2020.8.12)

- 북한에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해를 입은 주민이 54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 북한의 주요 양곡 생산지인 황해북도에서만 여의도 2배 면적에 달하는 논이 물에 잠겼고, 대동강 예성강 등이 범람할 우려도 커지고 있음
 -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ECHO)은 10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4호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주민 540만 명이 수재를 입을 수 있다고 밝힘. 북한 전체 인구(2,578만 명)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임
 - 황해도와 개성시 등에는 최근 시간당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짐. 이 때문에 대동강과 예성강, 금야호 등이 범람할 우려도 커지고 있음

■ 北, 기록적 폭우로 22명 사망… 주택 8,256채 파손·농경지 2만 2,000ha 침수(『아시아경제』, 2020.8.14)

- 기록적 폭우가 이어지면서 북한에서 2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됨. 주택 8,256채가 파손되거나 침수됐고 농경지 2만 2,000ha(1ha=1만m²)도 피해를 입었음
 - 13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이메일을 통해 “북한의 조선적십자회와 국가비상재해위원회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홍수로 2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고 밝힘

- IFRC는 “주택 8,256채가 파손되거나 침수됐고 농경지 2만 2,000ha가 파괴됐다”고 덧붙임
- 한편 유럽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ECHO)은 기록적인 수준의 비가 계속 내리고 있다면서 이번 폭우로 북한 주민 540만 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함

■ 북한 황해남도 해주 남동쪽서 규모 2.5 지진… “자연지진”(『매일경제』, 2020.8.21)

- 21일 오전 3시 52분 51초 북한 황해남도 해주 남동쪽 24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함
- 진앙은 북위 37.91도, 동경 125.93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4km임
- 기상청 관계자는 자연지진으로 분석된다고 밝힘

■ 北도 태풍 바비에 긴장… 김정은 “인명·농작물 피해 철저 대비”(『서울신문』, 2020.8.26)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태풍과 코로나19 확산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함
- 26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5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17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밝힘
- 김 위원장은 26~27일 북한 대부분 지역이 제8호 태풍 ‘바비’ 영향권에 드는 것과 관련, “태풍에 의한 인명 피해를 철저히 막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 당에 있어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함
- 이어 “이는 한 해 농사 결속을 잘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태풍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게 즉시적인 대책들을 강구하라”고 지시함

■ 북한에 상륙한 바비, 가로수 뿌리채 뽑히고 교통 마비(『매일경제』, 2020.8.27)

- 제주, 전남, 인천·경기를 거쳐 27일 북한에 상륙한 제8호 태풍 ‘바비’가 평양, 남포 등 수도권 일대와 북한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도에 피해를 입히고 있음

- 오전 7시 기준 황해남도 웅진군에 초속 29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가로수들이 뿌리째 뽑히고 전봇대가 넘어지는 등 농경지 침수와 읍지구 수로 손상도 발생함
- 황해북도 북서쪽 사리원시에는 랜드마크 건물인 사리원백화점 외벽이 뜯겨 나갈 정도로 거센 바람이 불었음
- 오전 7시30분 기준으로 수도 평양의 대동강 일대에는 가로수들이 꺾일 정도로 센 바람이 불었으며 강 수위도 높아졌음
- 이에 북한 기상수문국은 청천강과 압록강 하류 지역, 평양을 관통하는 대동강 금성호 등 주요 강·하천에 큰물(홍수)경보를 내렸음

■ 김정은, 태풍 ‘바비’ 강타한 황해도 시찰… “피해 예상보다 적어 다행”(『중앙일보』, 2020.8.28)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제8호 태풍 ‘바비’로 피해를 입은 황해남도를 찾아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농작물 복구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정은 동지께서 황해남도의 태풍 피해 지역을 돌아보시며 피해 상황을 파악했다”며 “황해남도 당위원회 위원장 리철만 동지를 부르시여 도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은 “농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넣어야 한다”며 “농업과학 연구기관들과의 연계 밑에 농작물 피해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생육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수확과 감소를 최소한 줄이도록 하라”고 지시함

■ 태풍 ‘바비’에 휩쓸린 北, 국가 존엄 거론하며 농작물 피해 복구 ‘사활’(『세계일보』, 2020.8.31)

- 이달 들어 잇따른 폭우와 태풍 ‘바비’로 수해를 입은 북한이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사활을 걸고 있음
 - 3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한 해 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는 것은 순간도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당의 권위

와 국가의 존엄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라고 밝혔음

- 북한이 농작물 피해 복구에 사활을 건 것은 최대 쌀 생산지인 황해도가 이번 폭우와 태풍 ‘바비’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식량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임
- 신문은 “세계적으로 보건 위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예상치 못했던 도전과 난관이 겹쌓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농업 생산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며 “농업 생산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함

■ 北도 바짝 긴장 “태풍 경보 발령… 양식장·부두 보호 총력”(YTN, 2020.9.2)

- 태풍 ‘바비’에 의한 피해 복구가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함. 북한 대부분 지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연이은 폭우와 태풍으로 피해가 집중된 황해도 지역에서는 대비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번 태풍은 이전 태풍 ‘바비’보다도 세력이 강한 데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재산 피해를 낳았던 2003년 태풍 ‘매미’와 비슷한 경로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됨
 - ‘마이삭’의 예상 경로인 강원도와 함경도 지역에는 중급 경보를, 황해도와 내륙 지역에는 주의 경보를 발령함
 - 특히 동해안에는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양식장과 부두,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음

■ 해일·산사태에 고급아파트 침수까지… 북한도 마이삭에 ‘취청’(『한국일보』, 2020.9.3)

- 북한도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강원 지역의 고급아파트와 도로 등이 침수되고 산사태가 일어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
 - 최근 재난 예보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북한 당국은 이번 마이삭 피해 때도 ‘24시간 특보 방송 체제’를 가동하는 등 긴밀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임
 - 3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에 따르면, 태풍 마이삭은 강원도와 함경남도 지역을 관통했음
 - 강원 원산시는 이날 오전 3시부터 3시간 동안 132mm의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려 고급아파트와 도로 등이 흙탕물에 잠김

- 강원 금강군은 금강천이 불어나 통행이 금지됐고, 주민은 안전지대로 대피해야했음
- 함경남도 서호·마전 해안가 지역도 마이삭 영향권에 들은 전날 168mm의 비가 내렸음

■ 물바다로 변한 원산시… ‘24시간 태풍특보’한 북한 TV(SBS NEWS, 2020.9.3)

- 북한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에도 새벽까지 일종의 태풍 특보를 했음
 - 원산 시내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물바다로 변했음
 - 조선중앙TV는 며칠 전 태풍 ‘바비’ 때처럼 오늘(3일)도 새벽까지 일반 프로그램을 중간 중간 끊어가면서 태풍 특보를 했음

■ 태풍 ‘마이삭’ 지나갔지만… 북한 원산 ‘물바다’(『한국경제』, 2020.9.4)

-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북한 원산 시내가 완전히 물에 잠겼음
 - 조선중앙TV는 지난 3일 오전 6시경 물바다가 된 원산 시내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내보냈음
 - 방송은 “태풍 9호의 특징은 바람보다 강수량이 많은 것”이라며 “(원산에) 새벽 3~6시 132mm의 강한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렸고, 2일 21시부터 3일 6시까지 내린 강수량은 200mm에 달한다”고 전함

■ 김정은, 태풍 피해 지역서 회의… “1만 2천 명 급파”(뉴스투데이, 2020.9.6)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함경남도에서 노동당 정무국 확대회의를 열고, 피해 책임을 물어 함경남도당위원장을 교체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태풍으로 1천여 세대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공공건물과 농경지들이 침수됐으며, 김 위원장이 피해 상황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은 본인 명의로 직접 평양 전체 당원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수도의 우수한 핵심당원 1만 2천 명을 함경남북도에 급파할 것을 결심했다”면서, “나라가 어려울 때 마땅히 앞장서야 한다”고 밝힘

■ 김정은 한마디에… 평양 당원 ‘30만 명’ 수해 복구 나서(『한국경제』, 2020.9.7)

- 평양 노동당원 30여만 명이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휩쓴 함경도 복구를 돕고 있음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복구에 힘을 보태달라고 공개 호소한 지 하루 만임
 - 조선중앙통신은 “30여만 명의 당원들이 6일 당 중앙의 구상을 실천으로 받들어나갈 열의를 안고 함경남북도 피해 복구장으로 탄원했다”고 7일 보도함
 - 『노동신문』도 평양시 당위원회 간부들이 김 위원장의 서한이 공개된 즉시 긴급협의회를 열고 조직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함

■ 북한, 하이선에 초토화… 원산·신포 또 물에 잠겼다(『조선일보』, 2020.9.8)

-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한 동부지역을 강타함
 - 마이삭 때 도로 등이 침수됐던 강원도 원산시는 또다시 도시 곳곳이 물에 잠겼고, 함경남도 신포시도 도로와 다리가 완전히 물에 잠겼음
 - 조선중앙TV는 7일 새벽부터 재난방송 체제에 돌입해 30분~1시간 단위로 태풍 상황을 전달함
 - 원산시 상황을 전달하면서는 “태풍 10호의 영향으로 송도원 도로 입구가 완전히 차단되고 송도권 구역의 소나무들이 뿌리째 넘어갔다”고 말함
 - 원산시뿐만 아니라 함경남도 신포시에서도 도로와 다리가 완전히 물에 잠긴 모습이 포착됨
 - 중앙TV는 “태풍 9호(마이삭) 때 불어난 강물들이 아직 체지지(흘러가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태풍 10호(하이선)가 들이닥쳐 여러 강하천들과 저수지에 큰물경보가 내려졌다”고 전함
 - 함경북도 김책시에도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함. 해안가 주변 농장들이 침수됐고, 도로는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물에 잠김

■ 北 ‘태풍 피해 복구’ 평양 당원사단 만 2천 명 함경도로 출발(YTN, 2020,9,9)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본 함경도 복구를 지원해달라고 공개 호소한 지 사흘 만에 평양시 당원 만 2천 명으로 구성된 ‘수도당원사단’이

함경도로 출발함

- 함경도 태풍 피해 복구에 사용될 시멘트 등 건설자재와 공구, 후방 물자를 실은 화물차와 열차도 평양에서 출발함
- 평양의 수도당원사단 급파는 김 위원장이 지난 5일 발표한 공개 서한에서 평양의 우수한 핵심 당원으로 함경남북도에 급파할 최정예 수도당원사단들을 조직할 것을 결심했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임

■ “검덕광산 덮친 ‘하이선’… 北 경제 큰 타격 줄 듯”(『서울경제』, 2020.9.9)

- “동아시아 최대 아연 광산인 북한 검덕지구를 10호 태풍 ‘하이선’이 강타하면서 유엔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됨

■ “北 곡창지대 40년 만에 가장 많은 비”… 식량난에 물가상승 조짐까지(YTN, 2020.9.11)

- 북한 곡창지 황해도 은파군에 1981년 이후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남
 - 태풍 피해 여파로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더욱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북한 물가 동향까지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실제로 전 세계 농작물 작황을 조사, 예측하는 국제기구가 지난달 북한 폭우와 수해 상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식량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 거라는 결론을 내림
 - 북한 남부 최대 곡창지인 황해도에 4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는데, 작년과 재작년 최악의 가뭄과 홍수 등으로 수확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또다시 재해가 발생해 상황이 더욱 심각할 것임
 -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에 수해까지 겹치면서 북한의 물가는 최근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음

■ 38노스 “北 홍수 피해 충격적… 말로만 ‘평양 속도’ 복구 못 해”(『중앙일보』, 2020.9.25)

- 북한은 이번 여름 장마철에 3개의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이 휩쓸고 지나간데다 강우량은 지난 25년간 관측해온 가운데 역대 2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많음

○ “피해 복구도 못 하는데 겨울 다가와”

- 38노스에 따르면 올해의 풍수해로 침수된 농경지와 마을 주민들은 기근과 전염병의 위험에 놓인 데다 피해 복구도 하지 못하는 상황임
- 38노스는 “가옥·도로·교량을 재건하고 농지를 정리하는 일은 수개월이 걸리는 매우 험난한 작업”이라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거의 모든 외부 물자 공급이 중단된 탓에 회복은 요원하다”고 전함

○ 北 “평양 속도로 태풍 피해 복구” 선전

-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10월 10일)과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태풍 피해 흔적을 지우기 위해 선전전을 벌이고 있음
- 24일에는 ‘평양 속도’를 강조하며 빠른 수해 복구를 독려함

■ “영변 핵시설도 태풍 피해… 원자로 펌프장 단수”(OBS, 2020.9.26)

○ “풍계리 핵실험장에 이어 영변 핵시설도 최근 북한 내륙지역을 강타한 태풍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분석함

- 38노스는 “21일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저수용 댐 동쪽 끝에 구멍이 뚫려 수위가 내려갔고 원자로에 물을 대는 펌프장에도 물이 끊겼다”고 밝힘
- 38노스는 “댐 수위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향후 북한이 원자로를 재가동하거나, 실험용 경수로를 작동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함

■ 김여정, 두 달 만에 공식 석상… 김정은 현지도도 수행(『한국경제』, 2020.10.2)

○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8월 집중호우에 이어 지난달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직격탄까지 맞았던 김화군을 둘러보며 살림집(주택)과 농경지, 교통운수, 국토환경, 도시 경영, 전력, 체신 등 부문별 피해 규모를 파악함

-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현지도에서 강원도 지역의 농사 작황도 둘러봤음. 그는 “큰물(홍수) 피해를 입은 당시에는 내다볼 수 없었던 좋은 작황이 펼쳐졌다”며 “올해는 정말 유례 없이 힘든 해이지만 투쟁하는 보람도 특별히 큰 위대한 승리의 해로 될 것”이라고 전함

■ 김정은, ‘연·아연산지’ 검덕지구 태풍 피해 복구 현장 시찰(『매일경제』, 2020.10.14)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태풍 ‘마이삭’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북한의 대표 광물 생산지 함경남도 검덕지구 피해 복구 현장을 시찰함
 - 현재 검덕지구에서는 ‘살림집’(주택) 2,300여 세대를 새로 건설 중이며, 총 공사량의 60%까지 공사가 진행되었음
 - 이어 대흥·검덕·룡양의 낙후성을 털어버리고 현대적인 주택을 건설하고 국가적인 광산도시로 바꿀 구상을 내놓고는 8차 당대회를 통해 해당 지역에 2만 5천 세대 주택을 새로 건설하겠다고 밝힘

■ 김정은, 함남 동해안 태풍 피해 현장 시찰(『아시아경제』, 2020.10.15)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남도 신포시와 흥원군을 비롯한 동해지구 자연재해 복구 건설장들을 돌아보며 건설사업을 지도함

■ 김정은, 검덕에 이어 신포·흥원 등 수해 복구 현장 잇달아 시찰(YTN, 2020.10.15)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경남도 검덕지구를 시찰한 데 이어 동해안 태풍 피해 복구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건설 감독과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함
 - 특히 지방 건설에서 해당 지역의 지대적 특성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부단히 새 본보기를 창조해나가야 한다면서 건설 감독 부문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가장 중시해야 한다고 덧붙임

■ 김정은 “날림식 수해 복구, 엄하게 문제 삼을 것”(『헤럴드경제』, 2020.10.15)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틀째 함경남도에 머물면서 수해 복구 현장을 둘러보고 설계와 건설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함
 - 신문은 수도당원사단이 수해로 끊긴 수십 리의 도로를 복구해가며 함경도에 도착했다면서 단 18일 만에 147세대의 현대적인 문화주택(개량주택)을 새로 건설했다고 소개함
 - 김 위원장은 특히 지방 건설에서 설계와 건설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에

올라온 보고에 의하면 강원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안의 일부 단위들에서 설계와 건설공법의 요구를 어기고 건설을 날림식으로 망탕하는 고약하고 파렴치한 건설법 위반 행위들이 제기됐다”며 “엄하게 문제를 세우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함

■ “北 영변 핵단지 부근 올해 여름 홍수 피해 복구 중”(YTN, 2020.10.24)

- 북한 영변 핵단지 근처에서 올 여름 홍수로 인한 피해 복구가 시작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22일 분석함
 - 38노스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민간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구룡강의 원자로 냉각수 저수용 댐에서 지난 8월 홍수 여파로 생긴 구멍을 복구하는 작업이 목격됐다고 밝힘
 - 당시 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8월 6일에는 원자로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펌프 시설들이 범람 위기에 놓일 뻔했으나 이후 위성 사진들을 보면 심각하거나 식별될 만한 손상은 없었다고 38노스는 설명함
 - 특히 지난 17일부터는 댐의 구멍 근처에서 새로운 독을 쌓는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남. 이 독이 저수 용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복구 기간 물길을 돌려놓으려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있음

■ 北 평양과 가까운 송림서 이틀 만에 또 지진… 기상청 “자연지진”(『세계일보』, 2020.11.4)

- 오전 4시 41분 54초께 북한 황해북도 송림 북동쪽 10km 지역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함
 - 진앙은 북위 38.79도, 동경 125.72도로 평양과 가까운 곳임
 - 기상청은 자연지진으로 분석함
 - 송림에서는 지난 2일에도 두 차례 지진이 발생했음. 당시 지진은 각각 규모 2.5와 2.6으로, 모두 자연지진으로 파악됨
 - 송림 지역은 지진 발생이 잦은 곳으로, 올해 6월 4일에도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음

■ 기상청 “北 함경북도서 규모 2.6 자연지진… 핵실험 영향”(『국민일보』, 2020.11.17)

- 오전 3시10분쯤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38km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함
 - 진앙은 북위 41.28도, 동경 129.18도임
 -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한 지역에서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함
 -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지진은 자연지진”이라며 “해당 지역은 원래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단단한 지형이었으나 핵실험 이후 자연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함
 - 기상청은 또 “자연적으로 에너지가 쌓여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으로 변화가 생겨서 발생하는 지진인 유발 지진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임

■ 북한 황해남도 웅진 북쪽서 규모 3.1 지진(『국민일보』, 2020.11.19)

- 오후 11시 17분 28초 북한 황해남도 웅진 북쪽 7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함
 - 진앙은 북위 37.99도, 동경 125.37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5km임
 -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연지진으로 분석된다”고 전함

■ 38노스 “북, 수해 피해 입은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중”(『중앙일보』, 2020.11.26)

- 북한이 지난 여름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함북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 인근 도로와 시설을 복구 중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가 25일에 보도함
 - 38노스는 지난 21일 미국의 우주과학기업인 맥서테크놀로지가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풍계리 핵시설은 현재 차량이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복구됐다고 설명함
 - 이 지역에는 지난 8월과 9월 집중 호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도로가 유실되고, 교량이 끊기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정보 당국은 판단함
 - 하지만 38노스는 “북한이 지속적인 복구 작업을 통해 피해를 본 도로를 복구했고, 새로운 교량을 설치했다”며 “서쪽 갭도와 남쪽 갭도에는 자동차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도함

9. 보건 및 환경오염

■ 정부, WHO 북한 의료 지원사업에 55억 지원… “남북관계 무관한 인도적 지원”(『아주경제』, 2019.12.6)

-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북한 모자 보건 분야 의료 지원사업에 500만 달러(약 55억 5,500만 원)를 지원하기로 함
 - 통일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서면 심의 방식으로 제30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개최하고 WHO 북한 모자 보건 분야 의료 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
 - WHO는 북한 내 산과·소아과 병원과 의과대학을 지정하고, 기관 평가, 의료진·교수진 교육 훈련, 교육 훈련 효과 제고에 필수적인 응급·수술 장비 중심 물자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500만 달러에는 평가, 교육 훈련 및 물품 지원, 모니터링 인건비 등의 항목이 포함됨
 - 한편 정부는 이번 교추협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북한 아동 및 장애인 지원사업에 15억 4,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함
 - 해당 사업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중심으로 북한 아동들의 영양 개선을 위해 탁아소·유치원에 밀가루 등 지원, 북한 장애인 재활 및 영양 지원이 이뤄질 예정임
 - 정부가 지원하는 15억 4,200만 원은 사업 총괄·기획, 영양지원사업, 장애인재활사업 등에 쓰일 계획임

■ 러시아 “북한 아동 사망률 감소 프로그램에 480만 달러 지원”(OBS, 2019.12.26)

- 러시아가 북한의 아동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유엔의 인도주의 프로그램에 480만 달러, 우리 돈 56억 원을 지원하기로 함
 - 앞서 러시아는 올해 3월과 4월, 6월에 인도적 지원으로 약 8천t의 곡물을 북한에 전달한 바 있음

■ 北 국가비상방역체계 선포 “국가 존망에 대한 정치 문제”(『아주경제』, 2020.1.29)

○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이하 신종 코로나) 유입 차단을 위한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선포하고, 신종 코로나 감염 방지를 국가의 생존과 연결된 정치 문제로 거론함

- 2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신형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자면’이라는 기사를 통해 “모든 당 조직들에서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의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국가 존망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여기고 정치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함
- 대북제재 영향으로 방역에 취약한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고자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선포, 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
- 북한 선전매체 ‘내나라’는 전날 “조선에서 방역 체계를 국가 비상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비루스에 의한 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북한은 현재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1개월간의 격리와 의료 관찰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
- 한편 북·중 접경이자 양국 최대 교역 거점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 움직임이 포착되자, 북한 당국이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짐
- 단둥시 선양(瀋陽) 주재 북한 총영사관 단둥 지부는 지난 27일부터 신종 코로나 발생과 관련해 북한 비자 발급 업무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짐. 랴오닝성 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단둥에서는 전날까지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함. 단둥은 압록강을 경계로 북한 신의주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北 매체 “외국인 380여 명 격리… 수입품 소독 지침서 배포”(YTN, 2020.2.24)

○ 북한 매체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380여 명을 격리하고 국경 지역에 수입품 소독 지침서를 배포했다고 보도함

- 조선중앙방송은 오늘 보도에서 전국적으로 외국인 380여 명을 격리시킨 것을 비롯

해 외국 출장자들과 접촉자들,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와 의학적 관찰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고 전함

- 방송은 특히 평안북도가 중국과 국경을 맞댄 지역적 특성에 맞게 방역을 강화했다면서 3천여 명의 의학적 감시 대상자들이 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전력과 물자, 난방 등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임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경 지역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자들에 대한 소독 지도서’와 ‘감염증을 막기 위한 국경 검사 검역 규정’ 등을 배포해 위생 방역 사업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다고 강조함

■ 유엔, 국제적십자 의료용품 대북제재 면제 승인(YTN, 2020.2.25)

- 유엔이 국제적십자연맹의 ‘코로나19’와 관련한 물품 지원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함
 - ‘코로나 19’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물품에 대한 첫 대북제재 면제임
 - 국제적십자연맹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24일 코로나19와 관련한 장비를 북한에 보내기 위한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힘
 - 연맹은 지난 20일 방역용 보호복과 보안경, 시험기구와 시약, 체온계 등 의료장비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요청했는데 나흘 만에 승인이 이뤄졌음

■ 러시아, 北에 우한 코로나 진단 키트 1,500개 제공(『조선일보』, 2020.2.27)

- 러시아 정부가 북한에 우한 코로나(코로나19) 진단 키트 1,500개를 제공함

■ 日 매체 “北, 압록강에 오물 버리면 바로 사격한다 中에 통보”(『조선일보』, 2020.3.4)

- 북한이 중국에 대해 압록강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9)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오물을 투기할 경우 경고 없이 즉각 사격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통보함
 -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지난달 초 국경을 걸어 잠그고 주민과 외국인의 출입을 전면 차단함. 북한 정부는 여전히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7,000여 명이 의심 증상으로 격리돼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의 평양-비평양 차별… 코로나에 지방 주민 더 취약”(『아시아경제』, 2020.3.7)

-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평양이 아닌 지방 거주 주민이나 출신 성분이 낮은 계층들이 코로나19에 치명적인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함

■ 북한도 마스크·소독제 비상… 생산 라인 총력전(『국민일보』, 2020.3.11)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면서 북한이 마스크와 소독제 등 주요 방역 물자 생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1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중국과 접경한 평안북도의 정주시에서는 원단과 의류공장들이 마스크 생산에 총동원됐고, 위생방역소와 의약품관리소에서는 소독약 생산을 늘려 모든 공장과 기업소, 협동농장, 거주구역에 제공할 계획임
 - 전 주민을 상대로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개인 위생을 특히 강조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내수만으로는 충분한 물자 공급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짐

■ 김정은, 평양종합병원 착공식 참석(『매일경제』, 2020.3.18)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7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석해 “당 창건 75돌이 되는 올해에 먼저 평양시에 인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현대적인 종합병원을 건설할 데 대한 과업을 토의 결정하였다”고 말함
 - 1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평양종합병원 착공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임

■ 北도 ‘코로나 초비상’… “마스크 안 쓰거나 열 나면 기차·버스 못 타”(『서울경제』, 2020.3.19)

- 공식적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인 북한이 점점 더 강도 높은 방역 총력전을 펼치고 있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방학을 최소 두 차례 미루었음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북한 당국이 최근 ‘공공교통수단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라는 지침을 전국에 시달렸으며 열차, 지하철도, 무궤도전차, 궤도전차,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에 의한 감염증 전파 방지를 위해 운전자, 승무원, 차장들이 지켜야 할 원칙을 소개함
- 지침에 따르면 이들 승무원들은 우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태우지 않음. 특히 여객열차나 장거리 버스의 경우 개찰구나 출입문 앞에서 37도 이상 열이 나는 승객은 ‘절대’ 태우지 못하게 함

■ 北, 국제사회에 “우한 코로나 검사 장비 지원해달라” 요청(『조선일보』, 2020.3.26)

- 북한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가 의료관리 시스템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면서 비밀리에 국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25일 보도함
- 북한 문제에 정통한 국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바이러스 확진자 검사 능력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내 감염이 없다는 ‘무(無)확진자’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함
-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지난 두 달간 1만 명에 달하는 북한 시민들이 격리됨

■ ASF 이어 코로나19까지 확산되면 어쩌나… 북한, 코로나 방역에 ‘엘리트’ 총동원 (『헤럴드경제』, 2020.3.29)

-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이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이 방역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과학적인 방역 대책을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 제목의 기사에서 엘리트 과학연구기관들이 방역에 총동원됐다고 보도함
- 『노동신문』에 따르면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과 농업연구원의 과학자들은 각 도 10여 개 지역으로 파견돼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음
-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코로나19 최신 연구 동향을 조사해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와 위생방역기관, 과학연구기관에 보냄

- 평양의학대학은 의약품 생산에 힘을 쏟고 있으며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에서도 검사기구, 시약, 자재, 광폭항비루스(바이러스) 주사약을 마련함

■ 북한 “코로나 비상방역체계 위반하면 처벌”(『한국경제』, 2020.3.31)

-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비상방역체계 이완을 우려함. 북한 언론에서는 코로나 방역 체계를 준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리경철 김일성종합대학 박사 부교수의 기고문 ‘비상방역체계에 대하여’를 전함. 리 부교수는 먼저 “비상방역체계가 전염병으로 하여 국가의 안전과 인민들의 생명, 사회경제 생활에 위협이 조성되었을 때 전염병과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구와 사업을 개편하여 세운 제도와 질서를 말한다”고 해설함
 - 북한은 지난 1월28일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함
 - 리 부교수는 특히 ‘비상방역체계에는 이외에도 비상방역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 처벌을 밝힌 내용이 있다’고 명시했는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언급하지 않음

■ 국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북한 통해 유입 잠정 결론(『한겨레』, 2020.5.7)

- 환경부가 국내 야생멧돼지들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에서 비무장지대를 넘어 유입됐다는 잠정 결론을 내림
 - 북한을 통한 유입 가능성은 전문가 사이에 초기부터 제기돼 정부에서도 비무장지대로 넘어오는 멧돼지를 사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정부 기관이 역학조사를 토대로 공식 인정하기는 처음임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7일 국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 결과 발표에서 “국내 유입 경로는 러시아·중국에서 유행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비무장지대 인근 접경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힘

-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그런 추정의 근거에 대해 “야생멧돼지 첫 폐사체가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이후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점이 모두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이며 이번에 바이러스의 유전형이 모두 중국과 러시아에서 확산된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10~11월 남방한계선 및 민통선 주변에서 최초 발생함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강원 철원·화천 지역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 밖까지 확산됐고 지난 3~4월에는 경기 연천과 강원 고성까지 번짐
 - 7일 기준 연천 238건, 화천 232건, 파주 97건, 철원 29건, 양구·고성 3건, 포천 2건 모두 604마리가 감염됨
 - 환경부는 역학조사를 위해 전국 야생멧돼지 폐사체 등 시료 1만 6,800여 건을 검사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585건(약 3.5%)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힘

■ “코로나 지원 거부하는 북한, 보건 위기 우려”(『경향신문』, 2020.5.7)

- 미국은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며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코로나19 방역 협조 의향이 담긴 친서를 보냈으나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 제로’ 주장을 이어가며 미국과 한국의 제안에 답하지 않음

■ “北, 코로나 예방 차원 천식 환자도 결핵병동 격리”(『조선일보』, 2020.5.19)

- 북한에서 지난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천식이나 감기 환자를 강제로 결핵병동에 격리 조치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19일 보도함
 - 『산케이신문』은 이날 북한 각지 주민과 연락을 주고받는 한국 거주 남성 탈북자를 인용해 “방역이 강화된 시기는 김 위원장의 활동이 공식석상에서 사라진 3주간과 일치한다”고 전함

■ 유엔, 北 코로나 대응 위해 16억 원 지원한다(『서울경제』, 2020.5.22)

- 유엔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6억 원 상당의 지원금을 확보함
 - 이는 앞서 유엔이 추산한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필요액인 3,970만 달러(보건 1,970만 달러·비보건 2,000만 달러)의 3%에 그치는 금액임
 - 유엔의 총 모금액인 10억 1,000만 달러 가운데 북한 모금액 비중은 0.13% 수준임
 - 김정은 정권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방역·의료물자 등이 부족한 북한에서 코로나19가 번질 것을 우려함

■ “북한 인구 절반은 영양부족 상태 매년 심해져”(『서울신문』, 2020.6.3)

- 북한 인구의 절반 정도가 영양부족 상태이며, 그 비율이 매년 꾸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미국 존스홉킨스 더 건강한 세계 연대, 글로벌 영양 개선연합(GAIN)이 공동으로 발표한 ‘식량 시스템 계기판’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48%(2017년 기준)가 영양부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북한에서는 대북제재 장기화와 이상기후로 식량난이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으며 지난해에는 가뭄과 태풍 링링 등의 영향으로 수확량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의 영양부족 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2013년에는 영양부족 비율이 43%였지만 2015년 44%, 2016년 46%로 꾸준히 상승 중임

■ 유니세프, 북한 주민 4만 명에 위생용품 지원(『서울신문』, 2020.6.23)

-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이 이달 들어 북한 주민 4만여 명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함
 - 유니세프는 2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보고서 9호’에서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북한 주민 4만 1,573명과 보건 시설 121곳에 지원함

- 유니세프가 지난 19일 기준으로 확보한 대북 지원 자금은 47만 4,900달러로 전체 필요한 금액(465만 8,362달러)의 10.2% 수준임
-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예방접종 등 보건과 영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달 말까지 필수 보건·영양 구호품들을 운송할 수 있도록 북한 보건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함

■ 北, 코로나 방역 위해 영유아 보호자 보조금 지급(OBS, 2020.7.12)

-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영유아 보호자들에게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여성과 어린이 대상 방역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 대외 선전매체 ‘내나라’는 북한 당국이 잠정적으로 보육기관들의 운영을 중지하고 5살 미만 어린이들의 보호자들에 대한 휴가와 일시적 보조금을 주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소개함
-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해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으로 다만 구체적인 보조금 액수나 지급 기간과 시기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음

■ IFRC “코로나 대북지원 ‘진단키트·마스크’ 신의주 도착”(『헤럴드경제』, 2020.7.14)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돕기 위해 준비한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 구호품들이 지난주 북한에 도착함
- VOA는 13일 IFRC 대북 지원 물자는 중국 베이징에서 육로로 북-중 국경 지역 단둥을 거쳐 신의주로 반입됐다고 보도함
- 이번에 도착한 방역 물자는 코로나 진단키트 1만 개와 마스크 4,000장이며 북한 적십자사에 전달되기 전 검역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북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7월 초부터 임상시험 시작”(『한국경제』, 2020.7.18)

-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자체 개발에 착수함
- 18일 북한 내각 산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웹사이트 ‘미래’에 따르면 ‘신형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 후보 약전(백신)을 연구 개발’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옴. 해당 글을

보면 북한에선 현재 코로나19 백신 관련 임상시험이 진행 중임

- 글은 “동물시험을 통해 후보 백신의 안전성과 면역원성이 확인됐으며 7월 초부터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밝힘. 이어 북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3상 임상시험은 논의 중에 있다”며 “북한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에서도 코로나19 후보 백신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임
- 이 백신은 의학연구원 의학생물학연구소가 개발한 것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에 침입할 때 사용하는 숙주세포의 수용체인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2’(ACE2)를 활용함. ACE2에 결합하는 바이러스 외막 돌기 단백질의 유전자 배열 자료에 기초해 백신을 재조합했음

■ “임상3상 앞뒀”… 북한이 개발했다는 코로나19 백신(YTN, 2020.7.19)

- 북한 의학연구원 의학생물학연구소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고 밝힘
 - 북한 내각 산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웹사이트 ‘미래’에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연구소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침입할 때 사용하는 수용체 ‘안지오텐신 전환효소2’를 활용해, 여기에 결합하는 바이러스 외막 돌기 단백질의 유전자 배열 자료에 기초해 백신을 재조합했다고 주장함
 - 앞서 지난 2월 ‘코로나19’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한 북한은 아직 그 결과물은 내놓지 않고 있음

■ 국내 민간단체, 북한에 ASF 진단장비 지원(OBS, 2020.7.25)

- 우리 민간단체가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 장비를 지원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남북경제협력연구소의 ASF 진단 장비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힘
 - 단 면제 기간은 이번 달 22일부터 6개월간으로, 냉장고와 주사기 유전자 증폭기 등 55개 품목임

■ 北, 6월 中 의약품-의료장비 수입 2.6배로 늘어(『동아일보』, 2020.7.30)

-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의약품과 의료 장비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확인됨
 - 29일 중국 해관총서(세관)의 대외 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6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의약품과 의료 장비는 모두 513만 2,968달러(약 61억 2,000만 원)어치로 5월(195만 달러)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었음
 - 특히 지난달 수입 품목에는 4, 5월에는 전혀 수입하지 않았던 체온계(2,000개), 청진기(5,350개), 혈압 측정기(1만 5,700개) 등 의료 장비가 새로 추가됨. 의료용 X레이 장비 1대와 기타 의료용 기기 9대, 의료용 가구 4개도 포함됨
 - 북한은 주로 감염증 치료에 쓰이는 아목시실린과 암피실린, 세프트리악손 등 항생제의 수입량도 지난달 크게 늘렸음. 암피실린은 5월 수입량이 1,530kg이었으나 6월 5,325kg으로 세 배 이상으로 늘었고, 세프트리악손도 5월 6,271kg에서 6월 1만 5,072kg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함. 6월 수입한 항생제만 55t에 달함

■ 北 최룡해, ‘탈북민 월북’ 개성시 코로나19 방역 실태 긴급 점검(『아주경제』, 2020.7.30)

-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개성시를 찾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태를 긴급 점검함
 - 개성시는 최근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의 월북으로 봉쇄됨. 북한은 해당 탈북민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다고 주장, 국가 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고, 개성시의 문을 걸어 잠갔음
 -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노동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코로나19 방역 체제를 강화함
 - 이후 북한은 각지 철도역과 장거리 버스 정류소, 도 소재지 입구 등에 방역 초소를 증강 배치함. 동시에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의무화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음

■ “북한, 코로나 봉쇄 조치로 만성질환 사망률 증가… 보건·경제 협력 필요”(『아시아경제』, 2020.8.2)

-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국경을 닫아 걸고 도시 간 이동도 제한하면서 주민들의 만성질환 사망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
- 이요한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7월 호에 게재한 ‘북한의 경제와 주민 건강’ 논문에서 아래와 같이 밝힘
 - 이 교수에 따르면 북한처럼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빈약한 국가일수록 주민들은 식량과 약품, 생필품 등을 자체적으로 조달함. 특히 이런 경향은 감염병 확산 차단에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심혈관질환, 암, 호흡기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들이 필요한 물품을 제때 구할 수 없게 함
 - 북한은 현재 전체 사망의 80% 정도가 만성질환으로 인해 발생하고, 감염병 질병 부담보다 만성질환의 질병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함

■ “북한 아이들 절반 이상 납 중독… 세계 14위”(『머니투데이』, 2020.8.2)

- 북한 어린이 중 절반 이상이 납 중독 상태에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음
 -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와 국제 환경단체인 ‘퓨어어스’가 공동 발표한 ‘독성 물질의 진실: 오염과 어린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등 외신이 2일 보도함
-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와 청소년 487만 명이 납 중독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조사 대상 204개국 중 14번째로 많음
 - 이들의 평균 혈중 납 농도는 1dl(데시리터)당 6.63 μ g(마이크로그램)임
 - 전문가들은 어린이의 혈중 납 농도가 1dl당 5 μ g를 초과하는 경우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함

■ 민간단체, 코로나·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물품 북한에 보낸다(『한국일보』, 2020.8.6)

- 민간단체가 신청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방역 물품의 대북 반출을 통일부가 승인함
 - 특히 열화상카메라의 경우 이미 국제사회 제재 면제가 확정된 상황이라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 통일부는 6일 “민간단체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신청한 열화상카메라 20대와 ASF 진단키트의 반출을 5일 승인했다”고 밝힘
 - ASF 진단키트의 경우 2만 달러(2,400만 원) 상당으로, 960차례 진단할 수 있는 분량으로 알려짐
 -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지난달 30일에도 8억 원 상당의 코로나19 방역 물품 대북 반출 승인을 받음. 유전자증폭(PCR) 장비·진단키트·방호복·온도계·소독약 등의 품목을 지원할 예정임

■ 北, 코로나 봉쇄 개성에 특별 지원물자 전달(『동아일보』, 2020.8.10)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봉쇄된 개성시에 7일 오후 특별 지원 물자가 전달됐다고 9일 『노동신문』이 전함
 - 앞서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 노동당 중앙위 회의에서 개성시에 대한 특별 지원을 지시한 바 있음

■ 북한 코로나 어떻게... 상반기 식량·의약품 수입 급증(KBS, 2020.8.20)

- 북한이 올 상반기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의약품과 식자재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조사됨
 - 20일 한국무역협회가 공개한 ‘2020년 상반기 북한-중국 무역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이 크게 줄었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66.5% 감소한 3억 8,300만 달러, 대중국 수출은 72.3% 감소한 2,900만 달러임

- 주요 식자재와 의약품 수입은 오히려 늘었거나 소폭 감소함
 -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인 식용유는 올 상반기 수입액이 0.8% 늘어난 6,300만 달러임
 - 수입 5위 품목인 설탕도 6.1% 증가한 2,000만 달러이며, 수입 2위 품목인 밀가루·전분은 수입 감소폭이 7.3%임
 - 이에 따라 이들 식자재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식용유(16.5%)는 2.9배, 설탕(5.2%) 2.8배, 밀가루(9.1%) 3.3배로 크게 늘었음
- 중국에서 수입하는 의료용품(1,500만 달러)은 -10.5%로 감소 폭이 적었음
 - 이 중 의약품(1,000만 달러) 수입은 2.3% 증가함. 이에 따라 전체 수입에서 의료용품이 차지하는 비중(3.9%)은 2.5배 늘었음
 - 이는 플라스틱 제품(-77%), 인조 필라멘트(-82%), 고무 제품(-52%) 등 공산품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과 대비됨
- 북한은 올 상반기 러시아로부터도 밀과 의료용품 수입을 크게 늘렸음
 -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주요 제품은 연료(경유·중유·가스), 곡물(밀), 식용유(대두유), 밀가루, 의료용품순임
 - 이 중 밀은 98% 증가한 74억 1,800만 달러, 의료용품은 66.2% 증가한 8억 9,900만 달러임

■ 국정원 “김여정 2인자… 北 평양 강원 황해 코로나 통제”(KBS, 2020.8.21)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른바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함
 - 최종 결정은 김 위원장이 하지만, 대남·대미 정책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총괄하고, 경제·군사 분야도 당과 군의 주요 인사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함
 - 특히 김여정 부부장은 실질적인 북한의 2인자이며 신설된 군정지도부가 서열상 총정치국보다 위에 있다고 국정원은 국회에 보고함
 - 다만 후계 구도와는 관련 없고 김 위원장의 건강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국정원은 북한의 코로나19 상황도 심상치 않으며, 공식적으로는 환자가 없지만 최대 비상방역체제에 들어가 평양과 황해도, 강원도에 출입 통제 조치가 내려졌다고 전함

■ 남북협력기금 3.1% 증액 1조 2,400억 원… 보건의료·농축산 협력 준비(『아시아경제』, 2020.9.1)

- 정부는 2021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3.1% 늘어난 1조 2,400억 원 규모로 편성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대비하는 한편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복원을 위한 준비를 해나간다는 방침임
 -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업은 남북 공유 하천 홍수 예방(6억→65억 원), 코로나19 등 보건의료 협력(585억→955억 원), 농축산·산림·환경 협력(3,045억→3,295억 원) 등이 있음
 - 또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사업을 위해 접경지역에 ‘평화통일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도 32억 7,000만 원이 편성됨
 - 사업별 예산 가운데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관련 예산은 976억 원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함
 - 지자체에 ‘통일플러스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교류 협력 상담과 통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 편성액은 올해 4억 5,000만 원에서 내년 33억 8,000만 원으로 늘었음
 - 북한 이탈 주민의 자립을 지원하는 취업 장려금·고령 가산금·한 부모 가산금 등은 40만~80만 원 증액됨

■ “北 영유아 사망률 한국의 6배… 코로나19가 생존률 위협”(『세계일보』, 2020.9.10)

-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이 계속 줄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보다는 6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유엔이 9일 발표한 ‘2020 어린이 사망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만 5세 미만 영유아 1,000명당 사망자는 17명으로 추산됨

-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은 1990년 1,000명당 43명 수준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7년 75명으로 급증했다가 이후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임. 지난해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은 전 세계 평균인 1,000명당 38명의 절반 이하 수준임
- 하지만 한국의 영유아 사망률(1,000명당 3명)에 비해 6배 가까이 높은 수준임

■ 북한, ‘코로나 백신’ 사려고 국제기구에 줄섰다(『한국일보』, 2020.9.22)

-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하기 위한 임시 국제기구에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남
 - WHO는 백신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과 함께 이른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이하 코백스)’라는 백신 공급 기구 출범을 선언함. 내년 말까지 전 인구의 20%까지 백신을 균등하게 공급하는 게 목표로, 전 세계에서 156개국이 참여했음
 - WHO는 저소득 국가를 위한 ‘코백스 선진시장공약(AMC)’도 추진함. 향후 코백스가 책정하는 백신 가격보다 저렴하게 백신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여기에는 북한도 포함됨

■ 코로나로 원산·함흥 등 북한서도 사망자 나왔다(『조선일보』, 2020.9.28)

-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없다는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지난 5월 북한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나타남
 -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에 강영실 북한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이 게재한 ‘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기술적 대응’에 따르면, 북한의 사리원과 신의주, 원산, 함흥, 청진, 회령,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에서 지난 5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5월 함경북도 지역에 1만 4,000명의 코로나 자가격리자가 나왔고, 북한 전역의 자가격리 인원은 2만여 명에 달한다고 전함
 - 다만 북한은 공식적으로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

■ 北 ‘방역 실패 책임’ 국가보위상 계급 강등(『조선일보』, 2020.9.29)

- 북한이 우리의 국정원장 격인 정경택 국가보위상을 대장(별 넷)에서 상장(별 셋)으로 강등시킨 것으로 28일 확인됨
 -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7월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자가 월북했다는 보고를 받고 노동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을 지시함

■ 김정은 “코로나19 피해자 한 명도 없어… 남녘 동포 손 맞잡길 기원”(『세계일보』, 2020.10.10)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 명의 피해자도 없다”며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굳건하게 손 맞잡길 기원한다”고 밝힘

■ “사회주의가 우리를 지켰다”… 수만 명이 ‘노마스크’로 환호성(『한국일보』, 2020.10.7)

-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진행함
 - 10일 0시 열병식 시작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은 마스크를 끼지 않고 연설에서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반복해서 강조했으며, 북한이 코로나 청정 지대임을 부각시킴
 - 북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공식 확인된 적은 없음
 - 세계보건기구(WHO) 평양 사무소도 “북한에서 지난달까지 3,300여 명이 코로나 19 검사를 받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힘

■ 세계동물보건기구 “북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진행 중”(OBS, 2020.10.17)

-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진행되고 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밝힘
 - OIE는 최근 정례 보고서에서 아시아 25개국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진행 중인 나라로 분류하고 여기에 북한도 포함했음

- 다만 북한은 지난해 5월 30일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에서 돼지열병이 발병했다고 OIE에 공식 보고한 이후 추가 발병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OIE 측은 전함

■ 대북 코로나 방역물품 승인했지만… “北 거부로 실제 반출 전무”(『한국경제』, 2020.10.22)

- 통일부가 올해 들어 민간단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물품 대북 반출을 6차례 승인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3월 31일부터 8월 12일까지 6차례에 걸쳐 총 17억 6,000만 원 상당의 방역물자 대북 반출을 승인함
 - 그러나 통일부는 승인 후 반출 현황을 묻는 전해철 의원실 질의에 ‘실제 북한에 반출된 물품은 없다’고 답함

■ 北 「비상방역법」 “바다 불법 출입 금지… 외국인도 복종”(YTN, 2020.11.1)

-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비상방역법」을 제정해 국경과 바다의 불법 출입을 금지함
 -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에 따르면 「비상방역법」은 비상 방역 기간에 이 같은 의무를 따라야 한다며, 외국인도 비상 방역 조치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함
 - 수상한 물품이나 죽은 동물, 바다 오물을 발견한 경우 접근하지 말고 즉시 방역기관에 통보해야 함
 - 불필요한 타 지역 이동, 집단으로 모여 음식을 먹는 행위 등도 금지했으며, 마스크 착용, 악수 금지 등의 조항도 있음
- 「비상방역법」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북한이 최근 제정한 법률로 추정되며, 북한은 『민주조선』을 통해 지난달 네 차례에 걸쳐 이 법을 소개함

■ “北, 코로나 확진자 0명”… 일주일 만에 1,600명 검사(『조선일보』, 2020.11.10)

-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0월 말까지 북한에서 약 1만 2,000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지만,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함

- 북한은 지난달 22일까지 1만 46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한 것으로 파악됨. 그로부터 7일 만에 1,610명을 더 검사함
- 북한 보건성이 지난달 29일까지 1만 2,07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함
-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함
- 살바도르 소장은 북한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남포항과 신의주 육로 국경지대 입국 검역소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함
- 북한은 공식적으로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반면 지난 9월 탈북민 출신 강영실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한 경제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의 중앙비상방역지휘부 내부 자료를 인용해 사리원과 신의주, 원산, 함흥, 청진, 회령,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일대에서 지난 5월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힘
 - 평양과 개성, 평성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난 5월 코로나 감염 의심으로 자가격리된 인원은 총 2만여 명에 달함. 평양과 자강도, 양강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코로나가 퍼지고 있다고 설명함

■ 북한, 연일 금연 강조… 흡연 유해성 강조(『문화일보』, 2020.11.11)

- 최근 「금연법」을 채택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언급하며 흡연의 유해성을 강조함
 - 북한은 지난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금연법」을 채택함. 「금연법」은 담배의 생산부터 판매, 흡연까지 통제하는 법률로, 극장·영화관 등 공공장소, 어린이 보육기관, 교육기관, 의료·보건시설, 상업·금양 봉사시설, 공공운수수단 등에 흡연 금지 장소를 지정하고 흡연 질서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 ‘바다도 코로나 오염 될라’… 북한 해안 방역 고삐 조이기(『매일경제』, 2020.11.28)

- 최근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하면서 북한이

방역의 고삐를 한층 조이고 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초긴장 상태를 계속 견지하며 방역 진지를 철통같이’ 기사에서 해안 도시인 황해남도 해주와 평안북도 선천의 방역 활동을 소개함
 - 신문은 “당 정치국 확대회의 이후 (해주) 시의 일군(간부)들은 해안가에 전개한 감시 초소들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 있다”면서 담당 간부가 현지에서 나가 방역학적 감시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함
-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북한은 바닷물이 코로나로 오염되는 것을 우려해 어업 활동과 소금 생산까지 중단했다고 보고함
- 북한은 앞서 15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함
 -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확대회의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전파 상황의 심각성과 국가 방역 실태에 대해 상세히 분석·평가했으며 “초긴장 상태를 계속 견지하며 완벽한 봉쇄 장벽을 구축하고 비상방역전을 보다 강도 높게 벌여나갈 것”을 주문한 바 있음

10. 접경지역

■ 그 많던 독수리는 다 어디로 갔을까… 한때 ‘독수리 마을’로 유명했던 양구군 선안골 들녘 썰렁(『경향신문』, 2019.12.4)

- 지난 3일 오후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해 있는 강원 양구군 방산면 현리 선안골의 ‘독수리 보호장’은 텅 비어 있었음
 - 독수리보호협회 회장(65)은 “15년 전만 해도 300여 마리의 독수리 떼가 몰려들어 장관을 연출했는데 최근엔 1~2마리도 보기 힘들다”고 말함
 - 박 회장은 “중국과 북한 등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국내 축산·가금류 사육 농가에 비상이 걸리면서 어쩔 수 없이 2005년 11월부터 독수리에게 먹이를 주는 활동을 중단하자 이듬해부터 선안골을 찾는 개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수년 전부터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고 말함

■ 임진강 빙애여울 두루미들… 세계 최대 월동 낙원 다시 찾아(『중앙일보』, 2019.12.7)

- 지난 4일 오후 임진강 상류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된 이곳에는 두루미와 재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3호) 150여 마리로 가득함
 - 두루미와 재두루미는 직선거리로 1,000km 떨어진 시베리아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이곳으로 날아옴
 - 빙애여울은 전 세계에 3,000여 마리만 남은 멸종위기 희귀 겨울 철새인 두루미의 최대 월동지임
 - 이곳은 군사분계선에서 3km 정도 거리임

■ [DMZ의 야생] 관박쥐(YTN, 2019.12.24)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1946년에 지어진 북한의 옛 조선노동당 철원군 당사 건물 외벽의 포탄 자국, 갈라진 틈 안쪽에는 박새가 동지를 틀었고 별이 들지 않는 1층 방 안 구석에 관박쥐가 있음
 - 관박쥐는 크기가 5~6cm 정도로 아주 작으며 코가 말편자처럼 생겨 말편자박쥐라고도 함
 - 우리나라 박쥐 가운데 유일하게 입이 아닌 코 주변 피부 주름(비엽)에서 초음파를 발사함
 - 낮에는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가 해 질 무렵부터 활동함. 주로 나방이나 딱정벌레 등의 곤충을 잡아먹음

■ 산림청-독일 정부, DMZ 국제평화지대(안) 조성 논의(『아시아경제』, 2020.1.29)

- 29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날 박종호 산림청장은 독일 본 소재 연방 자연보전청(Bundesamt für Naturschutz)에서 베아테 예셀 청장을 만나 한국의 접경지역(DMZ) 관리·활용 방안을 논의함
 - 독일 메르켈 총리가 오는 6월 29~30일 서울에서 열리는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 참석해 ‘그뤼네스 반트(Grünes Band)’ 사례를 소개하는

것과 한국-독일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성장에 상호 협력관계를 맺는 것 등을 제안함

■ 한 주 동안 DMZ서 산불 3건… “진압작전 시 北과 소통”(『세계일보』, 2020.3.14)

○ 이번 주 들어 남북한의 접경지대인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3건의 산불이 발생함

■ ‘분단이 만든 작품’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국내 네 번째(『서울경제』, 2020.7.7)

○ 7일 경기도는 지난달 29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중인 유네스코 제209차 집행이사회에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힘

- 인증받은 곳은 한탄강이 흐르는 경기 포천시 유역 493.24km², 연천군 유역 273.65km², 강원 철원군 유역 398.72km² 등 모두 1,165.61km²로, 여의도 면적(2.9km²)의 400배에 달함
-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가 미적, 고고학적, 역사·문화적,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곳을 보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지정하는 구역임

■ 유엔사 “DMZ 수해 막으려 韓 진입 요청 12건 허가”(『세계일보』, 2020.8.7)

○ 유엔사는 7일 SNS를 통해 전날(6일) 밤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한국 측의 DMZ 진입 긴급 요청을 총 12건 허가했다고 밝힘

- 이번 한국 측의 DMZ 진입 긴급 요청은 DMZ 내에 있는 홍수 피해 저감 시설 방문 및 가동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앞서 북한이 한국에는 알리지도 않고 임진강 황강댐 수문을 열고 방류 조치를 하는 바람에 남측 임진강의 수위가 급격히 올라감

■ 북한강 최상류 접경지 하천, ‘북한 쓰레기’로 몸살(KBS, 2020.8.19)

○ 지난달 말부터 남북을 오가며 쏟아진 집중호우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북한에서 떠내려 온 것으로 추정됨

- 화천군은 지난 집중호우 때 북에서 밀려온 쓰레기가 적어도 2,500톤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화천군은 밀려온 쓰레기 처리가 지자체의 역량을 넘어섰으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음

■ 한강 하구 습지 생태조사 내일부터… “남북 공동 연구 대비”(『경향신문』, 2020.11.1)

- 정부가 남북 접경지역인 한강 하구의 남측 지역 습지에 대한 생태조사에 착수함
- 1일 통일부와 환경부,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일부터 내년 8월까지 10개월간 한강(임진강) 하구의 남측 지역 습지에 대한 생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조사 대상 지역은 남측 하천구역인 보구곶~한강 상류부(만우리) 일대 습지이며, 면적은 약 80km²에 달함
 - 조사를 진행하는 국립생태원은 한강하구 남측 지역 습지와 그 배후 지역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비롯해 계절별로 다양한 분류군의 생물의 현황과 특성을 조사할 예정임
 - 한강하구 식물 지리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식물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을 실시해 남북 지역에 공통으로 서식하는 식물의 유전학적 특성도 파악할 계획임

11. 정치·경제

■ NYT “외화벌이 마땅찮은 北, 관광에 더 주력”(YTN, 2019.12.5)

-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전방위적인 제재로 경제발전의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관광으로 ‘외화벌이’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분석함
 - 『뉴욕타임스』는 김정은 위원장의 ‘삼지연 방문’에 주목하면서 “노후한 성지를, 스키장·스파·호텔을 갖춘 현대적인 복합리조트로 탈바꿈하는 작업은 김 위원장의 중점사업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함.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양덕 온천관광지구 등도 김 위원장이 주력하는 사업으로 꼽았음

■ 김정은, 양덕온천 준공식 참석… “온갖 도전 뚫고나간 빛나는 결실”(『경향신문』, 2019.12.8)

- 조선중앙통신은 8일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준공식이 12월 7일 성대히 진행되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 테이프를 끊었다고 보도함
 - 지난해 11월 건설을 시작한 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166만여㎡ 부지에 실내·야외온천장, 스키장, 승마공원, 여관을 비롯해 치료 및 요양구역과 체육문화기지, 편의봉사시설 등으로 구성함
 - 김 위원장은 올해에만 네 차례 이곳을 현지지도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음. 김 위원장은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완공은 가장 정확한 영도력과 가장 위대한 향도력으로 막아서는 온갖 도전을 맞받아 뚫고 나가는 조선노동당만이 안아올 수 있는 빛나는 결실”이라며 큰 만족감을 표현함

■ ‘금강산 철거·정비’ 남북협의 사실상 일시중단… 관광도 ‘먼길’(연합뉴스, 2020.1.10)

- 북한은 김 위원장이 작년 10월 23일(북한 매체 보도일) 금강산 시찰 과정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짝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이후 ‘시설 완전 철거·문서 협의’를 요구함
 - 통일부 당국자도 전날 “입장 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협의 진전이 없다”며 협의 자체가 소강 국면임을 시사함

■ 북 식량 가격, 국경지역 중심 40% 이상 폭등(『문화일보』, 2020.2.10)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여파로 북·중 국경이 통제되면서 북한의 주요 국경 지역의 쌀 가격이 2주 만에 40% 이상 폭등한 것으로 나타남
 - 10일 북한 전역의 장마당 시장 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데일리NK에 따르면 북·중 국경도시인 양강도 혜산 지역의 쌀 가격은 지난 1월 중순 1kg당 4,550원에서 2월 초 6,550원으로 40% 이상 올랐음
 - 쌀 가격 상승은 혜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한 폐렴 여파가 길게는 여름철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4월부터 시작되는 춘궁기에는 북한 경제에 더 큰 타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온난화에 신중 코로나까지… 녹아내리는 北 김정은의 “스키 리조트 야망”(『조선일보』, 2020.2.13)

- 블룸버그통신은 12일 ‘김정은의 북한 스키 리조트 야망이 녹아내리고 있다(Kim Jong Un’s Ski Resort Ambitions in North Korea Are Melting)’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관광 수입 증대로 경제난을 극복하겠다고 야심차게 건설한 마식령스키장과 삼지연스키장 등이 기후온난화와 신종 코로나 확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함
 - 스키 리조트 건설은 김 위원장이 집권 이래 심혈을 기울여온 사업임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난을 관광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구상은 그러나 중국에서 코로나 19가 발병하면서 난관에 봉착함
 - 게다가 프랑스 알프스산맥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기후온난화로 저지대에 눈의 양이 줄어드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함

■ 북한 쌀값 1년새 26% 폭등했다… 코로나19로 경제난 심화(『국민일보』, 2020.5.20)

- 20일 대북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평양 쌀값은 1kg당 5,050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6% 증가함
 - 특히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차단을 이유로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한 지난 2월 평양의 쌀값은 직전 달과 비교해 약 31% 뛰었음
 - 최근 평양 쌀 가격의 가파른 인상은 북·중 국경 폐쇄에 따른 결과로 보임
 - 쌀값 상승 등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경제난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北, 中 골프 관광객 유치… 관광업 육성, 외화벌이 강화(디지털타임스, 2020.7.25)

- 25일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조선관광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 골프 전문 여행사인 ‘려명 골프 여행사’가 지난해 중국 관계자를 초청하고, 골프·관광 분야 협력을 논의함
 - 그간 북한에서는 ‘조선국제체육여행사’가 골프를 비롯한 스포츠 관광 전반을 담당해 왔지만, 골프 전문 여행사가 등장한 것은 이례적임

- 여행사에 중국 시장 담당자를 두고 중국 골프협회 관계자 등을 골프장에 직접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낸 것도 이색적인 일임

■ 北 “코로나 의심 탈북자 7월19일 개성으로 귀향”… 김정은 ‘최대비상체제’ 선포(『헤럴드경제』, 2020.7.26)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6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 코로나19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한 데 따른 조치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김 위원장은 관련 보고가 올라온 직후인 지난 24일 오후 중에 개성시를 완전 봉쇄했고 구역·지역별로 격폐시키는 ‘선제적인 대책’을 취했다고 밝힘
 - 또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하며, 특급경보를 발령할 데 대한 당 중앙의 결심을 천명하시였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비료 수입 1년 만에 9분의 1로… 대체 무슨 일이(『조선일보』, 2020.8.4)

- 4일 중국 해관총서(세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북한의 중국 비료 수입액은 총 438만 달러, 한화로 약 52억 원으로 집계됨
 -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비료 수입 총액인 4,082만 달러의 9분의 1 수준임

■ 김정은, ‘태풍 피해’ 함경남도 현지 시찰… 도당위원장 해임(KBS, 2020.9.6)

- 우리로 치면 도지사에 해당하는 북한 함경남도 당위원장이 태풍 피해 책임을 지고 전격 교체됨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함경남도를 방문해 내린 결정인데, 이뿐만 아니라 군과 핵심 당원들을 피해 지역으로 급파하는 등 재해 극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함경남도과 함경북도 해안 연선지대에서 1,000여 세대의 살림집(주택)들이 각각 파괴되고 적지 않은 공공건물들과 농경지들이 침수됨
 - 우리의 도지사 격인 함경남도 당위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곧바로 후속 인사를 단행

하는 조치를 취함

-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인력과 자재 수송 총동원령과 함께 군에도 지원 명령을 내렸으며, 친필 서한을 통해 수도 평양의 핵심 당원 만 2천 명을 함경남북도에 급파하라고 지시함
- 북한 당국은 이번 태풍으로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난 원산시와 강원도 간부들도 처벌하기로 결정함
- 북한 매체들은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이전 태풍들보다 더 강력하다며 그 어느 때보다 일사불란한 위기 관리를 더욱 강조하고 있음

■ “유엔, 북한 태풍 피해에 초기 지원”(『내일신문』, 2020.9.16)

- 유엔이 북한 태풍 피해와 관련해 ‘초기 지원’을 제공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함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대변인은 RFA의 북한 태풍 피해 관련 질의에 “유엔과 여타 인도주의 기구가 초기 지원을 제공했으며, 북한 당국이 복구와 재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힘
 - OCHA 대변인은 “8월 초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올해가 1981년 이후 북한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온 장마철로 보인다”며 “곧 본격적인 추수기가 시작되면서 태풍 피해가 식량 안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함
 - 지구 관측 국제 농업 모니터링 그룹(GEOGLAM)의 13일 특별 보고서는 “황해남도를 포함한 북한 남부의 4~9월 강수량은 1981년 이래 가장 많았고, 황해북도와 평안남도, 평안북도·함흥남도·강원도 일부 지역은 역대 3번째로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전함
 - 한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제기구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올해 초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관련 대북 지원에 약 45만 9,000스위스프랑, 한화로 약 6억 원을 지출했다고 밝힘. IFRC는 북한에 필수 의약품과 유전자증폭검사 장비, 시약, 개인 보호 장비, 온도계 등을 제공했다고 설명함

■ 북한, '삼중고' 속에서도 자립경제·자주국방 강조(『매일경제』, 2020.9.20)

-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0일 '존엄 높은 자주 강국을 건설한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경제적 자립이 없이는 자주 정치도 실현할 수 없고 부국강병의 대업도 성취할 수 없다"고 밝힘
 - 『노동신문』은 "강대한 힘을 비축한 우리 인민은 전쟁을 모르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며 자주국방의 당위성도 내세움

■ 북한, 유엔 연설서 한·미 거명 안 해… 대신 코로나19 방역 태세 강조(『헤럴드경제』, 2020.9.30)

- 북한이 유엔 총회 무대에서 예상과 달리 미국과 한국을 직접적으로 향한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와 관련한 자신들의 방역 조치를 부각하며 방어적인 대응 태세를 강조함
 - 75차 유엔 총회에서 일반토의 마지막 날인 29일 김성 유엔 주재 대사가 현장 연설함
 - 지난해 김 대사가 같은 연설에서 "조미 관계가 좀처럼 전진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매달리면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들을 일삼고 있는 데 기인한다"며 정면 비판했으나 올해는 북미관계 언급을 아예 생략함

■ 돈줄 막힌 北당국, '돈주' 자금 출처 전수 조사(『조선일보』, 2020.10.2)

- 북한 당국이 돈주(신흥 부자)들을 겨냥해 자금 출처 및 자산 형성 과정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 것으로 2일 알려짐
 - 북중 무역에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개인 승용차, 화물차, 어선, 집,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돈주들을 상대로 자금 출처 등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힘

■ 북한, 코로나19로 10년간 경제적 타격… 대중국 무역 급감(『서울신문』, 2020.10.2)

-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로 10년 뒤에도 영향을 받을 만큼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옴

- 2일 미국 농무부(USDA) 국제식량안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2030년 1인당 GDP 전망치는 618달러(2010년 달러 기준)로, 이는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전망값에 비해 1.9% 감소한 수치임
-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인당 GDP 연평균 성장률은 1.0%로, 큰 폭은 아니지만 최근 5년(2014~2019년)간 마이너스(-)0.9%였던 것과 비교하면 플러스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 2020~2030년 GDP 성장률은 연평균 1.4%로 예상함
-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연평균 상승률은 3.8%를 기록하는 가운데 북한 내 주요 곡물의 실질가격은 연 2.4% 하락할 것으로 USDA는 내다봄

■ 제재·코로나·수해 ‘3중 재난’ 맞은 김정은 “연말까지 80일 전투”(『한겨레』, 2020.10.6)

-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은 내년 초로 예고된 노동당 8차 대회를 앞두고 올해 경제 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80일 전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6일 『노동신문』이 1면에 보도함
- 『노동신문』이 “유례없이 엄혹한 올해의 시련과 난관들”이라 강조함
 - 북한은 장기·고강도 제재에 더해 1월 말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폐쇄, 8~9월의 풍수해 등 ‘3중 재난’ 탓에 올해 정한 목표 달성은커녕 경제 후퇴가 불가피한 상황임

■ 北, 1조 원대 차관 미상환… 상환 촉구에도 무응답(『중앙일보』, 2020.10.13)

- 북한이 상환하지 않고 있는 차관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해 그간 정부가 60회 이상 상환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통일부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약 9억 3,300만 달러(한화 약 1조 700억 원) 규모의 차관을 북한에 제공함
 - 구체적으로는 식량 차관(7억 2,004만 달러), 철도·도로 연결 자재 장비 차관(1억 3,290만 달러), 경공업 원자재 차관(8,000만 달러) 등임
 - 이 중 두 차례(2007년·2008년) 240만 달러 규모 일부 현물(아연괴)로 상환한 바

있음

- 북한이 당장 남측에 갚아야 할 상환액은 원금만 따져도 약 7억 9,800만 달러(한화 약 9,200억 원)임
- 남측은 상환 촉구를 위해 북측에 총 62차례 공문을 보냄. 세부적으로는 경공업 원자재 차관에 대해 27건, 식량 차관에 대해선 35건임

■ 日 마이니치 “北, 국경 봉쇄 풀고 경제 교류 재개”(YTN, 2020.10.15)

-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올해 초부터 지속한 국경 봉쇄를 풀고 대외 경제 교류를 재개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이 보도함
 - 『마이니치신문』은 복수의 무역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이달부터 남포와 청진 등 3개 항구에서 화물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함
 - 또 다음 달에는 철도와 화물 수송도 허가한다며 무역이나 노동력 수출 등 대외 경제 교류를 서서히 재개하는 것 같다고 전함
 - 이 신문은 중국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 훈춘시의 경우 숙박시설에서 10일 정도 격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국에 새로 입국하는 북한 노동자가 있고, 많을 경우 하루 200명에 이를 때도 있다고 무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함

■ 北 “코로나19 국경 봉쇄, 오히려 자력갱생할 절호의 기회”(『한국경제』, 2020.10.17)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자력갱생은 80일 전투의 위력한 보검’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악성 비루스(바이러스)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국경과 공중, 해상을 완전 봉쇄한 오늘의 현 상황은 자체의 힘과 기술, 자기의 원료, 자재에 의거하여 우리의 내부적 힘과 발전 동력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힘

■ “北 노동자들, 코로나 핑계로 중국서 여전히 외화벌이”(『한국일보』, 2020.10.22)

- 북한 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핑계 삼아 중국에서 계속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한 관계자는 신문에 “북한 노동자들은 올 1월 이후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다”고 말함

- 단둥뿐 아니라 선양 등 인근 도시들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한 북중 무역 관계자는 단둥에 위치한 공장 100곳 이상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증언함. 종사 업종도 의류와 전자부품, 수산가공 등 다양함
- 미국 국무부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지금까지 노동자 10만 명을 해외에 파견해 외화 벌이 창구로 삼았음. 이 중 대다수는 중국에 있으며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5억 달러(5,674억 원) 정도임

■ 올해 북·중 무역 72.8% 감소… ‘코로나19 봉쇄’ 원인(YTN, 2020.10.25)

- 코로나19 발생 이후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북중 무역이 지난해보다 무려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의 집계 결과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은 5억 3,117만여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 994억여 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8%가 줄어들었음
 - 특히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2천 81만여 달러, 우리 돈 약 234억여 원에 불과해 전달인 8월의 2,583만여 달러, 약 291억 원보다 19.4%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 3월 1,864만여 달러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6월에 9,680만여 달러로 다소 회복됐지만, 이후 7, 8, 9월 석 달 연속 줄어듦

■ 北 매체 “코로나 봉쇄 상황, 경제난 해소하려면 과학기술 집중해야”(YTN, 2020.10.27)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자 신문 논설에서 국경과 공중, 해상을 완전 봉쇄한 지금이야말로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자립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우리 내부적 힘과 발전 동력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는 호기라고 주장함

■ 北 근로자 10명 중 6명, 출근해도 돈 한 푼 못 받아…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 71.6% ‘역대 최저’(『아시아경제』, 2020.10.28)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북한 주민의 공식적인 경제활동 참여율이 71.6%에 그쳤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음

- 또 기업소나 공장 등에 나갔더라도 10명 중 6명은 소득을 얻지 못했다는 응답도 도출됨
- 28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해 탈북해 한국에 거주하는 남녀 1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의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공식 직장에 출근하는 비율)'은 71.6%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2년(89.8%) 처음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역대 최저 수준임
- 북한의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2년 이후 5년간 79.9~89.1%를 오르내리다 2018년에는 90.8%까지 올랐으며 2019년 75.9%로 떨어졌고 올해 70%대 초반까지 내리면서 2년 연속 급락함
- 다만 비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91.7%로 나타남. 이는 2012년 집계를 시작한 뒤로 계속 90%대를 유지함
- 기업소나 공장에 나가더라도 한 푼도 벌지 못한다는 응답도 많음. 공식 직장에서 소득이 전혀 없었다는 응답이 66%로 역대 최고임
- 또 보건의료환경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공식 의료시장은 꾸준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장마당·개인 약국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0%였지만, 작년과 올해는 모두 90%임
- 의식주 생활은 항목에 따라 다소 하락한 부분이 있었지만,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조사됨. 결식자는 거의 없었고, 주식도 거의 흰쌀로 먹었다는 응답률이 68.8%로 전년과 대동소이함

■ 유니세프, 내년 대북 지원 올해보다 2억 늘어난 252억 원(『중앙일보』, 2020.11.20)

-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이 북한의 어린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270만 달러(약 252억 8,000만 원)의 내년 예산을 책정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전함
 - 이는 올해 예산 2,250만 달러(약 250억 6,000만 원)보다 20만 달러(약 2억 2,000만 원) 증액됨
 - 유니세프는 지난해 말 올해 예산으로 1,950만 달러를 책정했지만, 지난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확산하자 지난 4월 보건 분야 예산 300만 달러를 증액함

- 어린이 160만 명과 성인 720만 명이 지원 대상임
- 유니세프는 내년도 지원 예산 중 영양 사업에 약 900만 달러, 보건 사업에 650만 달러, 식수 위생 분야에 717만 달러 등을 배분할 예정이며, 특히 자연재해와 코로나 19에 대한 '통합비상대비대응'도 지원할 계획임
- 영양 사업에는 5세 미만의 어린이 160만 명에게 비타민 A와 미세영양소를 지원하고,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59개월부터 6세 사이 어린이 9만 5,000명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공식 확진자 수 '0명'이라는 北... 코로나 재유행에 “완벽한 봉쇄 장벽” 강조(『아시아경제』, 2020.11.22)

- 북한이 공식적으로 자국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진자가 '0명'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완벽한 봉쇄 장벽'을 위해 앞으로 국경 봉쇄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함
 - 22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완벽한 봉쇄 장벽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세계적인 보건 위기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 대비해 완벽한 봉쇄 장벽을 구축해나가는 것은 비상방역전을 보다 강도 높고 벌여나가는 데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함
 - 아울러 각급 비상방역 기관의 간부들을 향해서는 “자만과 방심, 무책임성과 완만성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악성 비루스(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사소한 공간도 빠짐없이 찾아 철저히 차단하는 데 주되는 힘을 넣음으로써 우리의 방역 진지를 물 썰 틈 없이 다져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함
- 같은 날 조선중앙방송도 “모든 성원이 순간이라도 방심한다면 방역 장벽이 통째로 무너지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에 위협이 조성된다”라며 각 분야에서 비상방역조치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함

■ “北 수용소서 최근 7,000명 풀려나… 방역조치 일환인 듯”(『문화일보』, 2020.11.25)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북한이 최근 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7,000명을 풀어준 것으로 전해짐. 집단생활에 따른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 유엔 안보리, 인도주의적 대북 전염병·재해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추진(『아시아경제』, 2020.11.26)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의 전염병·재해 대응을 지원하려는 구호단체들에게는 유엔 대북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있음
 - 25일 주요 외신들은 익명의 유엔 안보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에 북한의 전염병과 재해 대응 등을 지원하려는 구호단체들의 제재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도 늘리자는 제안을 해왔으며,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함

■ “코로나 공포에 이상해진 김정은… 평양 환전상 처형, 어업 금지”(『중앙일보』, 2020.11.27)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환율 급락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지난달 말 비공개 처형한 것으로 알려짐.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북한 당국이 어업과 소금 생산을 금지하고, 방역 규정을 어긴 핵심 간부를 처형한 사실도 전해짐
-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유입 우려로 강도 높은 지역 봉쇄를 잇달아 단행함
 - 지난 1일 량강도 북·중 접경지대인 혜산시가 외화 밀반입 유통이 적발돼 봉쇄된 이후, 5일 나선시, 6일 남포시를 시작으로 20일엔 평양시까지 잇따라 봉쇄됐음
- 국정원은 이날 현안 보고에서 북한이 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하는 국내 제약회사를 해킹한 사실을 공개함

■ 대북제재보다 타격 컸다… 코로나 국경 봉쇄에 북중 무역 70%대 급감(YTN, 2020.11.27)

-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국경을 굳게 닫은 북한의 대중국 무역이 70% 넘게 급감함
 -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3분기까지의 북중 무역이 지난해보다 73% 줄어든 5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되었다고 밝힘
 - 대북제재 강화로 북중 무역이 절반 넘게 줄었던 2018년보다 훨씬 큰 감소폭임
 - 주요 수출품인 시계와 가발 수출이 사실상 단절됐고, 국경 봉쇄 영향이 없는 압록강 유역 수력발전 에너지 수출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북한, 코로나 상황서 탈북자 나오자 “휴전선 중심 깊이 봉쇄 장벽 구축”(『매일경제』, 2020.11.29)

-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휴전선과 해상에서의 봉쇄·통제를 강화함
 - 조선중앙통신은 “국경과 분계연선(휴전선) 지역들에서 봉쇄 장벽을 든든히 구축하고 일꾼들과 근로자, 주민들이 제정된 행동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사소한 비정상적인 현상들도 즉시 장악, 대책하도록 하고 있다”고 29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해안 연선지역들에서 바다 출입 질서를 더욱 엄격히 세우고 바다 오물들을 제때 수거, 처리하고 있다”며 “(해안 연선지역들에서) 바다 오물을 통한 비루스(바이러스) 전파 공간이 절대로 조성되지 않도록 강하게 대책하고 있다”고 강조함

■ 코로나 봉쇄 나선 평양, 사우나 ‘날바람 피로회복원’은 성황(『조선일보』, 2020.11.29)

- 북한이 최근 코로나 방역을 위한 ‘봉쇄 장벽 구축’ 등 비상방역 조치를 강조하는 가운데 평양에 있는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은 여전히 성업 중인 것으로 드러남
 -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9일 ‘독특한 피로회복 효과로 인기 상승, 외국인들도 호평하는 날파람 피로회복원’이라는 기사에서 “수도에는 피로회복 시설을 갖춘 봉사 단위들이 적지 않은데 최근 운영을 시작한 ‘날파람 피로회복원’이 특히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보도함

- 한편 북한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각지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습할 수 있는 빈틈과 공간을 찾고 앞질러 대책하면서 비상방역전을 더욱 강도 높게 전개하고 있다”며 “중양 비상방역 부문에서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세계 보건 위기 상황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일군들이 무경각한 현상들과의 투쟁의 도수를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다”고 보도함

■ ‘코로나 포비아’ 北 특수부대 투입… 물가 폭등에 주민들은 패닉(『조선일보』, 2020.11.30)

-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유입·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령을 내린 양강도 혜산시 등 국경 도시에 특수부대를 투입한 것으로 30일 알려짐
 - 이런 조치에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며 물가가 1주일새 10배 이상 폭등하는 등 국경지역 경제가 공황에 빠진 것으로 전해짐
 - 북중 국경지역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이날 “(11월) 27일 현재 혜산시의 설탕·식용유 등 식료품 가격이 전주보다 최소 10배 올랐다”며 “주민들이 폭등하는 물가에 놀라 장을 보지 못할 정도”라고 말함
- 국가정보원은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11월 1일) 혜산시가 외화 밀반입 사건 적발로 봉쇄된 데 이어 5일엔 나선시, 6일엔 남포시, 20일엔 평양까지 봉쇄됐다”고 보고함

■ 초조한 김정은, 경제난에 또 ‘버럭’… 美 대선엔 ‘쉬쉬’(『국민일보』, 2020.11.30)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 운영 상태 전반을 맹비난함
-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1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함
 - 김 위원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2주 만(보도일 기준)임.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 등이 회의에 참석함
 - 김 위원장은 “경제 지도기관들이 맡은 부문에 대한 지도를 주객관적 환경과 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함

-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8차 당 대회를 내년 1월에 소집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천명함

■ 북중 무역 99% 급감… CNN “김정은, 코로나로 생명줄 끊어”(『국민일보』, 2020.11.30)

- 북한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생명줄과 같은 중국과의 교역을 차단했다는 분석이 나옴
- 30일 미국 CNN 방송은 10월 중국의 대북 수출이 25만 3,000달러(한화 2억 8,000만원)로 전달보다 99% 감소했다는 중국 세관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함
 -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 수입은 74% 감소함
- 북한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하자 가장 먼저 국경을 폐쇄한 국가임

■ 저자약력

강택구 (연구책임)

중국 칭화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현)
tgkang@kei.re.kr

주요 연구실적

- 신남방정책과 대ASEAN 환경협력: 전략의 모색과 교육의 역할 (2020)
- After Breaking the Deadlock: Extending Cooperation with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rough Natural Disaster Management (2019)
- 중일 환경협력 분석을 통해 본 한중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 (2019)

김현아 (前 연구보조원)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과정

정동희 (前 연구보조원)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 석사과정

장수민 (前 연구보조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 석사과정

김다운 (前 연구보조원)

청주대학교 환경조경학 학사

KEI 연구보고서 목록 (2016~2020)

기후환경정책연구

발행연도 | 보고서 번호 | 보고서 제목 (연구책임)

- 2020년
- 2020-01 북한의 산림복원과 기후변화가 물관리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연구(II) (김익재, 전동진)
 - 2020-02 Data Science 기반 기후변화 대응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 연구 (이명진)
 - 2020-03 재생에너지 확산 이행방안 연구(I) (이상엽)
 - 2020-04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대기질 변화 추정 및 관련 정책 지원 연구 (이승민)
 - 2020-05 기후변화 적응정책 10년: 현주소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장훈, 송영일)
 - 2020-06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II) (한상운)
 - 2020-07 포스트 코로나 시기 국가 온실가스 배출 반등효과 전망 및 대비 방향 (이상엽)
 - 2020-08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전환 포럼 운영 (신동원)
- 2019년
- 2019-01 기후변화를 고려한 미세먼지 예측 및 중장기 관리정책 수립 연구 (이승민)
 - 2019-02 북한의 산림복원과 기후변화가 물관리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연구 (김익재)
 - 2019-03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I) (한상운)
 - 2019-04 기후변화적응정책 10년: 현주소 진단과 개선방안모색을 중심으로 (장훈)
 - 2019-05 기후변화 파리협정 적응보고 세부이행규칙 대응방안 연구 (강상인)
 - 2019-06 혼합정수계획법을 이용한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 평가 (김용건)
 - 2019-07 환경-주민수용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범)
- 2018년
- 2018-01 에너지전환을 고려한 중장기(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전략 (이상엽)
 - 2018-02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을 위한 기후, 대기, 에너지 정책 연계 방안: 발전,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채여라, 전호철)
 - 2018-03 기후위험 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방안 연구 (이승준)
 - 2018-04 기후환경 이슈 분석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활용방안 연구 (진대용)
 - 2018-05 2018 기후변화 파리협정 이행협상 동향 및 대응방안 (강상인)
 - 2018-06 지역기반 참여형 연구방법론 연구: 기후변화 리빙랩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신용승, 조공장)
 - 2018-07 사회·환경영향을 고려한 태양광·풍력발전 시설 입지 방안 연구 (김태현, 이상범)
- 2017년
- 2017-01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연구 I (이상엽)
 - 2017-02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손실과 피해 대응방안 (이승준)
 - 2017-03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지역 기후경쟁력 증진 방안 (류재나)
 - 2017-04 신기후체제 국제기후변화 협상동향 분석 (강상인)

- 2017-05 기후행동 변화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전략 마련: 물-에너지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접근 (최희선)
- 2017-06 이상기온에 따른 건강영향 평가·예측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 마련 (배현주, 정다운)

- 2016년 2016-01 미래환경 전망 및 지속가능사회 비전설정 기반 구축 (조공장)
- 2016-02 환경과 문화예술 콘텐츠 융합을 통한 기후환경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신용승)
- 2016-03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 수립 (황인창)
- 2016-04 기후변화 및 사회·경제적 요인의 동태적 변화를 고려한 미래 물수급 관리정책 마련(I) (류재나)
- 2016-05 물이용 지속성의 평가와 미래 전망 (김익재)
- 2016-06 최민국 지역정부의 기후변화적응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장훈, 송영일)
- 2016-07 신기후체제 협상 대응 및 기후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 연구 (강상인)

연구보고서/기본연구

- 2020년 2020-01-01 지속가능발전 정책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김호석)
- 2020-01-02 포용적 녹색사회를 위한 사회환경 기획연구 (정우현)
- 2020-01-03 친환경적 데이터 응용기술 활용 정책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강성원)
- 2020-01-04 국제환경협력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김호석)
- 2020-02-01 국가 기후 및 에너지 관리 정책개발 기획연구 (이상엽)
- 2020-02-02 인체 위해성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심창섭)
- 2020-02-03 자원순환 분야 관리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이소라)
- 2020-02-04 환경보건 분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기획연구 (배현주)
- 2020-03-01 바람직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연구 로드맵 (류재나)
- 2020-03-02 자연환경 최적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이승준, 오일찬)
- 2020-03-03 친환경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 로드맵 (박창석)
- 2020-04-01 미래 환경 대응력 강화를 위한 환경평가 부분 데이터 융복합 활용방안 (이병권)
- 2020-04-02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김유미)
- 2020-04-03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안준영, 이상윤)
- 2020-05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 개발(II): 생물다양성 지도를 통한 정책활용 방안 (이후승)
- 2020-06 플라스틱내 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 (서양원, 박정규)
- 2020-07 LNG 열병합발전시설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개선방안 연구 (김유미)
- 2020-08 기후정의 진단을 위한 공간기반 기후변화 민감계층 분석 연구 (정휘철, 김근한)
- 2020-09 도심지역 유출지하수 활용 및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김경호)
- 2020-10 원자력발전소 해체 시 비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 (신경희)
- 2020-11 자연자원총량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 (이승준)
- 2020-12 주택정책 환경성 제고를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계방안 (이상범)

- 2020-13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능 개선 방안 연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를 중심으로 (주용준)
- 2020-14 순환경제 이행 진단을 위한 통합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구축 (조지혜, 주문술)
- 2020-15 지속가능한 한반도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남북환경협력 연구 (명수정)
- 2020-16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 성능 및 처리기반 적정성 평가 연구(I) (이소라)
- 2020-17 덩어리를 활용한 해양오염 예측도구 개발 및 적용 연구(I) (김태윤)
- 2020-18 물관리 발전을 위한 하천 및 농업용수 등의 통합관리 연구(I) (김익재)
- 2020-19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전망과 대응 전략 (주문술, 조지혜)
- 2020-20 인공지능 덩어리를 활용한 조류현상 예측기술 개발 및 활용방안 (홍한웅)
- 2020-21 통합물관리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마련 연구 (한혜진)
- 2020-22 피해자 삶의 복원을 위한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 오염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김도균)
- 2020-23 하·폐수 방류수 수질 준수 평가방법의 합리화 방안 연구 (조을생)
- 2020-24 환경정의 구현을 위한 건강위해성 평가 및 관리전략 도입 연구 (배현주, 정다운)
- 2020-25 친환경 시민행동 유도를 위한 사회적 휴리스틱 활용방안 연구 (이정석)

- 2019년 2019-01 한반도 신경제지도 녹색화 전략 연구 (이정호)
- 2019-02 속의적 접근을 통한 하천 자연성 회복 정책 도출 연구 (조을생)
- 2019-03 폐기물 자원순환의 국제 동향과 영향 분석 (신상철)
- 2019-04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재정립 방안 (최희선)
- 2019-05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 환경문화를 중심으로 (조공장)
- 2019-06 육상화물운송수단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방안 연구 (한진석)
- 2019-07 지자체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관리대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 (이승민, 신동원)
- 2019-08 기후적응 요소를 고려한 토지·건물정보 제공방안 연구 (신지영)
- 2019-09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가축분뇨관리 정책방안 연구 (조을생, 이소라)
- 2019-10 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역계획의 통합 및 조정 방안 연구 (안중호, 한대호)
- 2019-11 통합물관리체계 하에서 물자원 이용·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 정비방안 연구 (문현주)
- 2019-12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한 폭염 노출위험인구 전망 및 지역별 대응 전략 (심창섭, 김오석)
- 2019-13 북한 토양·지하수 오염관리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신경희)
- 2019-14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소규모 소각시설 환경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이영준B)
- 2019-15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 및 SDGs 반영방안 (이정석)
- 2019-16 지방분권 시대 지자체 환경행정기능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간 역할 재정립 방안 (정우현)
- 2019-17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플라스틱 관리전략 연구 (이소라)
- 2019-18 하천 및 호소의 물환경에 미치는 미세플라스틱 영향 연구 (김익재)
- 2019-19 환경영향평가 고도화를 위한 공간정보활용 체계 구축(II) (이명진)
- 2019-20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 개발 (이후승)
- 2019-21 소음노출의 위해성을 고려한 비용편익 연구(이병권)
- 2019-22 유역단위 하수도 재정전략 수립기법 연구 (류재나)

- 2019-23 Construction of a Historical Map Database as a Basis for Analyzing Land-Use and Land-Cover Changes, Exemplified by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and Inner-German Green Belt (Part II) (김오석)
- 2018년 2018-01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운영의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사공희)
- 2018-02 원자력시설 해체 부지의 재사용을 위한 환경관리 전략: 토양 및 지하수 분야를 중심으로 (신경희)
- 2018-03 폐기물 처리방법별 환경효율성(Eco-efficiency) 평가 연구 (이소라)
- 2018-04 토양오염부지의 환경매체 연계관리 방안 (황상일, 양경)
- 2018-05 고품화 사회에서의 가정 발생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체계 개선방안 (서양원, 조지혜)
- 2018-06 고품연료 에너지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개선방안 연구 (김유미, 조지혜)
- 2018-07 우리나라 국토환경 지리정보의 활용성 제고 방안 (명수정)
- 2018-08 복합재난(NATECH)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 (박정규, 서양원)
- 2018-0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에 따른 환경적 영향과 대응방안 (최희선)
- 2018-10 점오염원 질소관리 정책강화의 타당성 평가 (안중호)
- 2018-11 중소하천 물환경 개선을 위한 용배수로 관리 및 활용 방안 (김익재)
- 2018-12 토지피복지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정책적 활용 기반 마련 연구 (윤정호, 김근한)
- 2018-13 고품지의 환경친화적 농지이용 전환에 대한 경제성 평가 (김현노)
- 2018-14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누적위해성평가 연구 (정다운)
- 2018-15 Construction of a Historical Map Database as a Basis for Analyzing Land-Use and Land-Cover Changes, Exemplified by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and Inner-German Green Belt (Part I) (김오석)
- 2018-16 기뭇지역 농촌용수 개발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연구: 지하수-지표 수 복합이용을 대안으로 (김경호)
- 2018-17 생태공학적 기법을 활용한 지역단위 생태계 보호지역 확대방안 (구경아)
- 2018-18 환경영향평가 고도화를 위한 공간정보 활용 체계 구축(I) (이명진)
- 2018-19 상수원 관리지역의 기후회복력 강화 방안 연구: 4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이정호)
- 2017년 2017-01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도시·군관리계획(재정 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중심으로 (이영재)
- 2017-02 물인프라 건설단계 이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문현주, 김현노)
- 2017-03 IPCC 신시나리오 체계를 적용한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피해비용 분석 (채여라)
- 2017-04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II) (서양원, 박정규)
- 2017-05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효과 분석 (이상엽)
- 2017-06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국민체감형 환경서비스 개발 방안 (신용승)
- 2017-07 환경영향평가서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위해성 평가 개선 연구 (하종식)
- 2017-08 이차전지의 폐자원흐름 분석 및 자원순환성 제고방안 (조지혜)
- 2017-09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 개발 연구(II) (김충기)

- 2017-10 매립자원의 순환이용 가능량 분석 및 미래형 매립지 관리전략 마련 연구 (이소라)
- 2017-11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김익재)
- 2017-12 원자력발전소 해체 폐기물의 안전·안심관리 정책 방안 (이희선)
- 2017-13 ICT 발전트렌드에 대응하는 공간정보의 환경이슈 적용 체계 구축: 빅데이터 분석 과 위성영상 활용을 중심으로 (이명진, 이정호)
- 2017-14 기저유출을 고려한 환경가뭄 평가방안 연구 (현윤정)
- 2017-15 해수담수화에서 생성되는 농축수의 환경적 영향과 평가 (김태윤)
- 2017-16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지역간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영향 분석 (전호철)
- 2017-17 지권과 생물권 간 공진화 현상에 기반한 국토 자연환경 관리방안 (이수재)
- 2017-18 사회인공지능의 적용을 통한 환경친화적 행동 촉진에 대한 연구 (이정석, 강택구)
- 2017-19 지역별 친환경차 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진석)

- 2016년 2016-01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 방안 연구(II) (신용승, 배현주)
- 2016-02 도시의 기후 회복력 확보를 위한 공간단위별 평가체계 및 모형 개발(II) (김동현)
- 2016-03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대응 유라시아 지역 환경전략 연구 (추장민)
- 2016-04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물환경관리 방안 및 정책기반 마련 연구 (한혜진)
- 2016-05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 개발 연구(I) (이현우)
- 2016-06 지중환경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II) (황상일)
- 2016-07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을 고려한 물환경 인프라시설 투자 방향 연구 (류재나, 강형식)
- 2016-08 폐자원흐름분석을 통한 전기·전자제품의 upcycling 활성화 방안 (이희선)
- 2016-09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재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재활용 관리제도 전환에 따른 영향 분석 (이소라, 신상철)
- 2016-10 공간정보를 활용한 재해폐기물 성상별 최적 관리방안 (조지혜, 김태현)
- 2016-11 국가 및 지역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성 분석 및 환경영향평가 대비방안 연구 (방상원)
- 2016-12 정부3.0 기반 지역기피시설 주민수용성 평가 방안(II) (김태현)
- 2016-13 랜덤워크를 이용한 생태네트워크 변화 모의예측방안 연구(II) (김지영)
- 2016-14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I) (박정규, 서양원)
- 2016-15 교통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효과 추정방안 연구: 도로이동오염원을 중심으로 (한진석)
- 2016-16 기후·대기 환경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건강 위해성 평가 개선 연구: 농도 반응함수의 국내 표준안을 중심으로 (하종식)
- 2016-17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지역자원 관리 방안(II) (박창석)
- 2016-18 기후변화 적응정책 지원을 위한 토지이용통합모델 개발(II) (김오석)
- 2016-19 ICT 발전트렌드에 대응하는 공간정보의 환경이슈 적용 체계 구축 (이명진, 이정호)
- 2016-20 북한 환경정보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II): 원격탐사를 이용한 자연환경성 우수지역 평가 (정휘철)

정책보고서/수시연구

- 2020년
- 2020-01 지속가능성 정책 지원을 위한 환경용량 평가 체계 및 활용 연구 (이승준)
 - 2020-02 스마트도시 계획 진단을 통한 '스마트 지속가능도시'로의 전환방향 (최희선, 박창석)
 - 2020-03 중국의 대기정책결정 구조 분석과 한중 협력의 시사점 (강택구)
 - 2020-04 다부처 정책 연계성 확보를 통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연구: 전기차 배터리를 중심으로 (조지혜, 이소라)
 - 2020-05 도심지 열병합발전시설 주변 주거지역 소음영향 최소화 관리방안 (박영민)
 - 2020-06 미세먼지 대응 예산의 재정운용 방향 (정우현)
 - 2020-07 코로나19에 따른 환경규제 개편 필요성 및 추진방안 (강성원)
 - 2020-08 환경권의 실제적 구현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한상운)
 - 2020-09 감염성 의료폐기물 비상처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신상철)
 - 2020-10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환경협력 전략 연구 (추장민, 명수정)
- 2019년
- 2019-01 통합법 시행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허가조건 평가 및 개선방안 (공성웅)
 - 2019-02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폐기물 발생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이영준B)
 - 2019-03 물환경 분야 규제 완화에 의한 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이병국, 김익제)
 - 2019-04 도시지역 자연환경 훼손 진단과 복원 방향 (명수정)
 - 2019-05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추이 및 한중 간의 오염도 상관관계 분석 (주현수)
 - 2019-06 국가 지속가능성 이행과제 간 연관관계 분석방안 연구 (홍한웅)
 - 2019-07 수송용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세계개편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 연구 (신동원)
 - 2019-08 DMZ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 방향 (김오석)
 - 2019-09 생활밀착형 환경이슈에 대한 수요반영 개선 연구: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진대웅)
 - 2019-10 남북한 도로망 연결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방안 (전동준)
 - 2019-11 P4G 파트너십 의제 개발 및 국내 대응방안 연구 (김호석)
 - 2019-12 지역단위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세종시 사례를 중심으로 (신상철)
 - 2019-13 환경성·형평성을 고려한 수송용 에너지 적정가격 설정 및 세수 활용 방향 (강만옥)
 - 2019-14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마련 연구 (이소라)
 - 2019-15 시공간을 고려한 환경생태적 우수지역과 환경성질환의 상관성 분석 연구: 환경·국토계획 통합 계획에서의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김근한)
 - 2019-16 인체위해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 구성성분별 건강영향 연구 (배현주)
 - 2019-17 가뭄 대비 기존 지하수 관정 활용을 위한 정책 로드맵 연구 (현윤정)
 - 2019-18 시민 참여를 통한 사회·경제적 환경여건별 폭염 체감 영향 분석 (채여라, 최영웅)
 - 2019-19 재생에너지 입지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방안 연구 (김경호)
 - 2019-20 교통소음 관리 기준의 합리화(일원화) 방안 (박영민)
 - 2019-21 중국의 대기관리 정책 분석 및 한중 협력 강화 방안 (최기철)
 - 2019-22 한반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북한환경 연구로드맵 수립 - 북한 환경실태 기초조사를 통한 미래 친환경 통일 한반도 기반 구축 (추장민)

- 2018년
- 2018-01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조지혜)
 - 2018-02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방향 (이상엽)
 - 2018-03 LCA에 기반한 전기차의 발전원별 환경효과 분석 (이소라)
 - 2018-04 환경부문 개헌의 법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상운)
 - 2018-05 지방자치·분권 강화에 따른 유역 중심의 하수도 관리체계 연구 (김호정)
 - 2018-06 환경부문 헌법 개정을 위한 여론조사 (조공장)
 - 2018-07 신규 농업시설물의 수질오염 관리방안 마련 연구 (류재나)
 - 2018-08 지자체 교통부문 미세먼지 관리 방안 연구: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중심으로 (한진석)
 - 2018-09 물환경관리계획의 이행평가체계 개선 방안 (김익재)
 - 2018-10 소규모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정책 개선방안 (박영민)
 - 2018-11 국민참여형 환경영향평가 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방안 (전동준)
 - 2018-12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처리 체계 개선 방안 마련 연구 (신상철)
 - 2018-13 미세플라스틱 관리 동향 및 정책 제언 (박정규)
 - 2018-14 차량-야생동물 충돌 사고(WVC) 제어와 방지를 위한 적정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방안 연구: 세종특별자치시 생활권 오송역~세종시 고속화도로를 중심으로 (방상원)
- 2017년
- 2017-01 지진의 환경영향 및 대응방향 (현윤정)
 - 2017-02 수용체 중심의 환경정책 활용을 위한 대기오염의 노출위험인구 산정 연구 (배현주)
 - 2017-03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환경평가 미래 발전 전략 (이영준)
 - 2017-04 미래 기후 및 사회경제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 이슈 발굴 (채여라)
 - 2017-05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뉴 패러다임 개발 (추장민)
 - 2017-06 환경영향평가 시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개선방안 (김유미)
 - 2017-07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지역단위 환경불평등 분석 (김태현)
 - 2017-08 산업단지 토양 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양경)
 - 2017-09 북한의 환경인프라 조성을 위한 환경협력 연구 (명수정)
 - 2017-10 아시아 지역 거점 바이오브릿지 헬프데스크 구축방안 연구 (오일찬)
 - 2017-11 통합 물관리의 기본 원칙과 정책 로드맵 연구 (김익재)
 - 2017-12 군부대 주둔 및 이전 부지의 환경관리 정책: 토양·지하수 환경을 중심으로 (박용하, 이정호)
 - 2017-13 국가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개발 (김호석)
 - 2017-14 자연적 원인에 의한 중금속 오염 농경지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황상일)
 - 2017-15 환경정의 측면의 녹지접근성 분석 연구 (명수정)
 - 2017-16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환경영향평가 조사방안 연구 (이상범)
 - 2017-17 환경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공탁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유현석)
- 2016년
- 2016-01 가뭄 단계에 따른 적응형 가뭄관리정책 연구: 지역 차원의 비구조적 가뭄대책을 중심으로 (김호정)
 - 2016-02 나노폐기물의 안전처리를 위한 관리전략 수립 연구 (조지혜)
 - 2016-03 TPP 환경관련 협정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추장민)

- 2016-04 화학사고의 경제적 손실 추정을 위한 방법론 진단 및 선정 방안 연구: 인적·생태적 피해액 추정을 중심으로 (서양원, 곽소윤)
- 2016-05 제주 탄소제로섬 추진전략 연구 (이병국)
- 2016-06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평가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조공장)
- 2016-07 토양정화 곤란 부지의 최적 관리방안 연구 (박용하)
- 2016-08 실도로에서 경유차의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 연구 (강광규)
- 2016-09 신기후체제의 기후변화 적응 및 손실과 피해에 관한 대응방안 (이승준)
- 2016-10 대기환경비용을 고려한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실효성 제고 연구: 차종별 적정 보조금 수준 분석을 중심으로 (한진석)
- 2016-11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운영 강화에 따른 국가지질공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이수재)
- 2016-12 신기후체제 시대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체계 연구 (김이진, 이상엽)
- 2016-13 EU REACH 시험자료 분석을 통한 화평법 지원방안 연구 (박정규)
- 2016-14 환경영향평가와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연계방안 연구 (현윤정)
- 2016-15 비도시지역 주거-공장 혼재형 난개발 평가기준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 (이영재)
- 2016-16 미래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과제 개발과 환경거버넌스 발전 연구 (추장민)

Working Paper

- 2020년 2020-01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내외수 홍수범람 통합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이승수)
- 2020-02 건강하고 쾌적한 음환경 구축을 위한 도시소음 관리정책 수립방안 (박영민)
- 2020-03 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이재혁)
- 2020-04 환경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소통 모형 개발 기초연구 (염정윤)
- 2020-05 환경정책의 고용 영향: 제조업을 중심으로 (조일현, 김호석)
- 2020-06 하천구역 내 친수시설물 입지 및 조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지민규)
- 2020-07 지역특화관광산업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방안 마련 (조한나)
- 2020-08 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의 생태계기반 적응(Ecosystem-based Adaptation) 도입 방안 모색 (박진한)
- 2020-09 홍수총량제 도입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 홍수 유역분담제 시행 방안 검토 (이승수)
- 2020-10 지진 재난 복원력 정량화 및 효율적 복구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권선용)

- 2019년 2019-01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수용체 중심 위해관리 기반 연구 (정다운)
- 2019-02 환경규제 동향분석 및 중장기 정책과제 도출: 포럼 자료집 (김현호)
- 2019-03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의 사후환경영향평가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이진희)
- 2019-04 저주파 소음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선효성)
- 2019-05 지속가능한 해양활용을 위한 해양환경통합자료 적용 연구 (김태운)
- 2019-06 선형 교통사업의 지형변화 적정성 평가방안 마련 (권선용)

- 2019-07 생태계 교란식물 분포도 구축을 위한 드론 영상과 이미지 검색 기술의 적용 가능성 검토 연구 (김근한)
- 2019-08 수자원의 합리적 배분 방안 마련 기초 연구: 합리적 물 공급 분석 방안 연구 (서승범)
- 2019-09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드론과 BIM의 적용 가능성 검토 기초 연구 (유재진)
- 2019-10 삶의 만족도 지표를 활용한 미세먼지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 (전호철)
- 2019-11 순환경제사회를 위한 물질흐름분석의 정책적 활용 동향 연구 (주문술)
- 2019-12 매립장 유래 미세플라스틱 관리방안: 침출수 발생원을 중심으로 (지민규)
- 2019-13 환경정책연구에서 데이터 활용성 강화를 위한 기초 연구 (진대용)
- 2019-14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최현진)

- 2018년 2018-01 에너지 수요전망모형 개발 기초연구 (전호철)
- 2018-02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입 필요성 연구 (이영준)
- 2018-03 환경영향평가 환경정의 항목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이상윤)
- 2018-04 조류충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이후승)
- 2018-05 드론을 이용한 대기환경 조사기법 분석과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윤정호)
- 2018-06 서울 미세먼지(PM10) 농도의 시공간통계모형 활용방안 연구 (홍한음)
- 2018-07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도시개발과 재생에너지개발을 중심으로 (이상범)
- 2018-08 온실가스 배출량의 소득탄력성 추정 연구: 함수 계수 패널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전호철)
- 2018-09 환경영향평가 시 지진 안정성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권선용)
- 2018-10 대기 이미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오염도 추정 (진대용)
- 2018-11 한국의 녹색경제 진단(I): 녹색활동 및 경제운영시스템 (김중호)

- 2017년 2017-01 불확실성과 학습효과를 반영한 기후경제 모형 방법론 연구 (황인창)
- 2017-02 환경경제 분석에서 행위자 기반 모형의 활용방안 연구 (채여라, 정예민)
- 2017-03 인도 물관리 정책의 비교분석과 환경협력 확대 방향 (김익재)
- 2017-04 산림경영사업지의 개발용지 전환 사례조사 및 개선사항의 도출 (방상원)
- 2017-05 환경분야 빅데이터 수집방법 연구: 대기질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진)
- 2017-06 에머지 방법론을 활용한 유역의 지속가능성 평가: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이승준)
- 2017-07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노후건물의 재정비 시나리오별 환경적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송지윤)
- 2017-08 Smart waste 및 환경정보 제공을 위한 주민참여형 애플리케이션 활용 연구 (이소라, 임혜숙)
- 2017-09 2차 생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암모니아 관리정책 마련 기초연구 (신동원)
- 2017-10 주요국가 환경정책 트렌드 분석연구 (명수정, 문현주, 신용승, 전호철)
- 2017-11 한국의 녹색경제지수 산정 (김중호)
- 2017-12 합성생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연구동향 (오일찬)

- 2016년 2016-01 시스템과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한 미래 환경정책 방향 연구 (이승준)
- 2016-02 공공자료 분석을 통한 친환경적 풍력에너지 개발 기초 연구 (김태윤)

- 2016-03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 가능한 주민참여 방법 기초 연구 (이상운)
- 2016-04 자율주행 자동차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기초 연구 (이승민)
- 2016-05 미래 고온환경 변화와 직종 간 임금격차 추정 (김동현)
- 2016-06 드론을 이용한 환경재난 사후대응 기술 및 연구동향 분석 연구 (손승우)
- 2016-07 건물부문의 환경부하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송지운)
- 2016-08 근지표환경 임계영역(Critical Zones)의 환경적 중요성과 환경 관리의 미래 이슈 (현윤정)
- 2016-09 시민과학의 자연환경조사 적용방안 연구 (김윤정)
- 2016-10 환경평가 자료의 공공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김태형)
- 2016-11 토지환경 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정책방향 (명수정)
- 2016-12 건강영향평가 분야에서의 위해소통을 위한 리스크 테이블 제작 연구 (하종식)
- 2016-13 해외 환경정책 인벤토리 구축 연구: 환경전략/대기환경/물환경/국토자연/자원순환 부문 (조일현, 공성용, 한대호, 홍현정, 한상운)
- 2016-14 해외 환경정책 인벤토리 구축 연구: 환경평가 부문 (박하늘)
- 2016-15 해외 환경정책 인벤토리 구축 연구: 온실가스 감축 부문 (김이진, 간순영)
- 2016-16 지하수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김경호)
- 2016-17 토양자원 관리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양경)
- 2016-18 미세조류 바이오매스의 자원화 활용에 대한 연구: 바이오 (기능성)소재를 중심으로 (지민규)
- 2016-19 2016 국민환경의식조사 연구 (곽소윤)

사업보고서

- 2020년 2020-01 국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평가: 극한기후 리스크의 경제적 분석 (채여라)
- 2020-02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이현우)
- 2020-03-01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VII) (류재나, 한혜진)
- 2020-03-02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VII) [부록] (류재나, 한혜진)
- 2020-04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VI) (김충기)
- 2020-05-01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자체별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 (KEI_PM2.5_CR_V2.0) (문난경)
- 2020-05-02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사업에 따른 생물 서식지의 질적 변화 II (전동준)
- 2020-05-03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낙동강권역 유역건전성 평가체계 마련 (박종윤)
- 2020-05-04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소음지도를 활용한 지역(도시)별 환경용량평가 (이병권)
- 2020-05-05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산업단지 개발사업 현황과

환경변화 분석 (최현진)

- 2020-06-01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및 정책·사업 평가 (김현노)
- 2020-06-02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부문별 영향평가 및 가치추정 (김현노)
- 2020-06-03 [별책부록] 2020 국민환경의식조사 (김현노)
- 2020-07 환경 빅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개발 IV (강성원)
- 2020-08-01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 (심창섭)
- 2020-08-02 [별책부록] 미세먼지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 자료 구축 (심창섭)
- 2020-09 미세플라스틱의 건강 피해 저감 연구 (박정규)
- 2020-10-01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종합보고서(Comprehensive Report) (강택구)
- 2020-10-02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북한지역 환경오염원 현황 분석 및 남북환경협력 방안 - 대기오염을 중심으로 (명수정)
- 2020-10-03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한강하구 상태평가 및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연구 (김충기)
- 2020-10-04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DMZ 일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 - 강원권 DMZ 및 접경지역을 중심으로(전동준)
- 2020-10-05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북한 개발투자사업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구축 방안 (조공정)
- 2020-10-06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북한 환경법제 입법 동향 및 DB 구축 (한상운)
- 2020-10-07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위성영상 기반 북한 주요 지역 토지피복 현황 및 토지피복도 구축 (추장민)
- 2020-10-08 KEI 북한환경동향 2020년 (강택구)
- 2020-11-01 [녹색경제협동연구] 2020 녹색경제협동연구 사업보고서: 녹색경제협동연구 성과확산 (강형식)
- 2020-11-02 [녹색경제협동연구]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II) (김현노, 신동원)
- 2020-11-03 [녹색경제협동연구]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스마트 축소 모형 연구(I) (박창석, 신지영)
- 2020-11-04 [녹색경제협동연구] 어린이 녹색생활환경 구축연구(II): 위해저감을 위한 녹색소비 이행전략 (정다운)

- 2019년 2019-01 동아시아 녹색전환을 위한 국제환경네트워크 구축 (이현우)
- 2019-02-01 [국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평가] 데이터 기반 폭염 및 한파의 직간접 영향 분석 (채여라)
- 2019-02-02 [별책부록] 수요자의 인식을 고려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정책방안(II) (채여라)
- 2019-03-01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김호석)
- 2019-03-02 KEI 북한환경동향 2019년 (김호석)
- 2019-04-01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VI) (류재나, 김익재)
- 2019-04-02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VI) [부록] (류재나, 김익재)
- 2019-05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V) (김충기)

- 2019-06-01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선박 및 발전시설의 미세먼지 기여도 분석 (문난경)
- 2019-06-02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사업 입지 적정성 평가를 위한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의 현황 및 배출원 특성 분석 (김유미)
- 2019-06-03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사업에 따른 생물서식지의 질적 변화 (전동준)
- 2019-06-04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한강권역 유역건전성 평가 체계 마련 (박종윤)
- 2019-06-05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소음지도를 활용한 지역(도시)별 환경용량평가 (이병권)
- 2019-06-06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주요 재생에너지원별 현황 및 환경적 가용 입지 분석 (이영준)
- 2019-07-01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김현노)
- 2019-07-02 [별책부록] 2019 국민환경의식조사 (김현노)
- 2019-08 환경 빅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개발 III (강성원)
- 2019-09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 (심창섭)
- 2019-10 미세플라스틱의 건강 피해 저감 연구 (박정규)
- 2019-11-01 [녹색경제협동연구] 녹색경제협동연구 성과확산 (현윤정)
- 2019-11-02 [녹색경제협동연구]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김현노)
- 2019-11-03 [녹색경제협동연구] 어린이 녹색생활환경 구축 연구(I): 위해저감 및 녹색 소비 방안을 중심으로 (정다운)
- 2019-11-04 [녹색경제협동연구] 글로벌 녹색전환 네트워크 구축 (김호석)

- 2018년 2018-01 국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평가: 체감형 적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체계 구축(II) (채여라)
- 2018-02-01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이현우)
- 2018-02-02 환경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공공참여제도 한중 비교연구 (김태현)
- 2018-02-03 KEI 북한환경동향 2018년 (이현우)
- 2018-02-04 KEI 일대일로포럼 자료집 (이현우)
- 2018-03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V) (류재나, 황상일)
- 2018-04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황상일)
- 2018-05-01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자체별 오염원별·물질별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 산정 (문난경)
- 2018-05-02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유해대기오염물질 평가를 위한 모델링 기반 구축 (문난경)
- 2018-05-03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토석채취사업의 현황 및 개발 적정성 분석 (이영준)

- 2018-05-04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도시화에 따른 유역건전성 평가 체계 개발(금강수계를 중심으로) (박종윤)
- 2018-05-05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현황과 환경적 고찰 (박종윤)
- 2018-06-01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환경·경제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안소은)
- 2018-06-02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부문별 영향평가 및 가치추정 (안소은)
- 2018-06-03 [별책부록] 2018 국민환경의식조사 (안소은)
- 2018-07 원전사고 대응 재생계획 수립방안 연구(3): 중장기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조공장)
- 2018-08 환경 빅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개발 II (강성원)
- 2018-09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 (주현수)
- 2018-10-01 [녹색경제협동연구] 2018 녹색경제협동연구 사업보고서 (안종호)
- 2018-10-02 [녹색경제협동연구] 한국 제조업의 환경경제효율성 분석 (김종호)
- 2018-10-03 [녹색경제협동연구]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재정 구축 방안: 지속가능발전을 반영한 환경재정 개편 방향 (김호석)
- 2018-10-04 [녹색경제협동연구] 환경기반시설·사업 투자의 타당성·효과성 평가사업(II) (문현주)
- 2018-10-05 [녹색경제협동연구] 국가 친환경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총괄연구 (이상엽)
- 2018-10-06 [녹색경제협동연구]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평가 기반마련 연구: 개발사업의 사회영향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신용승, 조공장)
- 2018-11 농촌지역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방안 연구(III) (황상일, 현윤정)
-
- 2017년 2017-01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IV) (류재나, 강형식)
- 2017-02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평가 및 피해비용 추정(III) (안소은)
- 2017-03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III) (황상일)
- 2017-04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문난경, 이영준, 박종윤)
- 2017-05-01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안소은)
- 2017-05-02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부문별 영향평가 및 가치 추정 (안소은)
- 2017-05-03 [별책부록] 2017 국민환경의식조사 (안소은)
- 2017-06 원전사고 대응 재생계획 수립방안 연구(2): 비상대응계획을 중심으로 (조공장)
- 2017-07 환경 빅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개발 (강성원)
- 2017-08-01 [녹색경제협동연구] 녹색경제 성과확산 (공성용)
- 2017-08-02 [녹색경제협동연구] 환경기반시설 사업·투자의 타당성·효과성 평가사업 (I) (문현주)
- 2017-08-03 [녹색경제협동연구] 환경유해보조금 추계 및 개편방향 연구: 화석연료보조금을 중심으로 (김종호)
- 2017-08-04 [녹색경제협동연구]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친환경 소비 확산방안 (김동현)
- 2017-08-05 [녹색경제협동연구] 자연해택 평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II) (김충기)
- 2017-08-06 [녹색경제협동연구] 메공유역의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연구 (강상인)
- 2017-09 농촌지역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방안 연구(II) (황상일, 현윤정)
- 2017-10 석탄화력발전 연료대체 시나리오별 환경·건강영향 분석 (주현수)

- 2017-11 어린이 환경건강 관리 개선방안 연구 (정다운)
- 2017-12 저탄소·친환경 전원 기반 마련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 소통 방안 (이승준)
- 2017-13 국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평가 (채여라)
- 2017-14-01 (총괄)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성과 확산 (추장민)
- 2017-14-02 지속가능한 동시베리아 지역공동체 발전전략 연구 (강상인)
- 2017-14-03 환경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공공참여제도 한·중 비교연구 (정우현, 이정석)
- 2017-14-04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지역 환경협력 추진전략 (추장민)
- 2017-14-05 KEI 북한환경동향 2017년 (추장민)

- 2016년 2016-01-01 기후환경 대응역량 평가체계 구축 (채여라)
- 2016-01-02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리스크 정량화 연구(Ⅲ): 연안시스템을 중심으로 (조광우)
- 2016-02 개발사업의 소음모니터링 분석과 개선방안 (선희성)
- 2016-03 온실가스 감축정책 평가를 위한 환경경제모형 개발·운용(Ⅲ) (강성원, 박창석)
- 2016-04-01 한중일 3국의 환경투자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및 환경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이정석)
- 2016-04-02 통일 대비 북한지역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자료 구축과 남북협력 방안 연구(I) (강택구)
- 2016-05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Ⅲ) (강형식)
- 2016-06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평가 및 피해비용 추정(II) (안소은)
- 2016-07 셋강 관리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II) (강형식)
- 2016-08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이현우)
- 2016-09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문난경)
- 2016-10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이창훈)
- 2016-11 원전사고 대응 재생계획 수립방안 연구(1):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중장기 모니터링에 기반하여 (조공장)
- 2016-12-01 [녹색경제협동연구] 2016 녹색경제협동연구 사업보고서 (이창훈)
- 2016-12-02 [녹색경제협동연구] 녹색경제 평가를 위한 지표체계 개발 (김종호)
- 2016-12-03 [녹색경제협동연구] 친환경적 태도·행동 분석 모형 구축을 통한 친환경소비 활성화 방안 연구 (곽소윤)
- 2016-12-04 [녹색경제협동연구] 자연해택평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I) (김중기)
- 2016-12-05 [녹색경제협동연구] 아태지역 녹색경제 이행과 메콩유역 농업부문 융합혁신 전략 연구 (강상인)
- 2016-13 농촌지역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방안 연구 (황상일)
- 2016-14 대도시지역의 극한 홍수로 인한 복합영향 매커니즘 분석 (채여라)

※ KEI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보고서 원문은 KEI 홈페이지(www.kei.re.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책자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용지로 인쇄되었습니다.

KEI 북한환경동향 2020년

KEI Environmental Issues in North Korea 2020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과학·인프라동) 8~11층
TEL. 044-415-7777 FAX. 044-415-7799 <http://www.kei.re.kr>

 94530
9 791159 804977
ISBN 979-11-5980-497-7
ISBN 979-11-5980-485-4 (세트)